



중입의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3 제 6769호

Wednesday, October 4, 2023 A

"좌와 우를 넘어" "분열 대신 통합" 미완의 숙제



SPECIAL STORY

역사는 과거가 아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역사는 아 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뽑아서 모아놓은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역사 속에 서술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어떤 시대에는 역사 에 포함되었던 사건이 시간이 흘러 다 른 시대에는 역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시대의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고 판 단되는 사건이 새롭게 역사 범위에 포 함되는 것이다.

역사의 범위가 모든 과거를 다 포괄 하지 못하다 보니 실패한 사건이나 감 추고 싶은 사건은 역사 서술 속에서 사 라지거나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든다. 성 공의 역사가 오늘의 현실을 만드는 직 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만큼 역사 속에 서 더 부각된다. 하나의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는 민족국가 시대에 들어와 그

농지개혁 합의한 해방 후 좌우합작, 여운형 암살로 사라져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 조봉암의 '제3정당' 도 결국 무산

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되었 다. 때로 실패했지만, 성공 한 역사보다 더 소중했던 역사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의병운동과 3·1운 동이다. 두 운동의 목표는 독립이었다. 두 운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3·1운동은 대한민국 수립의 정신적 기초가 되기 때문에 헌법 전문의 가장 첫 문장에 등 장한다. 대한민국 국회 개원식 날 이승 만의장은 다음과 같이 개회사를 했다.

"나는이 대회를 대표하여 오늘에 대 한민주국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나라에 유일한 민족대 표 기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합니다. 이 민국은 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

1997년 DJP 연합, 야합 비판에도 금융위기 신속하게 극복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밑거름이 된 1919년 3·1운동. 2 1945년 말 임시정부 환영식에 참석한 이승만(왼쪽)과 김구. 31997년 대선 후보 단일화

를 선언한 김대중(왼쪽)과 김종필.

대표들이 서울에 모혀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

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야 민주주의에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불행히 세계 대세에 인연하여 우리 혁명이 그때 성공이 못되었으

> 나 우리 애국남녀가 해내해 외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 여많은생명을바치고혈 전고투하여 이 정신만을 지켜온 것이니 (중략) 29 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 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여 민

국 연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 이오,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한 국회 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정부 는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 부임을이에 또한 공표하는 바입니다," 이승만은 대통령 취임 후 국회가 '민국' 연호 대신 '단군' 연호를 쓰는 데 대해 서도 많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일 각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 하려고 노력하면서 막상 그가 정통성 의 근거로 내세웠던 임시정부를 폄하 하려 했으니, '민국' 연호를 쓰려했던 역사 역시 실패했지만, 기억해야 할 사 례라고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역사도 있다. 사실 지금까지는 역 사 속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주목받지 못했고, 또는 성공의 가능성이 낮은 정 치적 노력으로 평가받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역 사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자하는 노력이었다.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정치적 목표 를 놓고 볼 때 어느 한쪽에 대한 확실한 목소리보다 중간에서 분열을 막고 급 진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 아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다. 정체성 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상대 진영을 이롭게 한다는 '2중대'로 규정될 수도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 역사였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10면 '스페셜 스토리' 로 이어집니다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 사상 첫 해임

미하원은 3일 공화당 케빈 매카시(사 진)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가 결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해임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한 결과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 이 통과된 것은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 이다. 앞서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지난달 30일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 매카시 의장에 대 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했다.

미국 의회는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 연방 정부 예산안을 처리 해야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가 가파른 예 산식감주장을굽히 지않으며논의가교 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왔다.

'셧다운'(연방정부 기능 마비)이 코앞 까지다가온상황에서매카시의장이지 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제 외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 처리에 나서 며 일단 정부 셧다운 상황은 피해갔다.

하지만, 같은 당 강경파 의원들이 불

만을 표출하며 해임결의안을 추진, 매 카시 하원의장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불신임된 하원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 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 총회를 통해 해 임 결의안에 대한 찬성 당론을 정했다.

하원 의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하원 은 의장을 다시 선출해야 하므로 당분 간 정상적으로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하원의장 해임안 가 결로 공화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간 경쟁 이 더 치열해짐에 따라 미국 정국은 안 개속에 빠져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바둑 금메달 한국이 3일 중국 항저우 중국기원 분원 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 시안게임 바둑 남자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4-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뉴스1]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미용사 초빙합니다. 경력자 우대 410-988-5523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이신분들 상담환영!(버지니아지역)

1959년생이신 분들의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Licensed Broker in \/A in VA, MD, DC, GA, NJ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추석 민심 우호적이지 않네" 대통령실, 민생대책 손본다

비상경제민생회의부터 재점검 "물가 등 피부 와닿는 주제 논의"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은 정치권도 주 목하는 시기다.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 이 여론의 흐름을 증폭시키거나 굳히 는 경향이 있어서다. 올해 추석은 내년 4·10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시점이기도

개천절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다수의 대통령실 참모는 "추석 민심이 썩 우호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한마디 로 추석 민심 풍향계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녹록 지 않아서"라는 게 참모들의 원인 진단 이다. 익명을 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는 외생 변수가 많아 정책 효과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실질소득은 제자 리인데, 고용 불안 분위기는 상존하는 등 현 경제 상황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잘 안보인다"고말했다.

수출·물가·부동산 등 핵심 지표가 우호적이지 않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5.8%)부터 지난달(-4.4%)까지 12개 월 연속 감소세였다. 물가상승률은 8 월 3.4%를 기록하며 5월(3.3%) 이후 다 시 3%대로 올라섰다. 그나마 부동산이 큰 이슈가 없다고 하지만 "부동산은 오 르든 내리든 찬반이 나뉘는 논쟁적 이 슈"(대통령실 관계자)로 마냥 긍정적이 라고 보기 힘들다는 게 대통령실 시각 이다. 문제는 당장 손에 잡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물가 문 제가 그렇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이 흑자를 보이 고 있다"면서도 "물가는 국제 에너지 가 격 상승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 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말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4355주년 개천절 만세삼창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 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앞줄 왼쪽 다섯째부터)가 3일 서울 종로구 세 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달까지 20차례 진행해온 비상경제민 생회의를 손볼 계획이다. 비상(非常)이 란 말에 어울리지 않게 회의가 정례화 되면서 다루는 주제도 실생활과는 거

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차전지나 반도체, 인 공지능(AI) 등은 미래 먹거리와 관련 된 사안이지만 지금 체감할 수 있는 주 제는 아니다"며 "즉각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따뜻하고 직접적인 주제를 다 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장소나 시점 등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반면에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1호 영 업사원'을 자임해온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 행보에 성과가 있다고 판단, 관련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도운 대변 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40조원 투자 약속,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처 럼 규모는 결정됐지만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확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 다"며 "이달 안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후속 일정이 있어 곧 질 좋은 일자 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 장 기각 등은 민심 흐름의 결정적 변수 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민심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이 유에서다. 권호 기자

"일정·증인 단독의결, 야당 막 가자는 것"···여당, 김행 청문회 보이콧 시사

여야가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김 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회에서 격돌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 의안가결 여파로 '친명계'로 재편된 민 주당 원내지도부와 국민의힘 원내지도 부 간 첫 맞대결이다. 김행 후보자 청문

회는 야당 단독으로 일정을 잡은 데 반발해 여당이 불 참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 을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 내대표는 3일 국회에

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도, 증인도 단독으로 의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거의 막 가자는 것"이라며 "여가위 차원에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보이 콧을 시사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도 "민 주당은 이랬다저랬다 날짜

를 바꿔가며 시간을 끌다 가 논의 한 번 거치지 않은 증인을 (지난달 27일) 일방통행으로 의결하 고 비난의 화살은 국

민의힘으로 떠넘겼다"며 "과연 이것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여야 협상이 라고할 수 있나. 교활한 사기 행위 아니 냐"고 반발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당이 보이콧하 는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 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하 는 검증"이라며 "당연한 책무로써 할 일이지, 거부할 게 아니다"고 했다. 그 러면서 "청문회를 열면 김 후보자가 얼 마나 부적격한지 국민들이 다보실 것" 이라며 청문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

날 김 후보자는 물론 유인촌 후보자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신원 식 국방장관 후보자 셋 모두에 대해 지 명 철회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은)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 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 를 해야 한다"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 하고, 또 인사 참사를 초래한 인사 검증 담당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야한다"고하면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2013 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자신의 '소셜뉴

스'(위키트리 운영사) 주식을 배우자 의 친구와 시누이에게 이른바 '주식 파 킹'(우호적 타인에게 주식신탁)을 했다 는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유인촌 후보자를 상대로는 이명박 정 부 문체부 장관 재직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 부 적격 사유를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자는 이날 서면답변서를 통 해 "이명박 정부에선 블랙리스트가 없 었다"며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해 일괄 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고 반박했 다. 그러면서 "창작자 보호와 자유로운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 였다.

김기정 기자

홍익표 "이균용 부적격 강경 기류, 의총서 의견 모을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이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홍 워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선출 직 후 주변에 국감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

하게 팩트(사실)에 맞지 않는 얘길 꺼 내 되치기당해선 안 된다. 이번엔 팩트 체크를 세 번, 네 번씩 하라"는 뜻을 전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가 경찰 조사 결과 거

같은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 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정쟁 사안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서 표결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특위의 박용진 야당 간사와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자

총서 의견을 모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6 일 본회의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 랙) 지정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당소속의원 전원이 법안 표결에 참석 하도록 말씀드렸고, 비교섭단체와 무 소속들과도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관련, "(원내대표 실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진두지휘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일 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에서 나온 사안 했다고 한다. 당내 의원들에겐 "어수룩 짓이라고 판명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워싱턴 날씨 (°F)

를 심판하는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 될 거라고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벤돈 메트로 옆 타운홈

방3, 화장실2½, 차고2, 새 부엌, 그리나잇,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헤이마켓 콘도 **\$440,000** Unit!!! 그레이트폴스 싱글홈 \$1,500,000 방4, 화장이미 차고3

1에이커, 멋진 콜로니얼!

10월4일(수) 82~56



① 위싱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ERIK JURGENSEN

형사법 전문 변호사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기물파손 ■ 마약

■ 절도 / 횡령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m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영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SUPER LAWYERS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AI 활용 위한 표준 만들어라"

VA 영킨 주지사 행정명령 서명

글렌 영킨(사진) 버지니아 주지사가 인 공지능(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표 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정부분야에서의 AI 활용 범위를 연구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제5호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의하면 주정부 규제경영 국(ORM)과 주정부 최고 정보책임자 (CIO)가 주도해 AI 표준을 제정하고 교육 등 4가지 정부 영역에서 활용 방 안을 12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는 AI와 같 은 첨단기술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적 용분야를 찾아내고 기술발전에 도움 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영킨 주지사 는 교육과 법률, 규제 개혁 분야에서



AI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그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방어장치만 잘 갖춘다면 정부 분양에 서의 AI 활용이 민간을 자극하고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하고 있다.

전국주정부법률연합회(NCSL)에

의하면 현재 14개주와 미국령 푸에르 토리코 등이 AI 관련 법률을 제정한 상태다. 코네티컷 등이 버지니아와 같 은 행정명령 형태로 AI 활용방안을 강 구하고 있다.

텍사스, 노스 다코타, 웨스트 버지니 아는 주지사 직속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고 의회의 협조를 얻어 관련 규제를 없애기 위한 연구작업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연방정부 기관이 AI 연구개발과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AI,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역외 투자 제한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김옥채 기자

백악관 정원 투어 티켓 배포

백악관이 오는 14일(토)과 15일(일) 양 일간 민간에게 정원을 개방하는 행사

국립공원관리국(NPS)는 행사 당일 오전 8시30분부터 백악관 비지터센터 (1450 Pennsylvania Ave NW)에서 무 료입장 티켓을 배포한다고 전했다. 티 켓은 1인당 1장씩만 배포된다. 티켓 소 지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 지 15번가와 접한 백악관 사우스론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차세대 탈북민 지원 이어갈 것"

워싱턴평안도민회 15일 추계야유회

워싱턴평안도민회(회장 이윤보·사 진)가 지속적인 차세대 탈북민 지원 을 다짐했다.

13대 이윤보 회장은 지난 2일 본 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로한 1세들의 시대가 저물어가 고 있는 현재, 부모의 고향에 대해 관심 없는 후세대들의 현실이 안타 깝다"며 "언젠가 통일이 되면 자신 의 뿌리가 되는 부모의 고향을 어떤 경로를 통해 찾을것인가"라며 한탄 했다.

이 회장은 "나의 뿌리를 알고 고 향을 찾는 일은 후세들의 정체성 확 립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평안 도민회는 차세대 탈북민을 지원함 으로써 후세들에게 뿌리에 대한 의 미를 알리고 일깨우기 위해 탈북민 을 향한 꾸준한 지원을 이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

평안도민회는 지난 7월 열린 임 시이사회에서 콜 롬비아 대학원에 재학중인 탈북민 학생에게 전한 장

학금 후원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장 학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 이다. 이 회장은 "부모의 원적지에 대한 후세들의 관심으로 평안도민 회가 추진하는 행사에 자녀들도 참 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워싱턴평안도민회는 오는 15일(일) 낮12시30분, 센터빌 소재 불러파크 쉘터(#2)에서 추계 야유 회를 진행한다.

▷문의: 703-209-8595(VA 계선용 수석부회장), 443-528-5105((MD 이관현 부회장) 주소: 7700 Bull Run Drive Centreville VA 20121 불런파크 쉘터#2 김윤미 기자

카톨릭 볼티모어 대교구 논란

배상 막으려는 의도로 파산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카톨릭 대교구 가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소송으로부 터 교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챕터 11 파 산보호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 이 일고 있다.

메릴랜드는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 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면서 1950년대 이후 아동성범죄 피해자들의 민사소 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에상되자 선 제적으로 파산보호신청을 냈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40년대 이후 7천 여명의 카톨릭 사제 등이 1만7천여명

의 아동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를 저질러 수십억달러 규모의 보상금 지급을 명령받았으며 이로 인해 20여 개 교구가 이미 파산하거나 파산보호 신청을 낸 상태다.

메릴랜드 법무부는 지난 60여년 동 안 볼티모어 대교구 사제 156명이 최소 600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윌리엄 로리 대주교는 "숙고 끝에 파 산보호신청을 내는 것이 교구를 생존 시키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 는데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파산보호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앞으 로 교구를 상대로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14-15일 선착순 입장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5번가는 E 스트릿과 컨스티트튜션 애비뉴 사이에 위치해 있다. 입장객은 재클린 케네디 가든, 백악관 키친 가든, 로즈 가든 등 대통령의 야외 기자회견 장과 해외 정상 산책로 등을 볼 수 있다.

"어둠의 시대, 빛을 발하라"

제 18회 한미국가조찬기도회 오는 7일 7시, 열린문장로교회

제 18회 한미국가조찬기도회(회장 윤 필홍 이사장 서옥자)가 오는 7일(토) 오전 7시, 버지니아 헌던에 위치한 열 린문 장로교회(김용훈 담임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날 기도회의 주연설자로 선정된 해리 플레처(Harryy Fletcher) 박사 는 워싱턴바이블칼리지 총장을 역임

하고 교도소 사역 등으로 전국적 지 명도가 높은 인물이다.

윤필홍 회장은 "비도덕적인 가치관 이 미국을 뒤덮은 상황에서, 이제야말 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라고 믿는다" 며 "어둠의 시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각별히 와닿는 이번 주제로 모든 한인 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703-587-3648 주소: 2999 Centreville Rd. Herndon, VA 20171

김윤미 기자

한인 수잔 김 연방 판사 상원 인준 마무리 수순

입양인 출신 수잔 김 드클러크(49·사 진) 미시간 연방법원 판사 후보자가 사 실상 상원 인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연방 상원은 지난 30일 드클러크 후



보자의 인준안에 대한 정족수 필요 조건을 생략하도록 하는 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 켰다.

정족수 조건 생략

은 일부 임명직 인준안이 1~2표 차이 로 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데 상원 양당 측이 이런 부담 없이 통 과 의지가 명확할 때 합의하는 것으 로 사실상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로 해 석된다.

최인성 기자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1-866-915-6664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형 X-Ray 완비

4 의료보험 703-691-3111

☑ 교정 및 물리치료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www.toptravelusa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Dental Implant \$1,000 Implant Crown, Extra (암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 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

메데케에기월

2023년 1<mark>0</mark>월 15일 ~ 12월 7일 까지

-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
-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 메디케어 (A & B) + 메디케이드

* 치과보험, 안과보험 등 받으실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으세요.



버지니아 (VA)

로리 문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703,952,3788

703,865,8788

메릴랜드 (MD)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410,995,8074

www.unihealthplan.com

Medicare and Health

한인 비서실장 트리오, 시청을 누비다

12지구 해나 리 밸리지역 토박이 8지구조앤김올초실장중용 각 20여명 직원 이끄는 책임자

LA 시의원 15명은 연간 130억 달러 (2023년 기준)의 살림 비용을 결정하 고 감독한다. 또 지역구별로 평균 26만 여 지역 주민들을 돌보고 민원을 해결 해야 하며 연간 300개가 넘는 조례안과 결의안을 생산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LA시의원들 의 최측근 참모는 비서실장(Chief of Staff)이다. LA시의회 복심으로 통하 는 15명의 비서실장중 한인이 3명이라 는 걸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게다가 모두 여성이다.

'한인 여성 비서실장 트리오'로 맹활 약중인 이들은 시의회 최고참인 22년 차 보좌관 지니 민(15지구) 실장을 선 두로 20년차 해나 리(12지구) 실장, 8년 차 조앤 김(8지구) 실장이다.

UC버클리 언론학을 전공한 민 실장 은 고 톰 라본지 의원, 미치 오페럴 의원 에 이어 지난해 맥오스커 의원실로 옮 겨실장역을하고있다.

리 실장은 UCLA 토지 사용 계획 전 공을 하며 꿈꿨던 변호사 꿈을 접고 12 지구 그렉 스미스 의원 시절부터 20년 동안스태프로 일한 '밸리 토박이'다.

올해 초 비서실장에 오른 김 실장 은 시카고에서 태어나 LA로 이주했 고 UCLA 경제 학사, 보건 석사 학위 를 받았다. 꿈은 보건 클리닉 여는 것이 었는데 사우스 LA '커뮤니티 코얼리션

(CC)'에서 자원봉사하다 뿌리를 내렸 다. 이들을 시청에서 만나 살아온 길과 시의 미래, 한인사회에 보내는 메시지 를 들어봤다.

▶비서실장이 될 재목이었나

리 실장은 "학교 때 커뮤니티 봉사, 장애인 돕는 일들을 하면서 배웠다. 동 시에 간호사 어머니를 보면서 함께 자 원봉사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 감이 존재했다"고 전했다.

민 실장은 학생회와 한미연합회를 거친 '한인 커뮤니티통'이다. 월넛고교 한인학생회 재무담당을 맡아 공공봉 사에 대해서 체험하고 '받은 혜택을 돌 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는 설 명이 이어진다. 그는 "너싱홈, 교회 활 동을 통해서 배웠고 한미연합회 등에 서 활동하며 한인타운, 윌셔 주민의회 등생성과정도지켜봤다"고회고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시의회에 와서 활 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OC의 매우 보수적인 환경 에서 자라면서 그것이 옳은 접근이 아 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한인 가정에서는 여성과 엄마가 많은 일을 하게 되어있다. 교회 에서 자라 할아버지 두 분이 모두 목사 로 활동하셨고. 혼자 자신을 위해 시간 을 보내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가정환 경이었다. 장녀이다 보니 두 동생을 위 해서 이런저런 리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가 보는 리더십은 '섬김'



(왼쪽부터)15지구 팀 맥오스커 의원의 비서실장 지니 민, 8지구 마키스 해리스-도슨 의원의 비서실장 조앤 김, 12지구 존 이 의원의 비서실장 해나 리. 세 비서실장이 LA시장실과 시의회가 위치한 시청 3층 복도를 걷고 있다. 김상진 기자

시의회와 지역구 사무실까지 총 20 기도했다. 명이 넘는 직원들을 이끌어야 한다. 진 정한 리더십은 이들에게 어떤 개념일 까. 세 명 모두 '동기 부여' '설득력' '행 동의 모범' '명예' '협력'을 핵심 요소로 꼽았다. 특히 김 실장은 "중심에는 '섬 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있 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지를 초 심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필요한 리더 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상기 했다. 동시에 실장들은 공식 직책명인 '치프 오브 스태프'가 아닌 '치프 오브 서포터(지원 책임자)'라고 자신을 부르

▶연봉은 10만 아래? 위?

실장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 "경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꼭 한 가지 길만 있는 것도 아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지역구에서 오래 일하면서 시에 대한 이해, 동료로부터 배우는 과정은 중요 하지만, 실제 사전 조건은 없다는 것이 다. 대신 리 실장은 "시의원과의 단단한 신뢰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전

비영리에서 오래 활동한 김 실장은 "비영리와 시청은 다르다. 아젠다를 세 우고 열정과 가치관이 비슷한 곳이 비

영리라면 시청은 다양한 아젠다와 전 략, 접근 방식을 가진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한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상반된 환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고말했다.

연봉을 물으니 계약된 조건에 따라 10만 달러 위아래 일 것이라는 두루뭉 술한 답이 돌아온다. 노조가 없어 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이지 않 다는 뜻이다. 참고로 현재 시의원들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에 준하는 연봉을 받는다. 25만 달러 전후로 알려 져 있다.

▶이해와 참여하는 타운으로

민실장은 "한인타운이 왜 있는지 우 리 모두 생각해보면 좋겠다. 소속감, 연 대감이 있는 곳이라서 그 역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으면 좋겠다"며 "우리 는 아시안 여성으로서 시청에서 일하 는 것 자체가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일한다"고 전했다. 불평하 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직 접 참가해 해결해보는 도전을 권하기 도했다

대화 말미에 폭동 이야기를 김 실장 이 꺼냈다. "1992년은 한인사회에 '인종 의 문제'를 각인하는 해였죠. LA에 정 착해 살아온 많은 유색인종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좋겠 습니다. 지난한 민권 투쟁이 있었기 때 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를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연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미국 인이 되어가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최인성 기자

'인수합병' 손익계산서 두고 의견 분분

서울메디칼 합병 업계 파장

헬스케어 회사 어센드 파트너스 (Ascend Partners)가 서울메디칼그룹 (SMG)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본지 10 월 3일자 A-4면〉이 알려지면서 한인 의 료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일 서울메디칼그룹은 이번 인수합 병을 계기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 명실 상부한 전국단위 메디컬그룹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메디케어 HMO에 등록된 시니어 등 한인 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 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되며 오히려 합 병 후 더 많은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메디칼그룹의 핸크 리 사장은 "합병이 최종 완료되면 우리 그룹이 보 험회사 등과 계약할 때 더 큰 협상력을 기대할수있게된다"며 "어센드파트너

스의 재정 능력과 서울메디칼그룹의 진 료 노하우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국 의 한인사회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한 층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서울메디 칼그룹은 차민영 회장 등 이민 1세대 한인 의사들이 주축이 돼 튼튼한 규모 와 실력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특히 전국 7개 주요 지역에 지사를 확장해 흑자 기조도 달성한 것으로 알 려졌다.

서울메디칼그룹 소속 수지의 및 전 문의들도 환자 서비스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LA한인타운 한 내과전 문의는 "서울메디칼그룹은 브랜드 파 워가 강력하다"면서 "환자가 겪는 실질 적인 변화도 없다. 일부 우려하는 의사 들도 있지만, 인수합병 전후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진료수가도 변하지 않았

다"고말했다.

다만 서울메디칼그룹과 경쟁 관계인 다른 메디컬그룹 등은 시점과 효과 등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센터메디컬그룹의 한 관계자는 "(한 인 등) 지역경제 입장에서 이번 인수합 병은 마이너스"라며 "서울메디칼그룹 은 1년 매출이 4억~5억 달러에 달한다. 지분을 매각한다면 수익의 상당 부분 이 LA에서 빠져나가 뉴욕으로 갈 수밖 에 없다. 새로운 경영 아래 소속 의료진 진료수가가 줄어들거나 간호사 등 인력 채용감소등이예상된다"고우려했다.

익명을 원한 한인 의사 A씨는 "(어 센드 파트너스가) 서울메디칼그룹의 정부 감독 사안을 해결할지 모르겠다. 정부와 연관된 의료(산업)는 잘못되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메디컬그룹 관계자도 "서울메 디칼그룹은 규모가 커서 인수할 회사 가 세금보고 등 확인할 것이 한둘이 아 닐 것이다. 최종 계약이 완료될지는 지



한인타운 미용실에 차량 돌진 2일 오전 6시 30분쯤 LA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리워드 애비뉴 코너의 한 미용실에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업 시작 전이라 미용실 내 에 직원과 손님은 없었으며 운전자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독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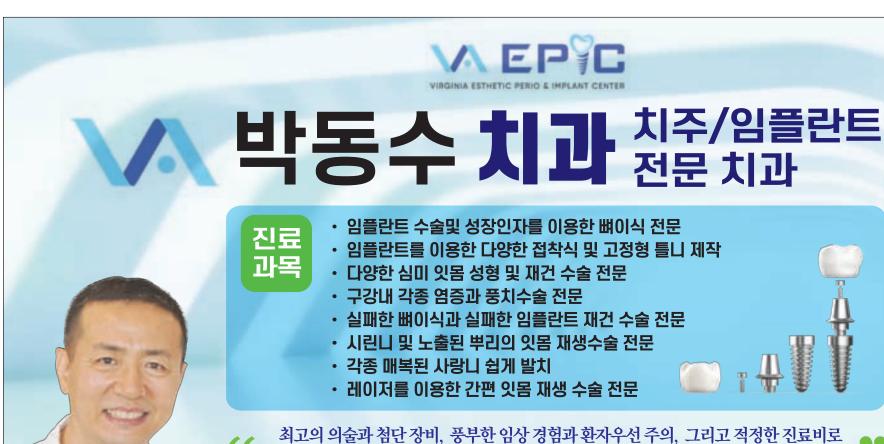
켜봐야한다"고말했다.

시니어보험을 판매하는 에이전트 B 져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씨는 "서울메디칼그룹은 환자들이 먼 저 찾을 정도로 한인사회 정상에 섰다. 이런 시기에 인수합병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다"며 "그동안에이전트미팅때 마다 강조했던 '큰 회사의 재정지원을

받아 커진다'는 설명이 어떤 효과를 가

한편 어센드 파트너스는 LA지역 대 행사를 선정해 한인 메디컬그룹과 인 수합병 등 꾸준한 접촉을 시도한 것으 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 미국, 독일, 한국 등 미 육군 치과병원 원장 역임 - 현 메릴랜드 치과대학 치주과 교수

- 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외래교수 - 현 치과의사들을 위한 임플란트 평생교육 강의



박동수 원장

치주/임플란트 치과 전문의 (VA EPIC)

Dr. Dong Soo Park, DDS, MS, PhD

Tel : 703-466-5115

Fax: 703-466-5502 / Email: govaepic@gmail.com 14100 Park Meadow Dr., #110, Chantilly, VA 20151

- 노스웨스턴 치과대학 졸업

- 미 육군 통진과 레지던시 졸업

- 미 육군 치주과 레지던시 졸업

- 조지아 의대 구강생물학 석사 졸업



- 미 치주 보드 전문의

- 미 임플란트 보드 전문의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원 치주과 박사 졸업

- 26년간 미 육군 치주과 군의관 근무 후 대령 예편



월/화/수요일: 9AM ~ 5PM (매주) 목/토요일: 9AM ~ 5PM (매달 첫째와 셋째 주) www.vaepic.com



DC에서는 연방의원도 강도 당해

워싱턴 지역 강력 범죄 급증 차량 도난 전년대비 106% 급증



워싱턴 DC 도심에서 연방 하원의원이 무장 강도 일당에 차량 등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와 블룸 버그 등에 따르면, 민주당 헨리 쿠엘라 (텍사스·사진) 하원 의원은 전날 밤 워 싱턴DC의 네이비 야드 지역에서 무장 강도들에게 자동차를 탈취당했다.

당시 막 주차를 마친 쿠엘라 의원은 총으로 위협하는 3명의 강도들에게 흰 색 혼다 SUV와 휴대전화를 빼앗겼으 며, 이후 경찰의 수배 끝에 차량과 휴 대전화를 모두 되찾았다.

의원실 측은 쿠엘라 의원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최근 차량 도난을 비롯한 각종 강력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차량절도는 5천3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19건과 비교해 106%나 급증했다. 강도 역시 동기 대비 68% 상승한 2천624건, 살인은 37% 늘어난 215건으로 집계됐다.

정치인들이 이 같은 범죄에 노출된 것도 올해 들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민주당 앤지 크레이그 하원 의원 역시 의사당 근처 자신의 아 파트에서 범죄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미전역무선비상경보시험가동

"내일 휴대전화와 TV·라디오에서 갑자기 비상 경고음이 울려도 놀라 지 마세요." 미국 지자체들이 3일 다 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 한 내용이다.

공지에 따르면 미 연방재난관 리청(FEMA)과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오는 4일 미국 전역에서 '무선 비상경보'(WEA)·'비상경보 시스템'(EAS) 등 '통합 공공 경보· 경고 시스템'(IPAWS) 장치들을 일 제히 시험 가동할 계획이다. 경보 발령 시간은 동부시간 기준 오후 2 시 20분(중부시간 오후 1시 20분·서 부시간 오전 11시 20분)부터 약 30 분간이며 악천후 또는 기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주일 후인 오 는 11일로 미뤄진다.

서비스 권역에 켜진 상태로 있는 휴대전화에는 "'전미 무선 비상 경보 시스템' 시험 가동 중"이라는 긴급 문자 메시지와 함께 경고음과 진동이 울리게 되는데 수신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통화 중인 경우, 통화가 끝난 후에 메시지를 받게 되고 와이파이(Wifi)에 연결돼있거나 항공기 탑승 모드인 휴대전화기는 경보를 수신하지않는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또 TV·라디오에는 "FEMA가 미 전역에서 비상경보 시스템을 시험 가동 중이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



테스트이며, 어떤 대응도 필요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뜰 예정이다. TV 와 라디오는 켜진 상태로 채널에 맞 춰져 있어야 하며 위성 TV·라디오, 케이블·무선 TV 모두 메시지를 받 게 된다.

이번 경보는 미국의 주요 무선통 신 사업체들이 FEMA의 비상경보 메시지를 30분에 걸쳐 가입자들에 게 전송하는 방식이 된다.

휴대전화는 각 1차례, TV·라디오 는 약 1분간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 다고 CBS 뉴스는 전했다.

FEMA는 이번 테스트에 대해 "비상 상황 특히 국가적 차원의 긴급 상황 발생 시에 WEA와 EAS 가이를 대중에게 즉각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도록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5년 제정된 연방법에 의거, FEMA는 최소 3년에 한번 IPAWS를 테스트해야 한다"고 밝혀다

현대기아 절도 챌린지 참극 도주하던 일당 4명 사망

기아차를 훔친 범인 일당 4명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나무와 정면 충 돌해 모두 사망했다.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 국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역을 순찰하 던 경찰관이 범인들이 탄 기아 소렌토 SUV 차량을 식별하고 정차명령을 내 렸다.

당국에서는 이 차량에 부착된 임시 번호판과 실제 등록차량 번호가 일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 만범인 일당은 현장에서 도주한 후 4분 정도 전속력으로 주행하다가 도로변의 나무와 정면 충돌해 모두 사망했다.

경찰당국은 화재 등으로 인해 탑승 자 4명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메릴랜드는 개정 법률에 따라 경찰관과 관련된 사망사 건의 경우 타 지역 법집행당국에 진상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메릴랜드 법무부는 이 사건이 타지역 법집행당국에 조사권한을 넘길 수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수사권을 유지시켰다. 당국에서는 목격자의 적극적인신고(1-866-411-8477)을 당부했다.

김옥채 기자

버크 레이크 캠핑촌에서 살인사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버크 레이크 공원 캠핑그라운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찰당국이용의자를 지명수배했다.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30일(토) 오후 3시09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한 여성이 텐트 안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국에서는 피해자 카라 애브루스카토(40세, VA 페어팩스 거주)의 상복부에 심각한 외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미뤄봐 외부 충격에 의한 타살로 잠정 결론내렸다.

당국에서는 정확한 사인은 검시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전하고 텐트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판단 되는 라미 엘 사예드를 지명수배했다. 피해자와 용의자 사이의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당국은 피해자가 숨져있던 텐트가 9월19일 부터 30일 사이에 계속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판 단하고 목격자를 찾고 있다. 신고전화는 703-246-7800이다.

흑인역사박물관 입장객 1천만명 돌파

워싱턴DC 스미소니언 흑인역사 문화박물관(사진)의 누적 관람객 이 1천만명을 돌파했다.

이 박물관은 지난 2003년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016년 9월24일 문을 열었다. 개장 6개월 만에 100만명 입장객을 기록하는 등 워싱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 소가됐다.

박물관 측은 지난 주말 1천만번째 입장객 매르시 윌리엄스(VA페어팩스 카운티 거주)에게 머크컵과 1년 맴버쉽 증명서 등을 증정했다.

윌리엄스는 그동안 여러차례 박물관을 방문했으며 이번에는 북클럽 모임 참석을 위해 왔다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고 밝혔다. 흑인역사문화박물관 컬렉션은 4만개 이상이며 3500 개가 정도 가상설 전시되고 있다.

박물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월요일은 정오-오 후5시30분)까지 개방한다.

기아 EV9 3열 가격 공개 기본형 5만4900달러부터

기아의 첫 3열 전용 전기 SUV인 EV9(사진)의 가격이 공개됐다. 기아 미국판매법인은 EV9 기본형인 라이 트 트림 가격이 탁송비를 제외하고 5만 4900달러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215마력 줄력 모터가 장작된 라이트 트림 후륜구동 모델은 DC 초급속 충전 기능, 최대 7명이 탑승할 수 있는 넓은 승차 공간, 신텍스 가죽 소재로 제작된 시트, 19인치 알루미늄 휠, 열선과 통풍 기능을 갖춘 8방향 전동 시트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00달러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라이트 롱 레인지, 윈드, 랜드, GT-215마력 출력 모터가 장착된 라이트 라인 트림의 가격은 추후 발표된다.

을 4분기 출시 예정인 EV9의 초반 물량은 한국서 수입돼 판매될 예정이 며 내년부터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 트의 기아 공장에서 조립, 생산될 예정 이다. 박낙희기자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설립 세무보고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뉴폿뉴스 & 리치몬드 케어피플 간병사 서비스 확대 케어피플 사랑방 오픈

715 Kanawah Run Yorktown VA 23693

게 어 피 플 홈 헬 스 한국인 간병사 서비스(VA & MD) 간병사 교육

간병사 서비스 신청과 간병 교육 및 일자리를 당신의 셀폰 인터넷 CarePeople.net 으로 간편히 신청 가능합니다.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간병사 교육 스케줄

애난데일 사랑방

4306 #104

10/9 ~ 10/13월-금 (매달 교육 수시 접수 중)
CarePeople_net으로 신청 또는 전화 주세요.
(571-297-4747)

VA& MD - 한인 간병사 서비스 신청 및 간병사 교육 및 취업 문의 가능합니다.

애난데일 베트남

4312 #D 2층



센터빌 본사 571-297-4747 14631 Lee Highway, Suite #401 Centreville, VA 20121 애난데일 사랑방

571–297–4747 4306 Evergreen Lane, Unit #104 Annandale, VA 22003 애난데일 베트남 사무실 **703-506-333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게이더스버그 901 #150

메릴랜드 사무실 **301-966-700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월-금(M-F) 9am~5pm 24hrs on call 571-297-4747

카드 빚내고 집 팔아 여행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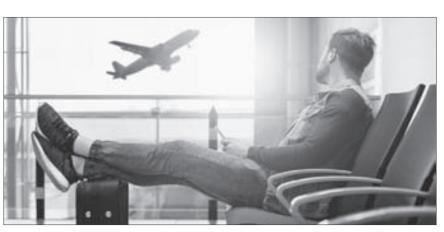
미국인들 "후회없이 현재 즐겨" 여행·문화생활 등 체험 경제 붐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현재를 즐기기 위해 여전 히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인들은 아직도 내일이 없는 듯 돈을 쓰 고 있다"며 "집 장만 또는 만일의 경우 에 대비한 저축보다 콘서트, 여행, 디자 이너 핸드백을 위한 소비가 우선시되 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높은 이자율과 인플 레이션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통계상으로 가계 지출 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기준 가계 지출은 1년 전과 비교 해 5.8% 늘어 4% 미만의 물가상승률 을 앞질렀다. 최근에는 여행과 콘서트 등 체험 경제가 붐을 이루면서 소비자 들은 여기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

델타항공은 지난 2분기에 사상 최고 매출을 올렸고, 티켓마스터는 올해 상



반기에 2억9500만 장이 넘는 공연 티켓 을 팔아치웠다.

경제학자들과 금융 자문가들은 코 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거치며 직장과 건강, 일상생활과 관련한 장기계획에 불안함을 느낀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뿐인 경험 활동에 돈을 쓰고 있다고 진 단했다.

웰스파고 은행의 마이클 리어스 금 융 자문 책임자는 현재 미국인들의 소 비 패턴에 대해 "후회로 가득 찬 충동 적 결정이 아니라 그 반대"라며 "하지

않았다면 후회할 것에 지출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WSJ은 카드 빚을 내고 집까지 팔아 서 여행 등에 돈을 쓰는 사례를 소개했 다. 30대 후반의 린지·대럴 브래드쇼 부 부는 지난 봄 크레딧카드를 긁고 아들 과 함께 하와이 마우이섬 여행을 다녀 왔다. 하루 385달러짜리 4성급 리조트 의 10일 숙박비와 항공료, 식사 비용을 합쳐약 1만 달러가 들었다.

오하이오의 조시 리치너 가족의 경 우 전국 횡단 여행에 돈을 대기 위해 은

퇴연금 불입금을 낮추고 집까지 팔았 다.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만년설을 죽 기 전에 보기 위해 7000달러 요금의 알 래스카 크루즈 체험도 여행 일정에 추 가했다.

리치너는 지난 팬데믹 경험과 앞으 로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당 장 돈을 펑펑 쓰기로 했다며 "더는 (미 래를 위한) 돈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은퇴 이후의 안락한 삶보다 현재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소비를 하는 젊은 커플도 있었다. 사우스캐롤라이 나의 캔디스·재스민 켈리는 집 구매와 은퇴 연금을 위해 돈을 모으지 않기로 했다. 대신 매달 월급에서 수백달러를 따로 떼 고급 레스토랑 식사, 디자이너 핸드백 구매 등 '버킷 리스트'를 충족 하는데 돈을 쓰고 있다.

캔디스는 "은퇴 후 재미를 위해 기다 리는 것보다 우리는 그 반대로 하려 한 다"며 "솔직히 현재 생활이 더 재미있 다"고말했다.

브리프

동포청 'OC 한상대회' 개최 발표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오는 11~14일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제21차 세계한 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 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한미 비즈니스 동맹과 함께, 더 큰 우리로'를 주제로 하는 이 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다. 30개국에서 동포 기업인·국내 기업인·외국기업인 등 6000여명 이 참가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500개 국 내 기업이 참여해 600여개 전시. 상담 부스를 운용한다.

올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삼 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이 마트 등 대기업도 참여하며, 업종 도 기존 무역, 상공업 중심에서 금융, 환경, 문화, 스마트 분야 등 으로 확대됐다. 특히 국내 중소기 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동포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외국인 기 업도 참여하는 비즈니스 미팅 등 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기업전시 회, 벤처캐피탈 투자포럼, 스타트 업 경연대회도 열린다.

1다이아 원석값 52주 신저가

팬데믹 초반 강세를 보였던 다이 아몬드 원석 가격이 52주 신저가 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매점에서 는 아직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일 CNN방송 등에 따르 면 짐니스키 글로벌 다이아몬드 원석 지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주 대비 0.5%, 전월 대비 2.2% 하락한 153.5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2007년 12월 당시 가격을 100으로 놓고 변화를 측 정하며, 현재는 52주 신고가였던 3월 초 185.8 대비 17.38% 내려간 상태이기도 하다.

업계 애널리스트인 폴 짐니스 키는 코로나19 제한 완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외 식·여행 등에 돈을 쓰면서 다이 아몬드 소비가 줄고 있다고 평가 했다.

다만 CNN은 다이아몬드 원석 매점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연 말·연초가 되면 판매가 늘겠지만 전년 대비 매출 하락세를 되돌리 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CNN은 덧붙였다.

현대·기아차 4대 중 1대 미국서 팔린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의 신차가 가장 잘 팔린 지역은 미국인 것으로 나 타났다.

2일 현대차그룹 IR에 따르면 현대 차·기아의 올해 상반기(1~6월) 전 세계 판매량(365만8000대·도매 기준) 중 미 국내 판매량은 85만9000대로, 비중이 23.5%로 가장 컸다.

미국 다음으로는 한국(18.9%), 유럽

(17.5%) 등의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 대 증가했고, 이에 따라 판매 비중도 2.3%포인트 커졌다. 기아의 미국 판매 비중(26.3%)만 살펴보면 전체 판매량 의 4분의 1이 넘는다.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 (SUV), 제네시스의 판매 호조가 현대 차·기아의 미국 시장 선전을 이끈 것으 로자동차 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팔린 현

대차·기아의 친환경차는 총 13만3171대 (소매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8%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하이브리 드(HEV) 라인업을 갖춘 스포츠유틸 리티차(SUV)가 올 상반기 현대차·기 아 판매량 수위를 차지했다.

준중형 SUV인 투싼(10만591대)이 현대차 판매량 1위에 올랐고, 같은 차 급의 SUV인 스포티지(7만1889대)가 기아에서 최다 판매 모델을 차지했다.

중형 SUV로 휘발유뿐 아니라 HEV 모델을 갖추고 있는 싼타페(6만1142대) 도 판매량이 5만대를 훌쩍 넘었다.

현대차그룹의 올 상반기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3만8457대)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4% 증가했다.

아이오닉5, 코나 EV, GV60에 이어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6를 미국 시 장에 출시한 가운데 같은 기간 현대차 의 전기차 판매량은 56.9% 늘어난 2만 4593대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제네시스의 올 상반기 미 국판매량은 3만1234대를 나타내며 작 년 동기 대비 21.7% 증가했다. 반기 기 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이다. 제네시 스는 올해 미국 내에서 6월(6003대), 7 월(6330대), 8월(6453대) 석 달 연속으 로월간최다판매량을 경신 중이다.

추석송금 건수·액수 모두 감소

올해 한인은행들의 추석 무료송금 서 비스를 이용한 한국 등 해외로의 송금 규모와 건수 모두 대체로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본지가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CBB뱅크, US메 트로뱅크, 우리아메리카, 신한아메리 카 등 한인은행 8곳의 추석 무료송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추석 전후로 총 8223건에 걸쳐 2071만4990달러의 송금이 이뤄졌다.

건당 평균 송금액을 계산했을 때는 올해 건당 2519달러가 송금됐다. 작년 의 건당 2790달러보다 271달러(9.7%) 줄어든 것이다.

올해 은행들의 추석 무료송금 서비 스를 이용한 한인들의 총 송금 건수 는 지난해 1만802건에서 8223건으로 23.9% 적었다.

한인은행의 추석 무료 송금 건수가 작년 대비 대체로 감소했다. 한인은행 우리아메리카도 송금 건수가 지난해 2789건에서 2301건으로 17.5% 줄었다. 반면 US메트로뱅크는 송금 건수가 늘

어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59건이었 던 추석 송금이 올해 71건으로 20.3% 증가했다. 신한아메리카는 송금 건수 가 1055건에서 올해 729건로 30.9% 줄 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최근 고물가 및 고금리로 인한 체감 경기 악화로 송금액 규모도 감소세를 보였다. 2023년 추석 전체 송금액은 지 지난해 3957건에서 28.9% 감소했다. 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뱅크오브호 행 8곳 중 7곳의 송금 건수가 작년보다 프는 송금 규모가 올해 752만2552달러 줄었다.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로지난해 1213만8258달러에서 38.0% CBB뱅크는 20%대 감소율을 보였다. 작아졌다. 한미은행은 582만3124달러 로 작년의 622만5107달러보다 6.5% 줄 었다. PCB뱅크는 송금액이 59만2977 달러로 -39.2%, 오픈뱅크는 39만1030

달러로 -60.2% 차이를 기록했다. CBB 뱅크와 US메트로뱅크는 송금액이 올 해 크게 증가했다. CBB뱅크의 추석 송금액은 지난해 97만9955달러에서 36.5% 늘어난 133만7191달러였다. US 메트로뱅크는 2022년 9만9100달러에 서 올해 24만8105달러로 무려 150.4% 가 늘었다. 우리아메리카는 작년 397만 1537달러에서 20.3% 석은 316만4310달 프의 2023년 송금 건수는 2814건으로 달러로 31.3% 감소했다. 송금 실적에서 러였으며, 송금액이 163만5701달러인 신한아메리카는 지난해의 477만4067 달러보다 65.7% 줄었다.

추석 무료송금 서비스 기간 한국 등 해외 송금이 감소한 것은 최근 경기가 악화하면서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인은행권 의 설명이다. 우훈식 기자

후원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 명절 추석 행사 결산 보고 (후원자 명단 및 수입 & 지출보고)

행사 내용: 노인 APT에 거주 중인 9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떡 배달



| 수입금액 | 행사 내용 | 지출 내용 | 지출 금액 | |
|---------|--|---------------------|-------|--|
| \$300 | 1. 캐서린 박 (느미라지 헤어살롱 원장) | | | |
| \$200 | 2. 캐런 박 (CARESYS / 코웨이 안마의자 렌탈 대표) | 1. 떡 150명분 | \$900 | |
| \$100 | 3. 김남숙 (글로벌 어린이재단 회장) | | | |
| \$100 | 4. 이상주 (통합노인회 부회장) | | | |
| \$100 | 5. Young S. Shim | 2. 행사 광고 및 결산 보고 광고 | \$500 | |
| \$100 | 6. 김순복 (통합노인회 이사 / 타운선 타워노인APT 거주) | | | |
| 계 \$900 | 수입 \$900 - 지출 \$1,400 = -\$500 회장 지출 계 \$1,400 | | | |

알림 미주 한인 노인 봉사회 소속 명예회장, 이사장, 사무총장 등은 추석 경로잔치 결산보고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언론에 공개하라. 이에 덧붙여 해당 협회는 지난 17년 동안 각종 물품 등을 후원하는 데 있어서 수상쩍은 각종 방법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바. 이것은 '노인들에 대한 봉사'를 빙자한 하나의 횡포라고 볼 수 있다.

워싱턴 통합 노인 연합회 / 버지니아 한인회 (VSOK) 회장 우태창

국채 금리 4.7% 경제 고금리 먹구름

Fed, 최근 긴축기조 장기화 시사 10년물 금리 16년 만에 최고치

세계 시장금리의 '벤치마크'라고 불리 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연일 급 등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를 의미하 는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기가 예상 보다 더 뒤로 밀리면서 불확실성이 높 아졌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 여파로 기 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고, 대출금 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 일보다 0.073%포인트 오른 4.685%로 장을 마쳤다.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 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날 금리는 장중 한때 4.7%를 넘어서기도 했다. 7월 미 국 국채 10년물 금리(3.7%대)와 비교하 면 3개월 사이 약 1%포인트 가까이 급 등했다.

미국 재무부가 3분기 국채를 역대 최 대 규모인 1조70억 달러 발행하기로 한 영향이 컸다. 수요 대비 국채 공급이 늘면 금리는 상승(채권 가격은 하락) 한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가 내년도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을 연 4.6%→연 5.1%로 올리면서 금리 상승 에 불을 붙였다.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 했던 시장과 달리 Fed가 고금리 장기 화를 시사하면서 만기가 긴 국채 보유 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시장금리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 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높은 물가 상승 압박에 Fed가 추가 기준금리 인 상 의사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제 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도 블 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7% 금리 도 가능하다"며 "최악의 케이스는 스 태그플레이션(고금리에도 물가가 오 르는 것)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 한국은행 이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 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와 상 관없이 미국 국채 금리를 따라 오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6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4.083%까지 치솟으며 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레고랜드 사 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그보다 신용도 낮은 회사채 금리도 따라 오른다. 그만 큼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다. 또 채권금리 상승에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커지면서, 대출금리도 따라 올

라갈 가능성이 크다. 한은도 지난달 발 표한 보고서에서 "일부 대출금리, 은행 채와 회사채 금리 등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8월 일반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5조 1000억원 순상환(채권 발행 규모가 만 기 도래 규모보다 작은 것)됐다. 연초 떨어졌던 시장금리가 재차 상승하면 서,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줄인 영향이 다. 미국 국채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최 근더 오르면서 회사채 발행이 더 줄어 들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최근 은행채 발 행 한도를 폐지하면서, 자금 쏠림까지 우려된다. 상대적 우량채권인 은행채 로자금이 몰리면, 부채가 많고 신용도 가 낮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돈맥경 화'가 재연될 수도 있다. 이날 김병환 기 획재정부 1차관은 시장상황점검회의 를 열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강달러 영향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하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과도한 시장 쏠림 현상 등이 발생 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것"이 라고 했다. 김남준·오효정 기자

"경제 최악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 고경영자(CEO·사진)는 2일 경제가 맞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스 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 체)이라며 금리가 7% 수준으로 오 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다이먼 CEO는 이날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정말 7% 금리로 가는 것이냐'란 질문에 "금리가 5% 로 갈 것이라고 (지난해) 내가 말했 을 때도 사람들은 '정말로 가는 것 이냐'라고 물었다"며 "(7% 금리는)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가) 공급과 수요 측 면의 압박이 있을 것이냐고 물어온 다면 내 답변은 '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이먼 CEO는 똑같은 금 리 상승이라도 스태그플레 이션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고 경고했다. 그는 "최악의 케 이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경제가

호조를 보일 때도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자금 확보 경쟁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스태그플레이 선 상황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고금리가 경영에 미칠 영향에 관 한 질문에는 "JP모건은 금리가 7% 가 되도, 다시 2%로 돌아가도 대응 할수있다"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 과 위험 관리는 다른 것"이라고 말

다이먼 CEO는 지난달 25일 인도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금리가 3% 에서 5%로 오를 때보다 5%에서 7% 로 인상하는 것이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라면서 "전 세계가 금리 7%에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 해 시장에 경계감을 준 바 있다.

한편 다이먼 CEO는 이날 인터뷰 에서 자사 직원 수천 명이 이미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여러 분 자녀는 말 그대로 일주일 에 3일 반만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0경분의 1초' 시대 열었다 노벨물리학상 전자역학 연구 3인

올해 노벨 물리학상 은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의 움직임을 들 여다볼 수 있는 새로 운 실험 방법을 고안 해 낸 피에르 아고스 티니(70) 미국 오하 이오주립대 교수, 페 렌츠 크러우스(61) 독

으로 알려졌다.

한다고 밝혔다.

일 막스플랑크 양자광학연구소 박사,

안 륄리에(65) 스웨덴 룬드대 교수 3인

이 공동 수상했다. 아고스티니와 륄리

에는 프랑스, 크러우스는 헝가리 출신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3

일(현지시간) '물질의 전자역학 연구

를 위한 아토초(100경 분의 1초) 펄스

광을 생성하는 실험 방법'과 관련한 공

로로 이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

노벨위원회는 "세 사람은 인류에 원

자와 분자 안에 있는 전자의 세계를 탐

사할 새로운 도구를 건네준 실험을 한



피에르 아고스티니



페렌츠 크러우스



안 륄리에

공로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전자가 움직이거나 에너지양이 변화하는 과 정을 측정할 수 있는 극도로 짧은 파장 을 지닌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선보 임으로써 미시세계 연구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얘기다.

전자의 세계에선 '영점 몇 아토초' 만에도 변화가 나타나기에 일반적인 빛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하다. 아토 초 펄스는 나노(nano·10억 분의 1), 피 코(pico·1조 분의 1), 펨토(femto·1000 조 분의 1)보다 매우 짧은 순식간에 번 쩍하고 일어나는 진동 현상이다. 가령 100분의 1초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셔터 속도가 10분의 1초인 카메라로 찍을 수 없듯이, 100경 분의 1초 단위 로 사건이 변화가 나타나는 전자 세계 는 그만큼 극도로 짧은 파장의 빛이 있 어야 관측 및 측정이 가능한데 이를 위 한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데 이들의 업 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남창희 광주과 학기술원(GIST) 물리광과학과 교수가 KAIST에서 아토초 펄스를 이용해 헬 륨 원자 상태를 측정하는데 성공하기 도했다.

남 교수는 이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주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카메라가 물체를 순간 포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플래시를 만들었다고 이 해하면 된다"며 "아토초 펄스는 초고 속 현상에서 움직임을 정지 상태처럼 포착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죄강신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 수는 "빛으로 인해 찰나의 순간에 유 전자정보(DNA)가 손상되는데 아토 초 펄스는 이런 순간도 연구하는 데 도 움을 준다"고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증서와 메달, 상금 1100만 크로나가 주어진다. 수상 공적 기여도에 따른 상금 분담은 3명이 3분 의 1씩으로 같다. 김민상 기자

휘영청 밝은 달에 사람도 살까…

NASA, 2040년까지 주택건설 추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앞으로 17년 내 달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ASA는 2040년까지 달에 단지 우주인이 다녀오는 것이 아 니라 아예 미국 일반인이 거주할 수 있 도록 주택지구를 만들 계획이다.

NASA의 기술 개발 책임자인 니키 웨크하이저는 이와 관련해 "모두가 함 께 발걸음을 디딜 준비가 됐다"며 "우 리가 핵심 능력을 발전시킨다면 불가 능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NASA는 달에 존재하는 돌 조각, 광 물 파편, 표면에 쌓인 먼지 등 현지 자 원을 건축 자재로 활용해 3차원(3D) 프 린터로 집을 찍어낸다는 구상이다.

3D 프린팅은 3차원 설계도를 기반으 로 원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려 사물을 출력하는 신기술이다. 지구에서 건축 공 정의 자동화를 통해 비용과 시간, 재료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 달 에도이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NASA는 '달 집짓기 프로 젝트'를 위해 미국의 민간기업 '아이 콘'(ICON)과 5천720만 달러 규모의 계

약을 체결했다.

아이콘은 3D 프린터 장비가 달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방사선, 열 진공 상태 등 특정 상황에 대비한 실험 에 나설 예정이다.

아이콘은 텍사스주 등지에서 3D 프 린터 기술을 활용한 주택단지 건설에 나서 주목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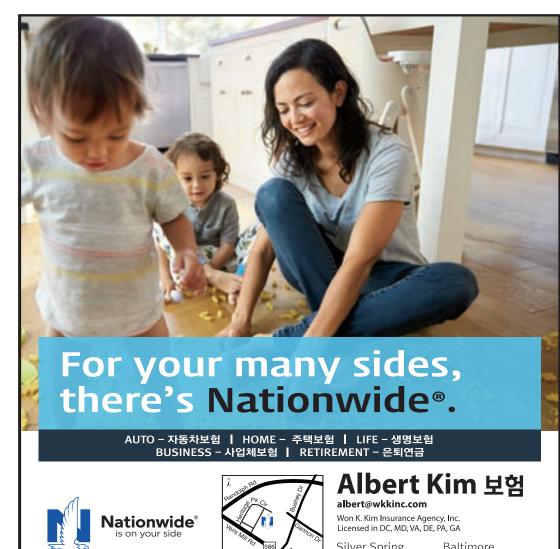
제이슨 발라드 아이콘 최고경영자 는 "3D 프린팅이 인류에 더 나은 미 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NASA는 달 표면의 집에 들어갈 가구 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위해 일부 대학. 민간 기업들과 작업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계 일각에서는 NASA의 야망이 지나치다는 회의론도 제기된 다. 인류의 달 탐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 섬 능을 생각할 때 십싯기 프로젝트 계 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달에 있는 먼지 등의 물질을 흡입하 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 기돼왔다.

일부 외신은 미국이 달과 관련해 많 은 국가와 국제협약을 맺고 있다고 언 급, 집짓기 프로젝트에 장애가 될 수 있 음을 시사했다.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5분 지났는데 아직 돈 달라고 안하네"

머스크, 젤렌스키 조롱 우크라 인사들 반박·역공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며 서방에 지원을 요청하는 볼로디미 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조롱해 우크라이나의 반발을 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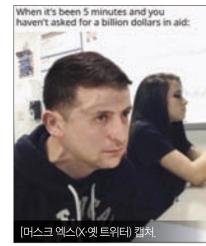
머스크는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 위터) 계정에 "5분이 지났는데도 수 십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 을 때"라며 남학생이 이마에 혈관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겹게 고통을 참 고 있는 듯한 모습을 담은 밈(meme· 인터넷 유행 콘텐츠)에 젤렌스키 대 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올렸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들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줄곧 동맹국들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호소해왔다.

머스크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단 5 분을 참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끊임 없이 지원을 요청한다고 비꼰 것으

이 포스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45일 짜리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직후에 나왔다고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는 2일 설명했다. 임시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다.

머스크의 포스트에 우크라이나



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우크라이나 코미디언 안톤 티모셴 코는 머스크의 게시물에 "그래서 당 신은 자유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죽 어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소 셜미디어를 샀군요"라는 답글을 달 았다.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 '우크라인 스카 프라우다'는 같은 사진에 머스 크의 얼굴을 넣어 "5분이 지났는데 도 러시아의 선전을 퍼뜨리지 않았 을 때"라고 응수했다.

최근 발간된 머스크 전기 '일론 머 스크'에는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전 쟁에서 러시아 함대에 대한 우크라 이나의 기습 공격을 막기 위해 크림 반도 근처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을 가동하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 겨 전쟁 개입 논란이 일었다.

기모노 입으면 15일 구류? 중국 치안법 추진 논란

중국 당국이 '민족 정신을 훼손한 복 장' 착용을 처벌하는 내용의 '치안관 리처벌법'을 추진하면서 여론 비판에 직면했다.

개정안엔 처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일각에선 오염수 방류 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기모노를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 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 인대)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치안 관리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9만9000여 명이 12만6000여 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신은 이러한 관심에 대해 "중국 에서 지금껏 범죄로 구성되지 않았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지 적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 중 "중화민족 의 정신을 손상시키고 중화민족의 감 정을 훼손하는 복식을 착용한 경우"에

대해 5~10일의 구류나 1000~3000위 안(약 19~56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특히 논란이 됐다. 해당 조항엔 범죄행위가 엄중할 경우 구류는 10~15일로 늘어나고, 벌금도 5000위안(약 94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런데 개정안엔 중화민족의 정신 을 손상시키는 복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각에선 해당 개정안이 기모노 착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 라 추측이 나온다.

중국에선 최근 중국 여성들의 기모 노 작용에 대해 공개석으로 비판하고 당국이 일부 기모노 착용자들을 구금 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도 했다.

차이신은 중국소셜미디어(SNS) 등 에서 반발 여론이 강하고, 중국 법학계 에서 "옷을 입을 자유는 신체의 자유 의 자명한 부분이란 지적이 나온다"는 우려을 소개했다.

"아들이 바그너 그룹 이어받아"

8월 비행기 사고로 숨진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 고진의 유언에 따라 그의 아들이 사 업을 물려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CNN 방송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텔레그램 채 널 '포트'(Port)는 프리고진의 유언장 사본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포트는 프리고진이 지난 3월 공증받 은 이 유언장을 통해 바그너 그룹을 포 함한 자신의 자산 단독 상속인으로 그 의 25세 아들 파벨을 지정했다고 설명 했다.

앞서 프리고진은 러시아 정부에 대 한 무장 반란을 일으킨 지 2달 만에 비 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포트는 또 파벨이 프리고진이 돌려 받아야 하는 빚을 대신 회수할 예정이 라고도 전했다. 특히 러시아 국방부는 그간 프리고진에게 8억 달러(약 1조868



억 원)를 빚졌다고 포트는 추정했다.

앞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 통령은 프리고진의 사업체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러시아 국방부로부터 860억 루블(약 1조1천800억 원)을 받 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프리고진의 요식업체 '콩코

드'는 군대에 식량을 제공하는 계약을 통해 그동안 800억 루블(약 1조944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푸틴 대통령은 말

파벨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바그너 용병들을 복귀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그너 그룹 연계 텔레그램 채 널 '그레이존'은 파벨이 우크라이나 전 쟁에 바그너 용병단을 재투입하기 위 한 협상을 러시아 예비군 '로스그바르 디아'와 진행했다고 전했다.

로스그바르디아는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뒤 바그너 그룹 이 보유하고 있던 중화기 대부분을 인 계받은 세력이다.

앞서 바그너 용병단은 무장 반란 뒤 벨라루스로 이동하는 조건으로 러시 아 정부의 처벌을 면한 바 있다. 다만 프리고진의 유언장 진위 등은 공식 확 인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애플은 해결한다지만…더 뜨거워진 '아이폰15 발열' 논란

3나노 모바일 AP 'A17 프로' 이슈

애플이 오는 13일부터 아이폰15 시리 즈의 국내 공식 판매에 나선다. 시장 불 황에도 출시 초기 성적은 기대 이상이 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발열논란'이 불 거지면서 분위기가 다소 묘해졌다.

3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인 'A17 프로'의 데뷔전이 시작과 동시에 발열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게임 실행 30분 만에 온도가 섭씨 48 도 넘게 치솟았다"는 폭로를 시작으로, 해외 유력 매체들은 연일 '아이폰15 발 열(iPhone15 overheating)' 관련 기사 를 쏟아내고 있다.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 운 제품)'로 불리던 3나노미터(m·1m =10억 분의 1m) 칩이 이름값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애플은 과열 현상을 인정 하고, 곧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 태다. 출시 초기 운영체제(OS) 등에서 최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애플은 논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내 고 "최신 운영체제(iOS 17) 소프트웨 어 버그와 일부 타사 앱으로 시스템 과 부하가 걸렸다"며 "처음 며칠 동안 기 기가 뜨거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소 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충분히 자체 해 결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업데이트 방식과 일정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애플 A17 프로 스캔들, 범인은 누

초기 최적화 문제?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

A17 프로 자체 결함이라면

▶ 애플 실리콘 경쟁력 약화 입증

- 2. 제조공정 문제?
- ▶ TSMC 리더십 큰 타격·삼성 파운드리 기회
- ▶ TSMC 타격·GAA 승부수 미리 던진 삼성 파운드리 위기이자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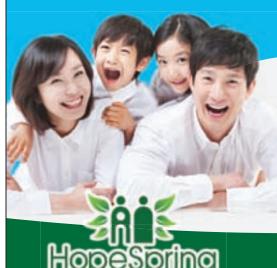
애플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 폰15 시리즈에 탑재된 메모리 반도체 인 D램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업그레 이드된 규격의 D램 데이터 처리속도를 맞추기 위해 전력 소모가 커졌고, 그과 정에서 발열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 말 했다. 그러면서 "한두 달 내로 해결 가 능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애플의 해명과 달리 단순 소프트웨 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진다. 설계 역량 부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무엇보다 애플의 자 체 AP들 설계하는 애플실리콘을 이끌 어왔던 핵심 설계 인력이 지난해 마이 크로소프트(MS)·인텔 등으로 연달아 옮겨가며 애플실리콘의 설계 실력이 예전만 못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 개를 들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위탁생산을 맡 았던 대만 TSMC의 3나노 공정 문제 다. 말 그대로 TSMC가 칩을 제대로 만 들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이다. TSMC 의 첫 3나노 공정의 수율과 성능 문제 는 아이폰15 공개 이전부터 꾸준히 제 기돼 왔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선 공정 문제를 넘어 애초에 '3나노의 벽'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 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에서는 회로 선 폭을 나노미터 단위로 계속 좁히는 방 식으로 성능을 끌어 올렸다. 하지만 이 런 방식이 물리적 한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애플은 이에 대해 "이번 A17 프 로의 중앙처리장치(CPU) 코어 성능은 전작인 A16 바이오닉 대비 약 10% 향 상됐다"고 밝혔다.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교 수는 "미세공정으로 갈수록 작동 전압 을 얼마나 더 떨어뜨릴 수 있느냐가 관 건"이라면서 "3나노 수준으로 내려가 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게 사 실"이라 말했다. 이희권 기자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테이션,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메어페ト시티 도서관 막은 폐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투자이민 (EB-5) - NIW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76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 간호사(RN)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엘리콧시티 - 락빌 - 센터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3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손, 발통증 및 저림
- ☑ 척추디스크통증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ar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301)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13890 Braddock Rd. # 200 Centreville, VA 20120

"문정부위안부합의폐기,옥중서참담했다"

회고록 통해 박 정부 비화 공개

일본과 위안부 매듭 풀려한 이유 메르켈이 위안부 얘기에 보인 반응 최순실 사태 전말, 세월호 참사 북 핵실험 등 국정 소회 밝힐 예정

"그런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2014년 3월 26일 독일 베를린.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박근혜 전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도중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메르켈 총리가 충격을 받은 것은 박전 대통령이 전한 일본 종군위안부 문제 때문이었다. 박전 대통령은 '종군위안부(comfort women)'라는 단어보다 훨씬 강한 표현을 동원해 메르켈 총리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박전 대통령은 왜 일본도 아닌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꺼내들었을까.

10월 4일부터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 Ang Plus)'에서 연재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그 막전막후의 긴박했던 과



2014년 3월 26일(현지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이 독일 베를린 연방총리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메르켈 총리의 설명을 들으며 창밖을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 종군위안부 문제를 꺼냈다.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중앙포퇴]

정을 전하면서 첫 장을 연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 분야에서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리는 난제였 다. 한·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 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100% 만족 하는 합의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즉, '아무리 잘해도 욕만 먹기 십상'인 일이 바로 한·일 위안부 합의였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선뜻 손대지 못하고 방치해 왔던 게 현실이었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

제의 매듭을 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는 왜 위안부 합의가 한국의외교적성과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회고록을 통해 재임 중정치적 유불리만따지면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는 위안부문제를 왜 파고들었는지 상세히 배

경을 설명했다. 또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썼는지, 위안부 협상을 전후해 한·일 양국 지도자들이 자국내의 비판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생생히 회고했다.

특히 위안부 합의 직후 윤미향(현 무소속 의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 의회 대표 등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도박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 을 밝혔다. 박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 부가 위안부 합의를 폐기했다는 소식 을 옥중에서 접했을 때 참담한 심정이 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중앙 일보 회고록팀과 집필 작업을 진행해 왔다. 2011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2021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할 때까지의 약 10년이 배경이다.

박전대통령은 '최순실사태'의 전말과 특검 수사·재판을 비롯해 북한 핵실험,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당·청 갈등 등 재임 중의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면서 당시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느꼈던 소회를 진솔하게 밝힐 예정이다.

» 1면 '스페셜 스토리' 에서 이어집니다

1946년 시작된 좌우합작위원회는 미 군정에 의해 시작되었다. 분열보다 통 합을 원했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 던 우익의 민주의원과 좌익의 민주주 의민족전선은 대표를 파견했다. 좌우 합작위원회는 농지개혁과 친일문제 해결을 포함한 7개의 원칙에 합의하 였지만, 미군정 하 입법기구의 수립을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여운형의 암살 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유엔의 결정에 의해 38선 이남에서 선거가 실시될 때 마지막까지라도 분 단정부 수립을 막겠다는 의지로 북으 로 갔던 김구는 당시 가장 강력한 반 공주의자였다. 그는 1940년까지 독립 운동 시기 좌파 독립운동가들과의 어 떠한 합작도 거부하고 임시정부를 지 켰다. 1945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신탁 통치 반대운동은 강대국 위임통치에 대한 반대의 의미도 있었지만,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 한 반공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김구는 이렇게 강한 반공 의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분단 정부 수립이 결국 전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서 자기의 노선을 꺾었다. 중도 우파의 김규식과 함께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을 만나기 위해 38선을 넘어간 것이었 다. 이 협상은 실패했다. 북한은 약속 과 달리 자기들만의 선거를 실시했고, 남북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어쩌면 김구나 김규식 역시 예상했 던 결과였을 수도 있다. 미군정은 김 구와 김규식이 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지만, 김규 식은 합작과 통합을 위한 노력이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했 다. 그러한 노력은 195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남북협상도 그 자체로 서는 실패했다.

비록 통합을 위한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된 정책정당을 만들겠다며 제3정당을 만든 것은 조봉암이었다. 당의 이름은 진보당이었고, 얼핏 보면 진보, 또는 좌파들만의 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진보당의 강령은 좌와 우, 진보와보수 사이의 제3의 길을 주장한 것이었다.

진보당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켰다. 국민은 평화를 원하 고 있었고, 어느 한쪽의 극단보다 중 간에서 있는 정치인과 정책정당을 원했다. 극심한 관권 선거 속에서도 그는 200만표 넘게 득표했다. 1958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당 사건이 터져 이듬해 당은 해체되었고, 조봉암은 처형되었다.

이후 유신체제를 거치면서 정치지 형은 독재와 민주화 세력으로 양분되 면서 좌우, 보수·진보의 화합을 추구 하는 노력은 진행될 수 없었다. 민주 화 이후 1990년 민주자유당이 탄생하 면서 보수 진보의 정치지형이 형성되 면서 다시 한번 중간에서 극단적인 정 책보다는 합리적이고 화합적인 정책 을 지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정부 수립 후 첫 대연정 'DJP'

1997년의 DJP는 어쩌면 그 첫걸음 이었을 것이다. DJP를 보는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눈은 사뭇 매서웠다. 양쪽의 입장에서 DJP는 화합이나 중간의 길이라기보다 정치적 '야합'이었다. 단지 정권을 잡기 위해 충청과 호남의 표를 합치고자 한 것이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당시의 이러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수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 으로 한국 정부에서 보수와 진보 사 이의 대연정이 이루어졌다. 경제정책 과 사회정책에서 보수, 진보 정책이 모 두 어우러짐으로써 한편으로는 빅딜, 성장 정책을 통해 금융위기의 빠른 극 복이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으로 기 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이 입법되었다.

DJP의 또 다른 성과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 사이에 이루어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공동선언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었다. 이 두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가장보수적이었던 닉슨 대통령이기에 마오쩌둥과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DJP 대연정은 5년을 가지 못하고 결국 갈라셨다.

이후 한국의 정치는 겉으로는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겪는 것 같았지만, 실상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전쟁이계속되고 있다. 통합이나 화합은 보이지 않고, 유신시대에도 있었던 대통령과 야당 총수 사이의 영수회담도 모습을 감춘지 오래되었다.

지금은 모두에게 잊혔지만, 2005년 7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 야당 에 제안했던 '대연정'이 떠오르기도 한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그 렇지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도 이 해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실상 노무 현 대통령은 "폭탄은 저쪽을 향해 던 졌는데 오히려 우리 편 등 뒤에서 터 져버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대연정 제안의 후폭풍이 컸다.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 주장은 지역주의 해체를 위한 제안이기도 했다. 너무 일렀던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대연정이 49%의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현재 한국의 정치체제에서 부적절한 제안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한 정당 내에서의 대립까지도 극한으로 내닫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 현대 사에서 통합을 위한 노력은 그 어느 것도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극단적 분열의 극복이 절실한 지금 너무나 소중 하게 다가온다. 과거에 야합이라고 평가받았던 노력까지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된다. 대연정을 위한 내각제 개헌이라도 해야 할까.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HONEST GRILL

"The 100 Very Best Restaurants in Washington" by WASHINGTONIAN



Lunch Combo Special

Monday - Friday 11:30 AM - 3:30 PM

Choice of Pork or Beef

+

Choice of Buckwheat Noodle (Spicy or Cold)

*Lunch only | Dine-in only | No take out |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 While supplies last

Monday Dinner

Dry Age Experience

Dry Aged Ribeye*

 $79.99 \rightarrow 59.99$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promotions/discounts
*Participants must purchase guide(s) and/or a la-carte item(s)
equivalent to their party size in order to be eligible
*While supplies last
*Excluding holidays

Tuesday Dinner

Signature Experience

Signature Beef Guide*

 $89.99 \rightarrow 69.99$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Signature Experience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Beef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Wednesday Dinner

Pork Madness

Signature Pork Guide*

 $74.99 \rightarrow 59.99$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Pork Madness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Pork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14215 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www.honestgrillva.com (703) 543-2320 RESERVE YOUR TABLE NOW



가계 이자지출 2년간 52% 급증 ... 소득대비 부담 역대 최대

눈덩이 빚, 허리휘는 가계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13만원 이자 지난해 GDP 대비 부채비율 108%

금리 상승세가 이어진 지난 2년간 가계의 이자 지출이 50% 넘게 증가해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계·기업·정부의 부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나온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가계가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3만1000원이다. 2021년 2분기 월평균 8만6000원에서 52% 증가한 것으로 1인가구를 포함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는전체 평균을 낸 값으로, 실제 대출이

있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월평균 소득(479만3000원)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중도 2.7%로 역대 최대다. 가계 소득은 작년 2분기 엔데믹 전환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1년 전보다 12.7% 증가했다가 지난 2분기 기저효과 등으로 0.8% 감소한반면, 이자지출은 금리 인상 영향으로계속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눈에 띄게 빠르다. 국 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업데이트한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 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 채 비율은 지난해 108.1%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7년(92.0%)보다는 16.2% 포인트 증가했다. 민간부채(가계·기업)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 증가 폭 이 가장 크다.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이자** 단위: 원, 2분기 기준

● 2021년 ● 2022년 ● 2023년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을 보면 표면적으론 기준금리 인상을 들 수 있다. 2021년 8월 0,75%에서 현재 3.5%까지 올랐다. 다만 전문가는 이면에 코로나19시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영끌족'이 늘어났던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시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늘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불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계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분기를 예로 들면 가계의 소비지출은 2.7% 늘어나는 데 그쳐 2021년 1분기(1.6%) 이후 증가율이가장 낮았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0.5% 감소하는 등 소비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긴 하지만 아직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좋은 방법은 부동산을 사는 것이란 인

식이 팽배하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떨어뜨린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부채와 정부부채도 가계부채 못지않게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한국 의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 은 2017년 147.0%에서 지난해 173.6% 로 26.6%포인트 증가했다. 룩셈부르크 (38.0%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 큰 증가 폭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제결제은 행(BIS) 통계를 기반으로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총부채를 분석한 결 과도 비슷하다. 한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는 2021년 기준 113.7%를 기록하 면서 외환위기 당시의 108.6%를 넘어 섰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7 년 40.1%였지만 지난해 54.3%까지 올 랐다.

세계 시장금리의 '벤치마크'라고 불리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기가 예상보다 더 뒤로 밀리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 여파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 불안이 확대될가능성이 커졌다.

2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 일보다 0.073%포인트 오른 4.685%로 장을 마쳤다.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 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날 금리는 장중 한때 4.7%를 넘어서기도 했다. 7월 미 국 국채 10년물 금리(3.7%대)와 비교하 면 3개월 사이 약 1%포인트 가까이 급 등했다.

미국 재무부가 3분기 국채를 역대 최

다이먼 "7% 금리도 가능하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대 규모인 1조70억 달러(약 1370조원) 발행하기로 한 영향이 컸다. 수요 대비 국채 공급이 늘면 금리는 상승(채권 가 격은 하락)한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 제도(Fed)가 내년도 기준금리 전망 중 간값을 연 4.6%→연 5.1%로 올리면서 금리 상승에 불을 붙였다.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과 달리 Fed가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하면서 만기가 긴 국채 보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 한국은행 이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 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와 상 관없이 미국 국채 금리를 따라 오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6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4.083%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그보다 신용 도낮은 회사채 금리도 따라 오른다. 그 만큼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다. 또 채권금리 상승에 은행들의 자금 조 달 비용도 커지면서,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한은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부 대출금리, 은 행채와 회사채 금리 등은 미국 국채금 리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8월 일반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5조 1000억원 순상환(채권 발행 규모가 만기 도래 규모보다 작은 것)됐다. 연초 떨어졌던 시장금리가 재차 상승하면서,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줄인 영향이다. 미국 국채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최근 더 오르면서 회사채 발행이 더 줄어들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최근 은행채 발 행 한도를 폐지하면서, 자금 쏠림까지 우려된다. 상대적 우량채권인 은행채 로 자금이 몰리면, 부채가 많고 신용도 가 낮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돈맥경화'가 재연될 수도 있다.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강달러영향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지속하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시장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정부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예상과 달리 글로벌 긴축기조가 길어지면서, 물가와 성장·금융안정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트릴레마(trilemma·삼중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는 우려가나온다.

김남준·오효정 기자

명절고속도무료의 역습…도공 빚 36조, 불붙는 요금 인상론

설·추석 등 명절에 면제한 통행료 연간 감면액이 4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587만 대로 지난해 추석 연휴(555만 대)보다 5.8%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감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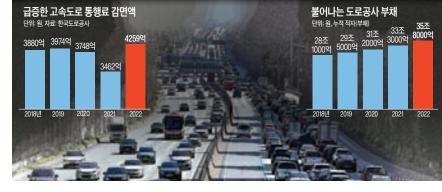
3일 한국도로공사(도공)에 따르면 명절 통행료 면제 등 연간 감면액이 지 난해 4259억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친환경차도 통행료 감면 요건에 해당 하지만, 명절 면제 규모가 가장 크다. 코로나19 확산 전후인 2019~2021년 감 면액(연 3462억~3974억원)보다 급증했다. 연간 통행료 수익(4조2027억원)의 10% 수준이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2017년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 시작됐다. 세계에서 한국·중국만 시행한다. 우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열차·버스 등 대중교통 승객은 제외하고자가용 이용객에게만 혜택이 가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통행료를 걷어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료도로법 15조 2항은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

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감면액을 보전하지 않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공기업이 지는 꼴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공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함진규 도공사장은 올해 들어 수차례 "내년엔 통행료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4.7% 인상한 뒤 8년 동안 통행료를 동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도공 관계자는 "2016년 이후 매년 하락한 통행료원가보상률(총수입/총괄원가)이 지난해 81.7%로 떨어졌다"며 "고속도로를 짓고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돈의 20%를 통행료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도공의 부채 규모는 2018년 28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35조8000억원으로 불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80.8%→84.3%로 증가했다. 도공에 따르면 2027년 부채 규모는 49조9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공기업이 진

빚은 결국 국민 부담이다.

[센터빌, 첸틀리 지역]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명절 통행료 면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며 "명절 통행료 면제를 폐지하고 통행료를 현실화할 때가됐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기자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배에서 뛰어내려 2.4km 수영, 보령 밀입국 … 중국인 22명 검거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했던 중 국인들이 모두 붙잡혔다. 충남 보령해 양경찰서는 보령시 신흑동 해상을 통 해 상륙하던 중국인 22명을 검거했다 고 3일 밝혔다. 21명은 해상과 해안에서 검거됐고, 1명은 상륙한 뒤 택시를 타 고 경기도 안산으로 달아났다가 경찰 에 붙잡혔다.

이들을 내려준 선박은 40노트(시속 74km)의 속도로 서해로 도주해 오전 7 시40분쯤 우리 영해를 벗어났다. 해경 은 중국 해경국에 해당 선박 검거를 요 청했다.

해경과 육군 32사단, 보령경찰서 등 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3분쯤 해안감 시기동대대 장병이 보령시 신흑동 남 서쪽 1.3해리(2.4km) 해상에서 이동하 던 미확인 선박을 확인했다.



3일 새벽 충남 보령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배로 대천항 앞바다에 접근한 뒤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했다. [사진 보령해경]

장병은 선박 탑승자들이 구명조끼 를 입고 하나둘 바다로 뛰어들자 곧바 로 해경에 통보했다.

해경과 군·경찰은 비상령을 내리고 항공기와 선박, 인원을 투입했다. 32 사단은 병력 500여 명을 배치해 해안 가 경계에 들어갔다. 500여 명의 경력 을 투입한 해경은 해상에서, 군과 경 찰은 해안으로 접근하는 중국인을 검 거했다.

군과 국가정보원, 해경 등으로 구성 된 합동심문조는 밀입국 중국인을 상 대로 정확한 입국 경로와 목적 등을 조 사했다. 일단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 로조사됐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 에서 선외기(엔진이 밖에 달린 PVC 재 질의 선박)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했다. 선외기는 30노트(시속 56㎞) 이상의 빠 른 속도로 운항할 수 있어 밀입국 수단 으로 자주 이용된다.

밀입국을 시도한 이들은 40~50대 중국인(조선족 포함)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르면 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 침이며,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거나 강제 추방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들과 만날 예정이던 국내 운송책 추적에도

충남 서해안은 중국 산둥성과 직선 거리가 350km 정도여서 밀입국 루트로 자주 이용된다. 2020년 4, 5월에도 중국 인 21명이 소형보트 등으로 충남 태안 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검거됐 다. 당시 검거된 밀입국 중국인들은 전 남지역 양파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1인 당 1만 위안(약 185만원)씩 모아 보트 와장비를 산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 이우수 외사과장은 "밀 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은 대부분 비 자 발급 등 합법적인 절차로는 입국하 기 어렵거나 과거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경우"라며 "사법적 절차와 별도로 외교 부와 법무부 차원에서 (밀입국을 막기 위한) 별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신진호 기자

'박카스' 성공신화 이끈 제약산업 큰 별

'박카스의 아버지'로 불리는 강신호(사 진)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이 3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96세.

강 명예회장은 1927년 경북 상주에 서 고(故) 강중희 동아쏘시오그룹 창 업주의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 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 이부르크대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뒤 1959년부터 동아제약에서 근무했다. 강중희 창업주가 1932년 서울 중학동 에 세운 '강중희상점'을 모태로 한 동아 제약은 강 명예회장이 이끌면서 제약 업계 1위로 부상했다. 고인은 2016년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60여 년 동안 우수 의약품을 개발・보급하는 데 힘써 왔다고 평가 받는다.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는 철학 을 가진 고인은 제약산업 산증인이자 큰어른으로 불렸다. 1975년 동아제약 대표, 1981년 동아쏘시오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래 "가장 큰 사회공헌은 신약 개발"이라는 신념을 실천했다.

고인은 올해로 발 매 60주년을 맞은 '박 카스성공신화'를쓴 주역이다. 박카스는

1960년대 국민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술과 과로에 시달리던 시기에 피로회 복제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수퍼 항생제 '시벡스트로', 당뇨치료제 '슈가 논' 등국내에서 가장 많은 신약을 개발 했다.

고인은 '작명의 달인'으로 유명했다. 박카스는 독일 함부르크 시청 지하홀 에서 본 술과 추수의 신 '바쿠스' 석고 상을 떠올리며 지었다고 한다. 국내 최 초이자 세계 네 번째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는 '자 이제 되나, 잘 되나' 라는 뜻을 떠올리는 직관적 네이밍으 로잘 알려져 있다. 1994년 기업 이름을 바꿀 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사회'라는 의미가 담긴 '쏘시 오'(SOCIO)를 포함했다.

1987년 한국제약협회장, 92년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장, 2004년 전국경 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한경 협) 회장을 지냈다. 전경련 회장을 맡 았을 때 회원사들이 경상이익의 1%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전경련 1% 클럽'을 발족시켰다. 국민 건강에 이 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 장(1984년), 국민훈장 모란장(1994 년), 국가과학기술 창조장(2002년)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 스 회장과 문석·우석·인경·영록·윤경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 식장 1호실, 발인은 5일 오전 6시30분, 장지는 경북 상주시 이안면 대현리 선 산이다. 장례는 동아쏘시오그룹 그룹 장으로 치러진다.

김수민 기자

'#건달' 동영상만 2800개 조폭·저격 유튜브 판친다

"쳐봐. 이 XXX야." 지난달 8일 유튜브 채널 '신단장tv'에 '수원 남문파 조직원 과 몸의 대화'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셀카봉을 든 40대 유튜버 A씨가 조직 폭력배로 보이는 이들에게 욕설했고,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지 난 8월부터 조직폭력배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도발하는 콘텐트를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그로부터 18일 후인 지난달 26일, A 씨는 경기 안산의 한 식당에서 너클을 착용한 20대 남성 3명에게 피습당해 코 뼈가 골절됐다. 가해자들은 지난달 30 일 경남 거창의 숙박업소에서 검거됐 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방송 에서 거주 지역(안양)을 비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극적인 조폭 콘텐트를 만들다 발생 한 촌극"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등에는 조폭 관련 콘텐트가 범람한다. 해시태그 '#건달'을 검색하 면 관련 동영상이 2800개 넘게 노출된 다. 전직 조폭이 운영하는 채널도 있다. 부산 폭력조직 '20세기파'에서 활동했 던 위모(36)씨가 대표적이다. 위씨는 지 난 1월 '이제 주먹은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렸지만, 며칠 뒤 특수상 해·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 10개월 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경찰도 온라인 조폭 콘텐트가 범람 하는 흐름을 예의주시한다. 정우택 국 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경찰청에서 제 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활동 중인 조폭 하수영기자 유튜버는 11명(올 1월 기준)이다. 2019



유튜버 엄모(29)씨가 지난 6월 안양역 인근에서 조직폭력배와 충돌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유튜 브에 게재했다. [엄모씨 유튜브 캡처]

년 3명, 2020, 2021년 7명 등 증가세다. 조폭 콘텐트가 범람하는 건 금전적 보 상 때문이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 후 원계좌를 공개하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후원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올 린다. 조폭 출신 유튜버와 친분이 있는 B씨는 "많게는 하루 500만원 후원금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위씨 도 수감 직전까지 구독자를 11만 명이 나모았다

대책으로는 주로 소셜미디어(SNS) 사 업자의 책임 강화가 거론된다. 이창현 한 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극 적인 콘텐트를 찾는 대중과 조회 수욕 심을 내는 유튜버가 합작한 사회병리 현 상"이라며 "공권력 불신과 겹쳐 사적 제 재 콘텐트가 만연한데 결국 법치에 어긋 나는 행동이고, 모방범죄를 저지를 위험 도 있다"고 우려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 문방송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유튜브나 라이브방송은방송이아닌통신으로분 류가 돼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며 "독일처럼 SNS 사업자를 압박하는 입 법이돼야한다"고말했다. 이영근 기자

이영애 "이승만기념관 기부, 과오 감싸는 것 아닌 화합하자는 취지"

배우 이영애(사진)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5000만원을 기부한 건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남기 되 공을 살펴보며 화합하자는 취지" 라는 입장문을 냈다. 한 인터넷 언론 이 "역사 왜곡을 위한 밑거름"이 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영애는 3일 "오마이뉴스 임모 기자의 기사 '이승 만의 과거, 이영애씨가 다

시 꼼꼼하게 봤으면'에 대한 저의 입장" 이라며 "그분의 과오를 감싸는 것도, 분수에 넘게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 소신을 밝히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서로미워하지말고화합하면좀더평

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 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 아 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설명하면서다.

> 이어 "그분께 감사한 부했다. 것은 우리나라를 북한

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지켜내 북한과 같은 나라가 안 되도록 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북한 성권의 야욕대로 개인 일가의 독재 공산국가가 됐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 난하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씨는 지난달 12일 이승만 기념관 건립 비용으로 5000만원을 기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65세 되시는 1958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셔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젼트 Top 15% Nationwide Agent

\$985,000

센터빌 싱글홈

방5, 화5, 차고2, 4500sf. 굿로케이션, Faircrest 커뮤니티 Upgraded 된 럭셔리 홈

SOLD \$680,000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방4, 화2, 조용한 동네 리모델,업그레이드함. 빅 썬룸, 넓은 뒷마당

클립턴 싱글홈

\$1,350,000 방6, 화장실4.5, 차고2 2003년산, 뉴키친 등등 업그레이 많이함.

우드브릿지 타운홈 \$400,000

방3, 화장실2.55 새 창문, 새지붕 굿로케이션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VA 22030 😩 🗓 FAIRFA

인면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한국반도체세운강기동은코리안프로메테우스였나

국경일인 개천절과 한글날, 국군의 날 정도만 알 지만 10월은 기념일만 12개다. 정부 공식 기념일 외에도 반도체 수출 100억 달러 달성(1994)을 기 념하는 반도체의 날(29일)이 있다. 그런데 "반도 체의 날은 국내 첫 반도체 공장인 한국반도체 부 천 공장의 설립 인가일인 1월 26일(1974)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삼성보다 10년 앞 서 이 땅에 최초이자 당대 최첨단인 C-MOS 공정 반도체 공장을 세운 강기동(89) 박사다.

김진명의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993)로 대중적 인지도까지 얻은 세계적 물리학 자 이휘소 박사(1935~77)의 경기고 49회 입학 동 기(이회창·이홍구 전 총리 등)이자, 윤석열 대통 령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무렵인 2021년 5월 서 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아 기념사진을 찍은 흉상의 주인공인 세계적 반도체 학자 강대원 박 사(1931~1992)의 경기고·서울대·오하이오 주립대 박사 직속 후배다.

세계적 학자와 동일한 출발선

한국 출신으로 노벨 과학상에 가장 근접했다 는 평가를 받는 이휘소와 강대원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수상은 못 했지만 세상이 기억한 다. 강기동은 아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이 아시아 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며 미국·일본 반도 체 회사들의 하청 조립공장에 머무를 당시 세계 서 가장 앞선 반도체 공정 기술을 한국에 들여왔 음에도, 오히려 그 결단에 발목 잡혀 평생 미국에 서 라디오 수선공으로 살며 잊힌 존재가 됐다. 미 국에 핵무기를 가져다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 스' 오펜하이머처럼 그 역시 조국으로부터 외면 당한 '코리안 프로메테우스'였다. 출발은 비슷했 지만 종착역은 사뭇 다른 강대원과 강기동의 엇 갈린 인생이 궁금했다. 올 초 미국에서 귀국해 한 국 반도체 50주년 행사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강기동 박사를 만나 얘기를 들었다.

강기동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선 강대원을 알아 야 한다. 그가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지난 1992 년 5월 한국 언론엔 관련 기사 한 줄 없었지만 뉴 욕타임스는 비중 있는 부고 기사를 냈다. '반도 체 분야 발명가'라는 제목 아래 1959년 당시 세계 최고 연구소인 벨연구소에 입사해 1960년 이집 트 출신 아탈라 박사와 함께 트랜지스터 모스펫 (MOS-FET)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플래시메모 리 근간인 플로팅게이트를 발명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스튜어트 밸런타인 메달'을 수상(1975) 했다고 전한다. 덧붙이자면 아인슈타인·스티븐 호킹 등이 받은 상이다. 1988년 벨연구소 은퇴 후 일본 NEC가 미국에 만든 NEC 연구소 초대 소장 에 취임했다는 사실도 담았다.

사망 8년 후인 2000년 최초의 집적회로(IC)를 만든 공로로 잭 킬비가 노벨상을 받으며 "강대원 의 모스펫 기술이 오늘날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CPU·D램 등 거의 모든 반도체가 모스펫 기반이라는 걸 고려 할 때 결코 과장이 아니다. 2009년 에디슨과 라이 트형제, 노벨 등이 오른 미 특허청의 '발명가 명예

Granted to Motorola ■일반인에겐 낯설지만 강기동 박사는 1974년 국내 최초로, 그것도 당대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 인물이다. 미국에 유학해 박사 학 위를 받은 다음 모토로라에 입사했다. 21실력을 인정받아 사보에도 등장했다. 31세계적 반도체 학자인 강대원 박사 부부가 결혼식을 준비해줄 정도로 가까웠다.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주자 시절 서울대의 강대원 박사 흉상을 찾아 기념촬 영을 했다. 5 모토로라 재직 당시인 1967년엔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전민규 기자, [사진 강기동]

의 전당'에도 입성했다.

기술 없이 텃세 만연했던 한국

한국 피가 조금만 섞여 있어도 '국뽕'에 취해 영 웅 신화를 만들곤 하는 한국 사회가 이상하리만 치 오랫동안 세계 반도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그를 몰랐다. 사후 20여 년이 흐른 2014년에야 서 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가 개소 26주년 기념으로 그의 흉상을 세웠다. 2017년 '강대원상' 제정(한 국반도체산업협회)에 이어 2019년 1월 정부는 그 를 '2018년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 제1회 강대원상 시상식 직후 홍성주 당시 한국반도체학 술대회장(현 SK하이닉스 미래기술원장)은 언론 기고에서 그가 왜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의 문을 품었다. 결론은 "한국은 기초기술 연구보다 선진국 따라잡는 데 열중했기에, 강 박사 같은 연 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했을 것"이었다.

최근 10년간의 재평가 작업에도 한국에선 뉴욕 타임스 언급 이상의 정보를 얻기 어렵다. 한국 반 도체 대부로 불리는 카이스트 김충기 명예교수조 차 "10여분 정도 짧게 세 번의 대화를 나는 게 전 부"라고 할 정도다. 1977~85년 벨연구소에서 함 께 근무했던 강성모 선 카이스트 종상도 과거 인 터뷰에서 "당시 '두원 캉'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 을 정도로 유명했다"는 단편적 기억만 전했다. 정 작 답은 그와 가까웠던 강기동이 알고 있었다.

"한때 강 선배는 한국 학계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런데 기득권의 텃세로 뜻을 접었다 고 나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다. 한국을 방문했 다가 실망만 안고 돌아가는 길에 일본에 들렀는 데 일본은 LED 연구로 1973년 노벨상을 받은

에사키 레오나 박사와 동급으로 그를 대접했다 고 하더라. 한국 대신 일본 NEC가 세계적 메모 리 회사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배경이다. 1974년 내가 만든 부천 공장을 찾기도 했는데 그 때까지도 내 결정(한국행)을 응원하진 않았다."

강기동은 1962년 박사 학위를 마치자마자 애리 조나의 제조업체 모토로라를 선택했다. 인사차 연락했더니 강대원이 대뜸 "박사 출신이 생산공 장에 가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면접에 붙은 IBM 연구소를 권했다. 하지만 그는 모토로라에 갔고, 여기서 인생을 바꾼 경험을 한다. 소련과 무 기 경쟁이 한창이던 1965년 실전에 배치 중인 미 국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미니트맨 II의 결함을 바로잡는 미 공군 극비 프로젝트에 투입된 것이 다. 논문은 7년간 금지, 해외여행은 미 국방성 허 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밀 서약을 한 터라 그의 이 름이 공식적으로 남아있지는 않다.

세계 최첨단 공장 세웠지만 …

그러나 세계 최고 생산시설을 개발·설치하는 경험을 세 번이나 했고, 이게 몇 년 후 한국반도체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기반이 됐다. 그는 "1974년 한국반도체 무전 공상이 세계 죄조 C-MOS 공성 양산 공장"이라고 주장했다. 김충기 교수는 "세계 최초인지는 몰라도 당시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은 강 박사를 포함해 일본 연구자 등 다섯 손가락 안 에 꼽혔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인정받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는 왜 강대원과 달리 한국에 돌아왔을까. 미국 유학을 떠날 때 부친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술 을 배우고 돌아와 큰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

도 했지만, 한국 관료와 기업인들 역할이 컸다고 한다.

그중 한 사람이 당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였던 고(故) 노신영 총리다. 강기동이 모토로라 투자 조사단 일원으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면 담을 하고 돌아온 이듬해인 1968년 노 총영사 부 부가 집에 찾아와 "박 대통령이 국력을 기울여 하 이테크를 추진하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다. 강기 동은 "한국에 없는 기술을 갖고 가면 미 정부와 모토로라가 기술 유출로 제소할 게 뻔하다"며 나 름 묘안을 담은 반도체사업계획서를 이광택 공사 를통해 한국에 보냈다.

이듬해 경기고 동창이자 쌍용 김성곤 창업자의 사위인 조해형 당시 쌍용그룹 기획업무 담당과 만 나 한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자고 뜻을 모았다. 김 성곤 회장이 네덜란드 필립스를 방문해 제휴를 타진하는 한편 구미에 공단 부지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그는 "모토로라를 관두자마자 한국에 가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다"며 "1969년 서 둘러 모토로라를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1971년 당시 공화당 정치인이었던 김성곤의 10·2 항명 파 동으로 정권의 눈밖에 나 사업을 접었다.

결국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기업인 김규 한 사장의 도움으로 한국반도체 설립 작업을 시 작하고, 1974년 부천에 3인치 웨이퍼로 칩을 만 드는 진짜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 제소를 피하 기 위해 미국에 ICII라는 회사를 차린 후 한국엔 하청 공장을 짓는 형식이었지만 김규한 사장의 KEMCO가 100% 투자했고, 그의 지분은 전혀 없었다. 1975년 전자 손목시계 칩을 400만개 수 출하고, 삼성이 독자적 반도체 기술을 키우겠다 는 '도쿄 선언'을 한 1983년 말 미국·일본(TI·모 토로라·인텔·NEC·히타치·후지쓰)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64K D램을 내놓은 게 모두 이 부천 공 장이었다.

라디오 수리공 된 반도체 엔지니어

그러나 삼성이 1977년 한국반도체 지분을 100% 인수하며 그는 쫓겨나다시피 한국을 떠났 다. 그렇다고 미국 반도체 회사로 돌아갈 수도 없 었다. 반도체에 관심을 보이는 대만·한국의 몇 몇 기업과 인연을 이어가던 1982년 정주영 현대 회장이 미국으로 찾아왔다. 그는 또 한 번 반도 체 계획서를 만들었고, 그렇게 1983년 현대전자 (현 SK 하이닉스)의 탄생에 기여했다. 하지만 삼 성을 떠날 때처럼 그를 모함하는 세력이 있어 결 국 또 미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한국 반도체업계와의 마지막 인연이다. 이때부터 지 가지 그의 인생은 고난 그 자체였다. 세계 최고 반도체 엔지니어가 생활고를 타개하려고 라디오 수리공이 됐다.

굳이 무게를 잴 필요는 없지만 한국보다 일본 반도체 발전에 더 기여한 학자의 재평가는 활발 한데, 척박한 한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을 들고 와 직접 공장을 지었던 인물에 대한 인정은 너무 박 해 아쉽다.

안혜리 논설위원

9월,10월 리스팅 하시는 셀러 분!

1. 집안의 터치업 페인트 무료로 해 드립니다. (콘도, 타운하우스무료 + 싱글홈 \$5,000까지)

2. 전문사진사 무료촬영 3. 3D 비디오 무료촬영

4. 저렴한 가격에 집수리후 크로징에서 후지불

5. 빠른 시일내에 최고의 가격으로 팔아 드립니다.

9월,10월 집사시는 바이어 분들!

집 사시는 분들께 무료 페인트 해 드립니다. (콘도 + 타운하우스 + 싱글홈 \$5,000까지)

셀러 클립톤 깨긋한 싱글홈 찾습니다. (바이어 대기)



매나사스 타운홈 써드리 로드, 66번 인접, 위치좋은 깨끗한 새동네 방2+화2+차고1개, 1,142sqft, 2014년 투자용 렌트수입 \$2,100

독점리스팅 / 임대



비엔나 타운홈 *\$3,995/m* 즉시 입주 가능,

위치 좋은 타이슨스 코너, 방3+화2, 거실마루, 주방 업데이트 됨, 벨코니,덱이 좋은 뒷마당.

세입자와 분쟁,주택관리 전문부동산 비키리 부동산에 연락주세요!

집을 사셔야 하시는 분들, 부동산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복리인상

Ex:현 6D세 남성- Cash Indemnity 방식 (매월 은행 구좌로 장기간호 비용이 입금)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316
- •불입기간-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703-200-1412



교통사고 치료 전문

了MERCY 멀시적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통증 및 저림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703.256.3005











엘리콧시티



우리말 바루기

'한참때', '한창때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전성기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내가 (한참때/한창때)는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나도 (한참때/한창때)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다" 등과 같은 표현이다. 그렇다면 괄호 안에는 어떤 단어가 적절한 말일까?

기운이나 의욕이 가장 왕성한 때를 가리 키는 경우 이처럼 '한참때'나 '한창때'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리기 십상이다. '한참'과 '한창'은 각각 의미가 다른 단어이므로 문맥 에 따라 정확한 것을 골라 사용해야 한다.

'한참'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 오 랫동안, 한동안'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너 를 한참 동안 기다렸다" "강물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한참 뒤에 도착했다" 등과 같이 쓰인다.

'한창'은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 하게 일어나는 때 또는 어떤 상태가 무르익 은 때를 뜻한다. '한참'은 시간의 흐름에, '한 창'은 특정한 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두의 예문에서는 두 문장 모두 기운이 나 의욕이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때를 뜻하 므로 '한참때'가 아니라 '한창때'가 맞는 말 이다.

기운이 한창인 젊은 나이를 표현할 때도 "한참나이에 놀기만 해서야 되겠느냐"에서 와 같이 '한참나이'라고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한창나이'가 바른말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 중앙일보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건납식이 국제하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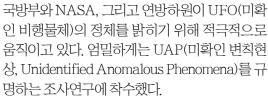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이슈 진단

UFO 정체 곧 밝혀질까?



UAP는 해군에서는 미확인 공중현상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으로표기하기도하는데, UFO의 현대적표현이다. UFO라 부르면비행접시와 외계인으로 바로 단정 짓는 것을 우려해 만든 용어다. 국방부는 지난 9월1일 UAP연구결과를 공개하는 웹사이트(www.AARO.mil)를 개설했다. 이 웹사이트에는 국가정보국이 2021년 7월 공개한 UAP 영상들을 일부 공개했다. 국가정보국은 수집한 UAP 영상 144건 가운데 143건이 정체를 규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발표했다. "UAP 자체는 존재하지만, 확실한 정체나 기원이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UFO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5월31일 국방부와 NASA는 그동안의 UAP 연구결과를 CBS뉴스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와 NASA는 1996년부터 2023년까지 관측된 UAP들의 공통된 특징을 "작은 반투명구체 안에 검은 입방체가 들어있는 형상, 크기는 1~4미터, 공중에서 정지가 가능하며 마하 2의 초음속비행가능,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혹은 반작용 추진 분사나열 배출이 보이지 않아비행원리를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군과 공군 조종사들이 자주 목격하고 군사훈련 중 전투기가



이 무 영 뉴미디어 국장

UAP와 충돌할 뻔한 사건까지 보고 되면서 UAP 를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이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부고발자가 나오면서 UFO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지난 6월6일 전 공군 정보장교 데이비드 그러쉬(36)가 "미정부는 추락한 외계 비행체를 꽤 많이 회수해 갖고 있으며 역설계를 통해 UFO 비행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는 기계나 프로그램을 분해 분석해똑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쉬는 신분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2019년~2021년 국가정찰국 정보 요원으로, 2021년~2022년엔 국가대기권정보국 정보 요원으로 복무했다. 그러쉬는 국가정찰국에서 '추락한 외계 비행체를 회수하는' UAP 임무 부대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연방하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7월26일 그러쉬, 전 해군 조종사 라이언 그레이브스와 전 해군 사 령관 데이비드 프레버 등 전직 군인 3명을 증인으 로 참석시켜 UAP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그레이 브스는 2014년 "작은 반투명 구체 안에 검은 입방체" UAP와의 조우를 증언했고, 프레버는 2004년 "틱탁 사탕 모양" UAP를 목격한 사실을 증언했다. 이들의 증언은 국방부가 발표한 UAP 특징과 유사하다. 국방부가 해당 UAP 영상을 공개했었다. 그러쉬는 이들과 다르게 "UFO 보관 위치를 감사관과 정보위원회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UFO 보관 위치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해 청문회 전에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청문회 후에 팀 버쳇, 낸시 메이스 등 의원들은 기자들에게 "그러쉬가 제출한 UFO 보관 위치 정보에 접근할 것이며 그 장소를 반드시 방문해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통과된 UAP 정보공개법에는 국립문 서 기록관리청이 UAP관련 정보 기록을 즉각적 으로 공개할 것을 명시했다. UAP 기밀 자료들이 곧 대중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 관은 "UAP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UAP가 군사태세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과 공군의 조종사들이 목격하고 보고하는 설명 불가능한 공중현상이 존재하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백악관이 확인해준 것이다. 국방부와 NASA가과학적으로 UAP 정체를 규명할 수도 있고, "미정부가 보관 중인 추락한 UFO"를 의원들이 확인할 수도 있다. 머지않아 UAP 혹은 UFO의 정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해본다.

J네트워크

독일통일33년



안 착 히 한국 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 팀

오늘은 단기 4356년 개천절. 한국처럼 이날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나라가 또 있다. 다름 아닌 독일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됐던 동독과 서독이 다시 한 나라로 새 출발 한 날이 1990년 10월 3일이다.

그날 0시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 위 하늘로 축하 폭죽이 수를 놓은 가운데 흑·적·금 삼색의 통일 독일 국기가 게양됐다. 수많은 독일인들은 분단 시절 서로가 겪었던 억압, 폭거와 그에 따른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 렸다.

통일 독일 33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통합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몇 년 새 테슬라와 인텔 등 다국적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 동독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독과의 격차는 여전하다.

독일 중앙은행 통계에 의하면 서독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거의 13만 유로(약 13만7000달러)인데 비해 동독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서독의 3분

의 1 수준인 4만 유로(약 4만2000달러)를 조금 넘을 뿐이다. 이런 고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속 세를 비롯한 조세 개혁책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격렬한 정치적 대립과 만만찮은 부자들의 반발로 갈 길이 멀다.

또 다른 문제는 수십 년간 지속된 젊은 세대들의 동독기피 현상이다. 사실상 한 세대가 실종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독지역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서독을 좇아고향을 떠났다.

그래도 통일 직후 계속된 정부의 노력 덕분에

동독의 임금 수준은 이제 서독의 90%에 육박한다. 이 덕분인지 반갑게도 일부 젊은 세대의 동독회귀가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데, 바로 사상 최저인 15~24세 인구비율이다. 베이 비붐 세대 덕분에 1983년 16.7%의 정점을 찍었던 15~24세 인구비율은 현재 10%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바라보는 동서독 국민 사이의 시각 차이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분 명한 사실은 기적 같이 이루어낸 통일로 동독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고, 동독인들이 갈망하던 자유도 이젠 당연한 권리가 되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 남과 북으로 나뉜다는 상상조차할 필요 없었던 신화. 세월이 흐를수록 쌓이는 이질감 속에 멀어지는 남북관계를 보며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위해 뚜벅뚜벅 전진하는 독일이 부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중앙일보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미테랑도세번지고네번째됐다…당신도한번더해보라"

김대중 육성 회고록 (20)

1992년 14대 대선 패배 이후 정계에서 은퇴한 나, 김대중(DJ)은 정치 일선에 비켜나 있었다. 외견상으로는 '야인'이 었지만 민주당 내에 나를 따르는 'DJ사 단'은 여전히 건재했다. 이를 견제하려 는 이기택 민주당 대표와 미묘한 신경 전이 벌어졌다. 잠복했던 갈등은 95년 6.27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터지고 말 았다.

6.27 지방선거는 35년 만에 단체장을 직접 뽑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나는 자타가 공인한 '미스터 지방자치'로 불 렸다. 20년 동안 줄기차게 지방자치제 도입을 외쳤고, 90년 목숨을 건 단식투 쟁을 통해 이를 쟁취했다.

나는 조순 전 부총리를 서울시장 후 보로, 이종찬 전 정무1장관을 경기도지 사 후보로 이기택 대표에게 추천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 석권해야 지방 선거에서 완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 데 경기도지사 후보를 두고 이 대표와 충돌했다. 이 총재는 장경우 의원을 고 집했다. 이 총재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 간곡히 부탁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를 이종찬 전 장관 으로 양보해 주시면 큰 은덕을 입은 것 으로 알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대표의 차기 당권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 겠다"고 답하고 돌아갔다. 얼마 뒤 "만 약 장경우가 떨어지면 모든 책임을 지겠 다"고 공언했다. 그의 독선에 실망했다.

JP "사랑이 없는 권력은 폭력"

여당 상황도 비슷했다. 김영삼(YS) 대통령과 김종필(JP) 민자당 대표 간 갈등이 표출했다. '영원한 2인자' '처세 의 달인'으로 불리던 JP는 홀대와 수모 를 당하다 끝내 버티지 못했다.

JP는 3당 합당 5년 만인 95년 2월 YS 와 결별했다. JP는 5·16 군사정변, 3당합 당에 이어 "35년 정치 역정 중 가장 어 려운 결심"이라며 민자당을 떠났다. JP 는 탈당 기자회견에서 "사랑이 없는 권 력은 폭력"이라며 "독선·독단과 충격에 의한 정치 행태는 버려야 한다"고 YS의 통치 스타일에 강한 반감을 표했다. JP 는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당하고, 내각제 개헌을 강령으로 채택했다.

나는 '지역등권론'을 주창하며 민주 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다. 집권 세력을 탄생시킨 특정 지역이 다 른 지역에 군림하는 지역패권주의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자치 시대에는 각



1996년 5월 서울시청 앞에서 김종필(JP)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와 함께 신한국당이 의원 영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려는 것을 규 탄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광옥 새정치국민회의 사무총장, DJ, JP, 김용환 자민련 사무총장. [사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지역이 대등한 권리를 갖는 지역등권 주의로 나가자고 역설했다. 전국의 유 세장에서 DJ 바람을 일으켰다.

선거 결과는 야당의 대승이었다. 민 자당 참패, 민주당 선전, 자민련 돌풍으 로 요약됐다. 15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민자당이 승리한 곳은 다섯 곳에 그쳤 다. 서울 구청장의 경우, 25곳 중 민자 당은 단두 명만 당선됐고 나머지는 23 곳은 우리 민주당이 휩쓸었다.

내 우려대로 경기도에서는 패했다. 지면 책임진다던 이기택 대표는 행동 에 옮기지 않았다. 그는 6.27 지방선거 를 앞두고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세대교체론"을 언급하자, "시대의 흐 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나와 JP의 정치적 입지를 깎아내리려 는 이상한 행보였다. 이기택 중심의 민 주당으로는 여당에 대항할 수 없겠다 고 판단했다.

대선 이기려면 충청 표 가져와야

지방선거 승리는 나에 대한 민심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지인 한 분이 내게 이런 얘기를 했다. "프랑수아 미테랑 프 랑스 대통령도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DJ, 이기택과 불화 끝에 창당 JP, 합당 5년 만에 YS와 결별

대선 승리 위해 자민련에 손길 DJP 연합 통해 호남 고립 탈피

'내편아니면적' 낡은관행타파 보수층 지지, 대권 레이스 순풍

당선됐다. 당신도 한 번 더 해보라." 용 기가 났다. 나는 세 번 떨어졌지만 공정 한 선거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억울 함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정계 복귀를 결심했다. 평생 품었던 내 꿈을 실현해 보고 싶었다. 민주주의 국가 완성과 민족 통일이 그것이다. 대 통령이 돼 세상을 바꾸고자 했다. 7월 18일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 봉사를 하 고자 한다"고 선언하고 정치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은퇴를 선언한 지 2년 반 만이다. 신당 '새정치국민회의'를 출 범시켰다. 이기택의 민주당은 더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분들이 대거 나의 신

■1995년 4월 서울 동교동 자택에서 조순 전 부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영입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 이회창 전 총리가 1997년 7월 신한국당 15대 대선 후보에 선출된 직후 김영삼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사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중앙포토]

당에 참여했다.

97년 대선의 해가 밝았다. 나는 정대 철 후보를 누르고 국민회의 대통령 후 보에, JP도 자민련 후보에 각각 선출됐 다. 민자당에서 이름을 바꾼 신한국당 에선 이회창 전 총리가 후보로 뽑혔으 나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국민신당을 창당하며 대선에 나섰다.

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선 외부 지원 이 절실했다. 국회의원 40명대의 원내 제3당인 자민련은 독자적으로 힘이 없 었다. 자민련 총재 JP는 민자당 탈당 이 후 YS와 관계가 나빠지면서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와 손잡을 필요 성이 있었다. 우리 당 한광옥 부총재와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가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막후 협상에 착수했다.

일부에서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자 민련의 뿌리를 쭉 올라가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다. 나는 색깔론 타파와 호남 고립 구도를 깨기 위해 자민련과 의 연합이 불가피하다고 설득했다. 대 선에서 이기려면 충청도 표를 가져와 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치에선 소신과 명분 못지않게 현실적 선택도 중요하다. '야합'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정권 교 체였다.

DJP "여생을 함께 국가에 봉사"

10월 27일 밤 JP의 정구농자택을 식 성과 운영'에 합의했다.

각료는 양당이 동등하게 맡고, 실질적 인 각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는 실세 총리는 자민련 측에서 맡도 록하다"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탄생 했다. '양당은 집권 시 99년 12월까지 내 각제 개헌을 완료한다'고 명시했다. 우 리 둘은 "여생을 함께 국가와 민족에 봉사한다"고 다짐했다.

(※JP는 2015년 중앙일보에 연재한 증언 록 '소이부답(笑而不答)'에서 DJ-JP 후보 단일화 회동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97년 10월 27일 밤 8시 30분. 김대중 총재가 한광옥 부총재를 데리고 청구 동우리 집을 비밀리에 찾아왔다. 김 총 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인사한 뒤 갑자 기 바닥에 내려앉았다. 그러더니 '김 총 재님(JP),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라고 했다. 나는 DJ를 소파에 앉도록 권하며 '그러잖아도 도와드리려고 생 각하고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총재 님(DJ)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모 와 박해를 당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 원(寃)과 한(恨)을 다 풀어드리겠습니 다'라고 답했다. 나의 답을 들은 DJ는 얼굴가득환한미소를지었다.")

TJ "집권하면 호남 사람이 다 해먹나?"

박태준(TJ) 의원의 합류는 큰 힘이 됐다. 포항제철 신화를 만든 그를 97년 9월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 선전이 벌어진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 에서 만났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2대1 로 역전승했다. 경제에 대한 탁월한 식 견과 함께 양심이 투철한 사람이란 인 상을 받았다. 다음 날 조찬을 같이 했 다. TJ가 물었다.

"만일 집권하시면 호남 사람들이 다 해먹을 것이라는데, 사실입니까? 또 총 재님의 사상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솔직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서 로를 믿게 됐다. 자민련 총재가 된 TJ 는 나를 지원했다. DJP 연합을 확장한 'DJT(김대중-김종필-박태준) 연합'이 완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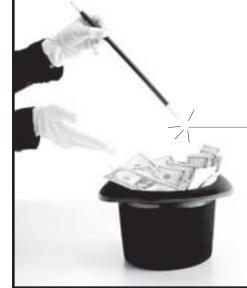
마지막 도전 배수진

DJP·DJT 연합에 역사적 의미를 두 고 싶다.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낡은 정치 관행을 깼다. 과거에 적이라도 민 주주의와 시장경제, 남북 평화, 지역주 의 타파에 뜻이 같다면 함께 정치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DJP·DJT 연합은 원 칙을 지키면서 유연한 사고로 이뤄낸 접 방문했다. 나와 JP는 '공동정권 구 결과물이다. 민주화 경력(DJ)-국정 경 험(JP)-경제 경륜(TJ) 결합이 국민에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총재로 단일 게 신뢰를 줬다. 선거 때마다 색깔론에 화하고, 집권 시 공동정부에 참여하는 시달렸던 나로서는 보수층의 지지 기 반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나의 대선 레이스에 순풍이 불었다. 생애 네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고대훈·강병철 기자

> EMET.Inc NMLS #201332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워싱턴중앙일보가 약속드립니다!

발행부수·광고효과·독자만족1등 Tel. 703-281-9660

시 설

미 국채금리 오르고 엔저는 역대급… 안전벨트 단단히 맬 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 일(현지시간) 뉴욕 시장에서 장중 4.7%까지 올랐다. 2007년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다. 이날 미국 제조업지 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자 시장에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더 작아졌다고 본 것이다. 안 그래도 지난달 Fed가 금 리를 동결하면서 긴축정책을 더 강하고 오래 지속하 겠다는 매파 성향을 짙게 드러낸 이후 시장금리가 오 르고 증시는 출렁거렸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금리가 7%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에 대비

해야 한다는 말 까지 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Fed가

정부는 건전재정 지키고 금융시장 경계 강화를 가계·기업은 고통스러워도 부채 줄이기 나서야

추가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현재 최대 2%포인 트까지 벌어진 한 미 기준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우리 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압박이 생긴다. 외자 유출 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1%대 성장 전망치를 내놓은 곳이 많다. 저성장이 걱정인데 한국은행은 정작 기준금리 를 올려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빚 많은 이들이 힘들다. 가계빚 은 더 늘었다. 지난주 한은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 면 올해 2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 채 비율(추정치)은 101.7%로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안한 길은 없다.

올랐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7년 넘게 지속된 '좀비기업'이 지난해 903곳이 넘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내년 경제 전망도 좋지 않 다. 세계은행(WB)은 그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 망치를 4.8%에서 4.4%로 내려 잡았다. 우리의 주요 수 출국인 동남아 경제 전망도 하향 조정됐다. 반도체법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하면서 미·중 갈등 으로 누려 왔던 동남아의 대미 우회수출 특수가 타격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와중에 엔화 가치는 어제 도쿄 외환시장에서 심 리적 저항선으로 평가되는 달러당 150엔 근처까지 떨

> 어졌다. 일본과 수출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걱정거리가 늘

었다. 고금리를 감내하면서 경기 하락을 방어하고, 수 출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도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야 하는 이중의 목표 앞에 지금 우리 경제가서 있다.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이 국내로 전이되지 않 도록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경계를 철저하게 해야 한 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에 재정은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선용 사업이 추가돼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겠다. 가계와 기업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빚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빚 감축은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다른 편

핵 고도화, 러와 무기 거래 의혹…고립 자초하는 북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북한이 러시아와 '수상한 거래' 에 나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 인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 국경 역인 두만강역 일대에 대형 컨 테이너와 화물을 집결시키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런 움직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 아온 지난달 18일 이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컨테이 너나 포장된 화물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고, 북한 역 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러 양국의 부인에도 국제사회는 이들의 무기 거래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 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이나 탄약 등을 제공 하는 일환으로, '위험한 거래'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양측이 떳떳하게 거래 품목이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제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 나아가 상기석으로 더 큰 _ 피해서다. 스포즈용품 업계에서도 북한이 외톨이가 제재의 고통이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른 나라와의 무기 거래나 무력 명심해야 한다.

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했다고 밝혔다. 1년 전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데 이어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핵무기 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핵 타격 수단의 다종화와 실 전 배치"를 강력히 실행하라는 지시도 했다. 국제사회 의 우려나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만 가겠다는 외곬 행보이자 미국과 한국을 향한 일종의 시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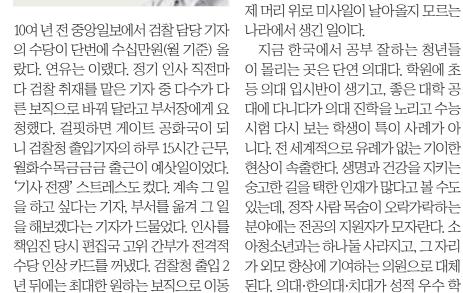
그제 밤 북한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19차 아시안게임 소식을 전하며 한국팀을 '괴뢰'라고 칭하 는 황당한 상황도 연출했다.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이 나 '북측'으로 칭했던 한국 기자들에게 "국가 명칭을 제대로 부르라"며 반발했던 북한이 한국을 괴뢰라고 표현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구나 체제와 이념 을 넘어서야 할 국제경기 대회를 정치화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도 없게 됐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유니폼엔 인공기 외에 아무런 상표가 붙어 있지 않다. 세계 유명 스포츠용품 회사들이 북한에 대한 후원을 철저히 기 시위, 법을 통한 위협 고조 등의 일탈 행위를 국제사회 북한은 특히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최 가 일일이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 런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스스로를 얽어매는 일일 뿐이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 계를 보라고 했던 김 위원장의 말대로 국제사회에서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다.

장교와 의사, 그리고 미래

이상언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하지만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회사의 성의가 어느 정도 전 달되면서 불만이 상당히 누그러졌다.

시켜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수당 인상과

새 인사 규칙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군 장교를 하겠다 고 손드는 사람이 줄었다. 학군 군간부 후보생(ROTC)을 육성하는 108개 대학 중 54곳이 정원 미달(7월 기준)이다. 36 명이 정원인데, 5명밖에 없는 학교도 있 다. 서울대는 정원 47명에 현원 24명, 고 려대는 65명에 28명이다. ROTC는 전체 군장교수급의 70%를 담당한다. 아직은 ROTC 출신 장교가 군의 필요에 모자라 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 추세가 지속하 면 그런 날이 머지않다.

원인은 짐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별 로 좋은 게 없어서다. ROTC 출신에 대 한 기업의 취업 가산점이 사라졌다. 혜택 을 주면 차별로 간주한다. 육군 사병 복 무 기간은 18개월인데, ROTC 장교 의 무복무기간은 그보다 8개월이 길다. 현 재 병장 월급이 130만원(자산 형성 지원 금 포함)이다. 초급 장교 월급은 200만원 중반대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후년에 병장 월급이 200만원이 된다. 군 급여 체 계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병장과 소위 월 급의 차가 수십만원 수준으로 준다.

ROTC에서만 장교 수급 차질이 엿보 이는 게 아니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에 서 63명이 자퇴했다. 그중 절반 이상(32

명)이 신입생인 1학년 생도였다. 세상의 변화를 상징한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관학교에서 지난 5년간 545명이 스스로 떠났다. 우수한 군 지휘관 확보 가 위태롭다. 공식적으론 '휴전 중'인, 언 제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나라에서 생긴 일이다.

지금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청년들 등 의대 입시반이 생기고, 좋은 대학 공 대에 다니다가 의대 진학을 노리고 수능 시험 다시 보는 학생이 특이 사례가 아 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 속출한다.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숭고한 길을 택한 인재가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작 사람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분야에는 전공의 지원자가 모자란다. 소 아청소년과는 하나둘 사라지고, 그자리 가 외모 향상에 기여하는 의원으로 대체 된다. 의대·한의대·치대가 성적 우수 학

50% 대학에서 ROTC 정원 미달 의대는 인재 빨아들이는 블랙홀 국가가 부의 배분 방식 고민해야

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니 공학 과 기초과학 은하계가 썰렁해진다.

의대 쏠림은 자유시장에서의 선택 문 제가 아니다. 의대 정원을 국가가 통제 한다. 의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미용 시술에 쓰는 레이저 도구를 들지 못하게 공권력이 막아준다. 의사 고소득 을 정부가 보장하는 셈이다. 장교 처우 결정은 온전히 국가 몫이다. 20대가 몰렸 던 7.9급 공무원 시험도 경쟁률이 줄었 다. 경찰 공무원 쪽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은 고된데 월급은 적어 평균적인 생활 조차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결국 자원과 부를 배분하는 공동체의 방식에 선망하는 직업이 좌우된다. 역사 적으로 흥한 나라에서 군인에 대한 보상 이 박한 적이 없다. 로마 군인은 20년을 복무하면 13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 금을 받았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때문 에 상속세 제도가 생겼다. 의욕 넘치고 유능한, 거기에 사명감까지 갖춘 젊은이 가 무엇을 하게 하느냐에 국가의 성쇠가

논설위원

중앙일보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i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전재계약제휴사미국THENEWYORKTIMES, THEWALL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FINANCIAL TIMES 일본時率通信, 日本經濟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 QR코드를 전자신문 보기 스캔해주세요!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미료시설 완비/최신형 X-Ray 완비/교정 및 물리치료/미료보험

진 료 과 목

- · Whiplash 전문치료
-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 허리 디스크
- · 허리 통증
-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ra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3년 현재 <mark>29년</mark>간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대표 김태원 703.352-8949





가치보다 물질 더 욕망, 초저출산 영아 문제 생겨

Wednesday, October 4, 2023 C





제대로 설치해야

www.LBuniversal.com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임종범 대표 변호사(VA/MD) 703-333-2005 301-230-3122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①중앙일보 JoongAng Ilbo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해 대양 저편의 대 륙과 문명권을 연결해 준 대항해시대 (The Age of Discovery)가 열리면서 인 류는 지구촌 전체를 서술하는 세계사를 쓰기 시작했다.

15세기가 되자 유럽인들은 발달한 항 해술과 조선업을 토대로 초대형 범선을 타고 대규모 해양 탐험에 나섰다. 바다 를 정복하려는 탐험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난관은 거친 바다의 풍랑도, 배의 침 몰도 아닌 선원들에게 집단으로 발생하 는 괴혈병이었다. 비타민C가 석 달 이상 결핍돼 잇몸, 근육, 피하점막 등에 출혈 이 생기고 시력도 나빠지며 혈뇨, 혈변 등으로 사망하는 병이다. 비타민C는 결 합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 요소라 부족하면 신체 어디에서건 출혈 이생길수있다.

홀로 무인도 살면 욕망 대상 찾기 어려워

실제로 태평양처럼 거대한 망망대해를 몇 달씩 항해할 때는 선원의 절반 이상 이 괴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허다했 고 75%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대 항해시대에 괴혈병으로 사망한 선원을 200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당시에도 과 일이나 야채를 섭취하면 괴혈병을 예방 한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지속해서 공 급하기가 어려웠다. 주스 형태는 배 안 에서 금방 상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영국의 위대 한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다. 그는 배 에서 장기간 보관한 상태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C 공급원으로 소금에 절인 양배추를 선택해 3000kg 넘게 배에 실어 선원들에게 권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선 원들이 맛이 없다며 강하게 저항하면서 먹기를 거부했다. 고민 끝에 쿡 선장은 묘안을 생각해냈다. 절인 양배추를 장교 들에게만 제공했던 것이다. 장교들이 섭 취하는 걸 본 일반 선원들은 이내 절인

타인을 모델, 경쟁자, 장애물로 생각할 때 나타나는 욕망의 반응들 타인에 대한 모델로 생각할 때 경쟁자로 볼 때 장애물로 볼 때 정신상태 정상인 • 차이를 인식 ● 극복의 대싱 ● 극복 못할 경쟁자 (타인이 존재, 인식을 함) • 배우려고 함 ● 부러움 ● 자신의 욕망 포기 • 다른 욕망으로 대체 ● 같아지려고 노력 ● 질투 ● 정신 쇠약 ● 병적 거짓말 ● 두려움 신경증 환자 (피로감, 활동 저하) (타인은 존재, 인식은 못함) 꾀병 ● 불안증 • 강박증 ● 히스테리 증상 (신체화장애) 정신병 환자 • 자신을 모델로 생각 ● 편집증 증상 • 조현병 증상 (타인은 가상의 인물 (자아가 분열됨) ● 타인:자신의 복제품 • 망상 비난·의심, 환각 상태) (피해·관계·편견·과대) 자료:『세번째 뇌』, 장 미셸 우구를리앙

경쟁자·롤모델 동경하다 욕망 분출 한국, 황금만능주의로 물질만 좇아

교육광풍·영끌등사회문제로대두 욕망 대상을 물질서 가치로 바꿔야

양배추를 달라고 선장에게 요구하기 시 작했다. 캡틴 쿡은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작동하는 모방과 경쟁이라는 욕망의 심 리를 이용해 역사상 최초로 괴혈병 사망 자 없이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21세기 자유민주 주의 사회에서는 나만의 취향과 특성이 강조된다. 개인의 도덕적 가치나 철학, 사회적인 시각과 이념, 희망과 욕망 등 은 존중의 대상이다. 특이한 취미나 불 합리한 소비도 개성이나 자기만족을 위 해서라면 '그럴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 한국인들의 개성과 욕망의 실체는 무엇일까.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현대 인의 욕망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기 때문에 나타난 다고 설명한다. 내가(욕망의 주체) 무언 가를(욕망의 대상) 갈망하는 이유는 내 가 동경하는 사람 혹은 경쟁자가(욕망 매개자)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다.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다.

예컨대 캡틴 쿡의 선원들도(주체) 처 음에는 절인 양배추를 싫어했지만 그들 이 선망하는 장교들이(매개자) 먹는 모 습을 보자 그때부터 양배추를(대상) 욕 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명인을 동경하 는 대중들이 그들의 소지품이나 패션을 마치 본인의 취향인 양 맹목적으로 구입 하고 유행시키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서구는 약자 보호·불의 대응 등 가치 추구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도 대 량 생산과 소비가 일상화된 현대인의 욕 망은 타인에 의해 주입된 것이며 타인의 욕망이 없다면 나의 욕망도 없다고 강조 한다. 실로 무인도에 홀로 생존하는 사 람에게서 욕망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황세희 암지식정보센터 진료교수

» 4면 '초저출산'로 이어집니다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Centreville

정요한 안과 전문의 JOHN CHONG, M.D.

센터빌에 위치한 정요한 안과는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눈에 대한 모든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가족적인 안과**입니다.





전공 / 경력

•소아 안과 특별 연구원 수료 Pediatric Ophthalmology Fellowship at Children's National Medical Center

- 미국 안과 전문의 자격 Certified by the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 ●조지 타운 대학병원에서 안과 레지던트 수료 Ophthalmology Residency at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 (MD) 졸업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Health Sciences



원장 정 요 한 Dr. John Chong



圖 571-210-5535 陽 8:30 AM-4:30 PM (월-금)



5900 Fort Drive, Suite 301, Centreville, VA 20121 www.vapoeyes.com/korea

건강 건강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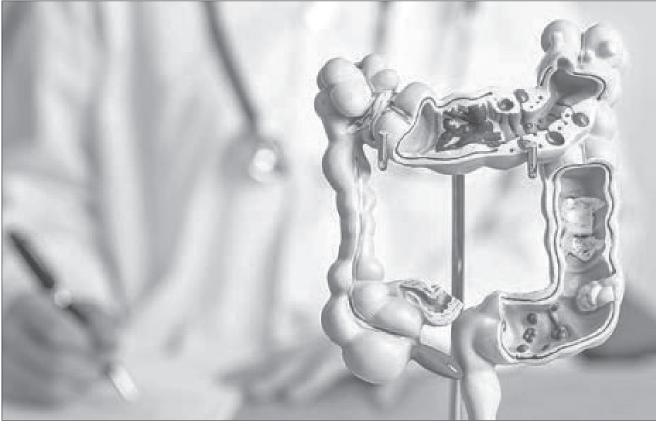
체중 줄고 툭하면 혈변·설사·변비, 대장 내시경 검사 받아보세요

청장년층 대장암 위험 낮추려면

암은 5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 환으로 알려졌지만, 젊은 나이라고 해 서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 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도 식습관과 생 활습관에 따라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 질수 있어주의해야 한다.

미국 콜로라도대 메디컬센터 연구 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20~49세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12.9명으로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 데 가장 높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암검진사업에선 50세 이상부터 분변 잠혈 검사를 시행한 후 양성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한다.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50세 미만 청장년층은 조기 발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가 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김 문진 교수는 "예전엔 대장암이 노년층 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이었지만 최근 육류 중심의 식생활 등으로 젊은 층 발 생률이 점점 증가 추세"라며 "평소 자 신의 몸 상태에 관심을 갖고 몸이 보내 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 했다.

위험 요인이 있다면 나이가 젊더라 도 대장암 발병 예방과 관리에 신경 써 야 한다.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하 는 염증성 장 질환을 앓는 사람은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에 염증이 생 긴 병으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 대 표적이다. 대장에 염증성 질환 상태가 계속되면 장내 점막과 점막하층이 딱 딱하게 굳는 섬유화 현상이 나타나 대 장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8년 이상 염 증이 지속한 환자는 대장암 검사가 필



요한 감시 대상으로 분류한다.

45세 넘으면 무증상이라도 검진 시작

가족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족 중 대장암이나 대장 용종, 그리고 자궁내막암, 난소암, 위암 등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군으로여긴다. 특히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나머지 가족의 대장암 발생위험이 2~8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불량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역시 안심할 수 없다. 대장암의 약80%는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한다. 소고기·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와 소시지·햄·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주식처럼 먹고 자주 과

음하는 사람에게서 대장암 발생률이 높다

50세 미만의 젊은 대장암 환자는 예후가 나쁜 편이다. 고연령층보다 암세포가 빨리 퍼지는 데다 징후가 있어도 방치하다가 진단이 늦어지는 탓이다. 의심 증상을 알아두고 증세가 지속할 경우 빨리 병원을 찾도록 한다. 섭취한음식물은 소화기관인 식도와 위, 소장, 대장을 거쳐 대변으로 배설된다. 대장에 머무는 시간은 12~25시간 정도다. 대장에선 물과 전해질을 흡수하고 남은물질은 분변으로 배출된다.

배변 습관의 변화는 대장암의 징후 일 수 있다. 장의 연동 운동이 더뎌지 면서 변비가 생기거나 피가 묻어나는 혈변, 검은 변을 본다. 또 대장이 좁아 지면서 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기 쉬우 며 복통이나 체중 감소, 피로감을 호 소한다.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외과 박윤영 교수는 "50세 미만이라도 혈 변, 반복되는 설사와 변비, 체중 저하, 피로감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염증성 장 질환 또는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고 당부했다.

대장 내시경은 준비 과정과 절차가 번거롭고 힘들어 검사 자체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장 전체를 살펴 볼 수 있고 용종 제거술이나 조직 검사 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분별 잠혈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등 대장암 검진은 그동안 50세부터 권고해 왔지만, 최근엔 45세로 시작나이가 당겨지는 추세다. 특히 직계가족 중가족력이 있다면 40세부터 시작할 수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정상이면 5~10년후, 용종을 절제한 경우 용종의개수·크기·종류에 따라 3~5년후, 10개이상의 용종을 제거했을 땐 1년후 재검사하는게 좋다.

저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

젊을 때부터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대장암 예방과 직결된다.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섭취하는 총 칼로리를 줄이고 단백질 역할을 하는 육류는 되도록 저지방 식품을 선택한다. 소고기·돼지고기·양고기 등 붉은 육류 섭취는 1주에 520g 이내로 유지하고 부족한 단백질은 닭고기·생선·우유·달걀로 보충한다. 숯불구이나 훈제 요리, 가공육류는 되도록 피한다. 식이섬유소는 대장암 예방과 체중 감량,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고 정제되지 않은 곡류가 좋은 영양소 공급원이 될수있다.

육체적 활동량이 적을수록 대장암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종일 앉아서 일 하는 사무직은 1주일에 3일 이상, 한번 할 때 30분 이상 운동해야 한다. 음주 는 특히 남성의 직장암 위험을 키우고 흡연은 대장 선종과 대장암의 위험도 를 모두 증가시키므로 건강을 생각해 금주·금연을 실천하는 게좋다.

김선영 기자

기고 심병용 성빈센트병원 종양내과 교수

폐암글로벌표준치료제 '오시머티닙' 급여화서둘러야

국내 폐암 치료 환경은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EGFR 변이 비소세 포폐암은 3세대 표적항암제 오시머티 님의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와 국산 3 세대 표적항암제 신약의 1차 치료 허가 등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소식이 기다 려지는 때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의료진으로서 기대감이 생기는 동시에 씁쓸하다. 오 시머티납 1차 치료는 글로벌 표준 치료 로 이미 의료 선진국에서는 급여로 환 자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는데, 한국에 서는 수년째 급여를 논의 중이기 때문 이다

으시머티닙 1차 치료는 임상시험을 통

해 EGFR 표적항암제 중 유일하게 3년 이상의 전체 생존 기간을 확인했다. 또 1세대 표적항암제 대비 연장된 생존 기 간혜택, 뇌전이 치료 효과를 입증해 2018 년 국내 허가됐다. 그러나 정작 환자들은 허가 5년이 돼가도록 '급여' 장벽에 막혀 치료를 받을 수 없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인 항암제를 비급여로 복용할 수 있는 환자가 얼마나 있겠느가

최근 국산 신약이 급여 전까지 약제비 전액을 무상 지원 하겠다고 밝혀 신규 환자 에게는 화제가 됐다. 하 지만 약제를 바꿀 수도 없는 기존의 오시머티님 1차 치료 환자들은 목 끝까지 차오른 경제적 고통에 더해 이제는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기존 환자가 잘못한 것은 없다. 오시머티님 급여 확대만을 기다렸을 뿐이다. 특히 5만 명의 국민동의 처의 후 이르지 아지하시아의의 토토

정원 후 이뤄진 암실환심의위원회 통과에 급여 확대의 희망이 커졌던 만큼 기약 없이 지연되는 급여 논의에 환자들은 다시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도대체 언제 오시머티십 1차치료 급여가 이뤄질지의료진에게 끊임없이 문

의하고 급여 확대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럴 때마다 이를 지켜봐야만 하는 의료진의 입장도 참으로 속상하 고 답답하다.

문제는 또 있다. 오시머티닙 1차 치료의 비급여는 한국 환자들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세계적인 폐암 치료 동향에 뒤쳐지게 한다. 해외에서는 이 미글로벌 표준 치료인 오시머티닙 1차 치료를 기본 전제로 내성 발생 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기본 적인 전제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한국 환자들은 이 연구에서 배제될 가능성 이 크다. 자연스럽게 이후 신약에 대한 한국 환자의 접근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래 새로운 약제의 임상적 혜택도 제한된다. 치료제의 비급여에 대해 단순히 현재의 치료제 접근성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후에 가져올 불평등을 고려해 빠른 급여 논의가 필요하단 얘기다.

더는 기존의 폐암 환자가 건강보다 치료비 걱정을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전 세계 치료 동향에 뒤처지지 않도록 오시머티닙의 빠른 급여 확대 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정부와 제 약사가 조속한 급여 논의를 통해 한국 폐암 환자들도 '의료 선진국'에 걸맞은 치료를 조속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 대한다.

센터빌/챈틀리 클리닉

Chantilly, VA 20151

T 703.429.4622 / F 703.429.4623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T 301.231.7588 / F 301.231.7587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락빌 클리닉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oveSpine

중앙일보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건강

고령화 시대 무서운 복병, 치매 위험 줄이려면 혈관 관리 필수

증가하는 치매 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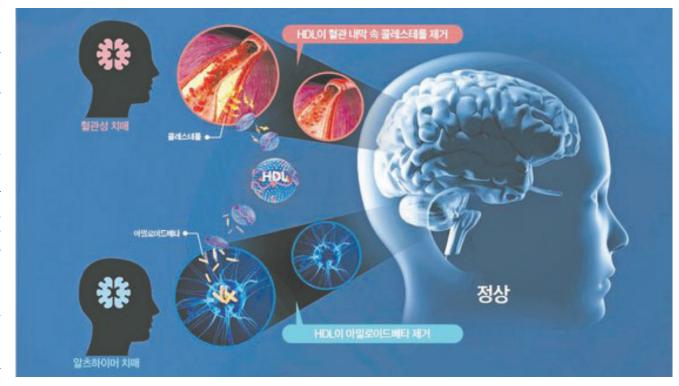
'영혼의 정전(停電)'. 치매를 표현한 말이다. 치매가 진행되면 삶의 기억을 지우다 자기 자신마저도 잊어버린다. 한사람을 넘어 가족의 일상도 송두리째 바뀐다. 환자를 상시 보조해야 하니 일상생활이 제대로 될 리 없고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로 국내 치매 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2019년 82만명, 2020년 86만명, 2021년 91만명 정도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오는 2024년에는 100만명, 2039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치매를 예방하려면 혈관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미국 심장협회와 뇌졸중협회는 혈관 건강이 인지 기능을 비롯해 전반적인 뇌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경세포(뉴런)는 뇌혈관을 통해 지속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또 정맥은 뇌활동으로만들어지는 해로운 부산물을 제거하고 뇌로 출입하는 면역 세포의 흐름을 조율한다. 이로 인해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손상되면 인지 장애와 뇌혈관 질환들이 나타날수 있다.

LDL 수치와 치매 밀접한 상관관계

혈관이 좁아지는 주된 원인은 혈관 내 막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플라크를 형



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절반 정도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겪고 죽상동맥경화증까지 함께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죽상동맥경화증은 혈관의 가장 안쪽 막(내피)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일어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서 혈류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중국의 연구팀은 죽상동맥경화증, 알츠하이머병과관련된 논문 13편을 분석해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정상인보다 죽상동맥경화증 발병률이 46% 더 높다고 밝히기도했다.

죽상동맥경화증의 가장 큰 위험 인

자는 LDL.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저밀도지단백이다. LDL은 콜레스테롤을 혈관 내막에 쌓아 혈관을 잡아지게 만드는 주범이다. LDL 수치가 높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은 40세 이상의 성인 180만 명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수치와 치매 발병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39㎜/dL 증가할 때마다 치매 위험이 5%씩 느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5세 미만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이 39㎜/dL씩 높아지면 10년 이내 치매 발병

률은 10%씩 증가하고 20년 이내 치매 발병률은 17%씩 늘어났다. 연구팀은 65세 미만 중년기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0년 후 치매 위험과 밀접한 상 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HDL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

LDL과 달리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HDL(고밀도지단백)은 혈관 내막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혈관 건강에 이롭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관여해 '장수 인자'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HDL은 성상교세포로부터 콜레스테롤을 흡수, 뇌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뇌 신경세포들 의 연결을 촉진해 배우고 기억하는 등 의 활동에 도움을 준다.

HDL 콜레스테롤과 인지 장애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결과도 주목받는다. 한국인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를 통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인지 장애 위험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범위의 HDL 콜레스테롤 수치 40~59g/dL에서 인지 장애 발병률을 기준값 1로 했을 때 60g/dL 이상 그룹의 발병률은 0.95로 낮았다. 반면에 40g/dL 미만 그룹의 발병률은 1.056으로 더 높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인지 장애와 우울증 위험이 각각 8%, 11% 더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HDL 수치가 높으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독성 단백질-아밀로이드베타의 순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아밀로이드베타는 뇌에 존재하는 평범한 단백질인데, 노화로 뭉쳐져 신경세포에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면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DL 수치가 높으면 뇌와 척수액 속 치매 유발 단백질들이 보다빠르게 순환하면서 치매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또 HDL은 인지 장애가 시작되기 전 뇌 시스템에 윤활유와 같은역할을 하며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다.

하지수 기자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잇몸 건강, '윈플렉스'로 챙기세요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지난 7월 발매한 잇몸 건강 치약 '윈플렉스(사진)'가 발매 후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잇몸 건강 치약은 제약회사가 만든 잇몸에 좋은 약효 성분이 함유돼 잇몸 관리에 특화된 치약을 의미한다. 하지 만 잇몸 관리뿐 아니라 충치 예방, 구 취·치태 제거 효능도 있어 일반 치약 대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잇몸 질환, 당뇨 등 전신 질환 과 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2021년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 따르면, 1위가 잇몸병(2022년은 코로나19 에 이어 2위)일 정도로 잇몸 질환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 장많이 경험하는 질환 중하나다. 당뇨, 심장·뇌혈관·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전 신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만큼 사전 관 리와 철저한 예방이 필수다. 특히 잇몸 건강은 저작 기능을 통한 음식물 섭취 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영양 관리 를 위해서도 잇몸 관리는 중요하다.

실제로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잇몸 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 높아져 4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 4명이 경험하고 있다. 또한 충치의 경우도 40대 이상 10명 중 3명에게서 발견되고, 구강건조증에 의한 구취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0대 이상이 되면 잇몸 관리와 함께 충치 및 구 취 관리가 꼭 필요하다. 특히 잇몸 병 자체로 그치는 것보다 고혈당· 당뇨, 만성 스트레스·우울증, 심부전, 류머티즘 관절염, 신장염, 편두통 등의 전신 질환과도 관련이 있어 중장년 건 강관리에서 필수적이다.

잇몸 병과의 인과관계는 질환마다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잇몸 건강이 악화하면 잇몸이 붓고 출혈이 발생하 거나, 심한 경우 치아 탈락까지 유발해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저작 운동이 어 려워진다.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하면 소 화 작용과 영양 흡수에 방해를 받기 때 문에 전신 건강에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잇몸 관리의 목적이 단순히 잇몸 건강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동국제약 잇몸 과학 45년 기술력 담아

동국제약 윈플렉스 치약은 옥수수불 검화정량추출물(ETIZM), 몰약, 라타 니아, 카모밀레틴크, 후박추출물, 센텔 라정량추출물 등 6종의 생약 성분과 비타민이 최적의 조합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인체 적용시험을 통해 잇몸 염증뿐 아니라 치태 제거, 구취 및 백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윈플렉스 치약은 치과 전문의가 평가한 잇몸 염증연구에서 위약군 대비 치은염지수(GI)의 유의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이뿐아니라 피험자들의 잇몸 염증 개선에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위약군 대비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동국제약은 1978년 대한민국 잇몸 약 인사돌을 발매한 이후에도 잇몸 병 치료를 넘어 일상 속 잇몸 관리를 통해 잇몸 건강에 효과적인 제품 개발에 부 단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잇몸 과학 45년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치약 이 바로 잇몸 건강 치약 윈플렉스 치약 이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구강은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 섭취를 담당하는 중요 기관이며, 특히구강건강의 기본이 되는 잇몸이 건강해야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하고 영양관리도 잘할 수 있다"며 "윈플렉스 치약은단순구강관리만하는 기존 치약과달리 잇몸관리에 특화돼 있으며 충치와 구취까지 동시에 관리가 가능한제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40대이상부터는 잇몸과함께 충치, 구취등 전면적인구강관리가 필요하므로 윈플렉스 치약과 같은 잇몸 건강치약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고말했다.

윈플렉스 치약은 180g 대용량으로 출시되며,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 매처와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 국제약 소비자상담실(080-550-7575) 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류장훈기자



늘어나는 혈액암 환자, 새로운 NK세포 치료법으로 완치 희망 더 높여

인터뷰 이규형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암은 부동의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다. 그중에서도 혈액과 림프계 등에 생기는 혈액암은 오랜 세월 '불치병의 대명사'로 인식됐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진단 기술, 치료법의 발전으로 완치율과 장기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다. 걸리면 곧 죽는 병이 아닌 관리 가 능한 병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혈액 질환 명의인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규형 교수에게 혈액암의 특징과 최신 치료법에 대해 물었다. 하지수 기자

-백혈병 외에도 혈액암의 종류가 다양

"백혈병뿐 아니라 림프종, 다발성 골 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도 혈액암 에 포함된다. 이들 질환은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상은 종류별로 조금씩 다르다. 대표적으로 백혈병에 걸리면 빈혈이 생기고 멍이 잘 들수 있으며 점상출혈, 발열 등을 동반 할수있다. 림프종환자는 목주위나 겨 드랑이, 서혜부 등의 림프절이 커질 수 있다. 2주 이상 증상이 지속한다면 병원 에서 혈액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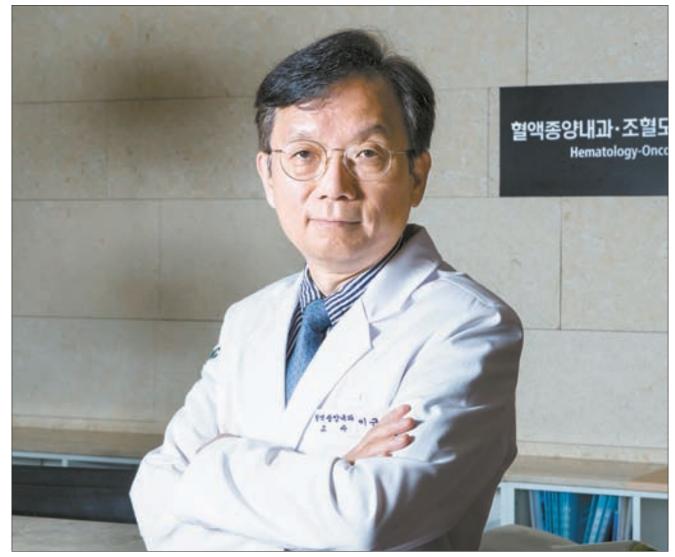
-여전히 혈액암을 불치병이라고 인식하 는 사람이 많지 않나.

"대표적인 오해다. 치료법의 발달로 현재는 혈액암 환자의 절반 정도가 완 치에 성공한다. 특히 만성 골수성 백혈 병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치료에 잘 듣는 혈액암이라 80~90%가 장기 생 존한다. 실제 지켜본 만성 골수성 백혈 병 환자 중에는 예후가 좋아 80~90세 까지 평균 수명을 다 채우는 경우도 있 었다."

-혈액암의 치료법은 다른 암과 어떻게

"혈액암일 때는 암세포가 혈액을 타 고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특정 장기 에 생긴 고형암과 달리 문제가 생긴 부 분을 제거하는 수술로 완치하기가 어 렵다. 대신 항암제 투여나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치료한다. 이때 항암제로 완 치를 먼저 시도하고 조혈모세포 이식 을 진행하게 된다. 약물치료에 민감성 이 높으면 한 달만 지나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항암제로 병을 안정화해 관해 상태로 유도한 뒤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규형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NK세포 치료 혜택을 더 많은 환자가 누릴 수 있도록 조혈모세포이식-NK세포 병합치료센터에서 연구를 지 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미연 객원기자

"과거에는 정상 세포와 암세포를 구 분하지 않고 체내 모든 세포를 파괴하 는, 즉 부작용이 심한 화학적 항암제를 사용했다. 화학적인 항암 요법은 구토, 탈모, 설사 같은 부작용을 야기했고 합 병증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상 세포를 공격하지 않아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더 높은 표

적 항암제가 다양하게 개발돼 항암 화 학 요법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T세포 와 NK(자연살해)세포를 활용한 치료 법도사용된다."

-최근 NK세포를 활용한 새 치료법을 내 놔 주목받았다.

"혈액암 중에서도 급성 골수성 백혈 병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도 병의 재발이 잦아 좋은 예후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질환에 걸린 환 자들에게 부모나 자식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한 다음 공여자의 NK세포를 추가 로 투여하면 병의 진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30개월 동 안 지켜본 결과, NK세포를 투여한 집

단의 병 진행률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 다 50% 정도 적었다. 해외에서도 비슷 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근거 수준이 높 은 무작위 대조 방식에 기반을 둔 연구 는이게 처음이다."

-NK세포에 주목한 이유가 있나.

"T세포와 NK세포는 암세포를 파 괴할 수 있는 세포들이다. 이론적으로 조혈모세포 이식 후 이들 세포를 추 가로 투여하면 백혈병 등 혈액암의 재 발을 줄일 수 있다. 다만 T세포의 경 우 조혈모세포의 중요한 합병증인 이 식편대숙주 질환(조혈모세포 이식 시 수혈된 림프구가 환자의 신체를 공격 해 간 기능 이상 등을 일으키는 질환) 을 증가시킬 수 있어 투여가 어렵다. 반면에 NK세포는 이식편대숙주 질 환을 일으키지 않고 병을 억제할 수 있다."

-이루고 싶은 장단기 목표는 뭔가.

"단기적으로는 현재 몸담은 이대목 동병원 조혈모세포이식-NK세포 병 합치료센터에서 연구를 이어나가 조혈 모세포 이식 효과를 높이는 NK세포 치료법을 더 많은 환자에게 적용하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고형암에서도 효 과적인 NK세포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환자와 그 가족에게 조언해 준다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혈액암 환 자도 증가하고 있다. 혈액암으로 진단 되면 환자와 가족은 극심한 충격과 당 혹감에 빠진다. 혈액암 치료 과정이 힘 든 건 맞지만 많은 환자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완치의 기쁨을 누린다. 다양 한 신약과 세포 치료 기법이 개발돼 환 자 치료에 적용되고 있으니 용기와 희 망을 갖고 병원, 의료진을 신뢰하면서 치료에 임하길 바란다."

≫1면 '초저출산'에서 이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구밀도 높은 단 일민족 국가(한민족 96%)인 한국에 서 욕망의 대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쏠림 현상이 심한 건 당연해 보인다. 특히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황금만능 주의가 심화하면서 사회적 가치는 물 질로 환산되고 모방과 경쟁의 대상도 단순해졌다. 중산층 기준만 보더라도 한국은 30평 아파트, 월수입 500만원,

2000cc 중형차, 예금 1억, 연 1회 해외 여행 등 모두 형이하학적이다. 경쟁자 인 숭산증 진구들 모방할 때 욕방할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외국어, 운동, 악기 연주, 특별한 요리, 약자를 돕는 봉사 활동 등 형이상학적 요소를 실 천해야 중산층에 속한다. 중산층 친 구를 모방하려면 다양하고 복잡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도 중산층에게 정정당당한 승부(fair play), 개인적

신념, 독선적이지 않음, 불법과 불의 에 대응, 약자 보호 등의 자질을 요구 한다. 점단 자본수의 국가인 미국소 과 불법에 저항, 떳떳한 자기주장, 비 나고 있다. 평지 구독 등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야 한다.

이처럼 한국과 구미 선진국은 사 회 구성원들이 욕망하는 대상이 확 연하게 차이 난다. 결과는 2023년 한 국 사회가 봉착한 세계 1위 초저출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살률 1 위, 유아 교육 광풍, 전세 사기, 영끌 투자와 투기, 수천 명의 유령 영아, 낮 차 중산층은 사회적 약자 돕기, 부정 은 행복 지수 등의 사회문제로 나타

> 욕망의 본질은 필요한 욕구나 요구 를 넘어서는 형이상학적인 심리 상태 다. 욕망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욕망 덕분에 인류는 야만의 시대를 넘어 문명사회를 열고 문화를 꽃피우며 산다. 진(眞)·선(善)·미(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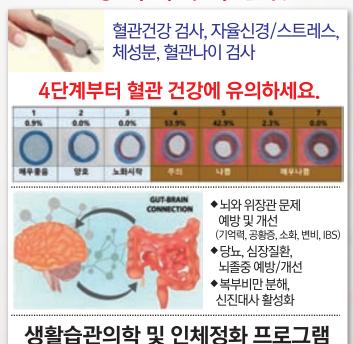
를 모방하려는 욕망을 품은 사회는 휴머니즘을 지향하기 마련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산석한 문제는 전 문학적 예산 투자 대신 지도층의 욕 망부터 형이하학적 물질에서 형이상 학적 가치로 변해야 해결될 것이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선원들을 죽음 에서 구한 캡틴 쿡이 보여줬던 지혜 로운 지도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절 이다.

황세희 암지식정보센터 진료교수

혜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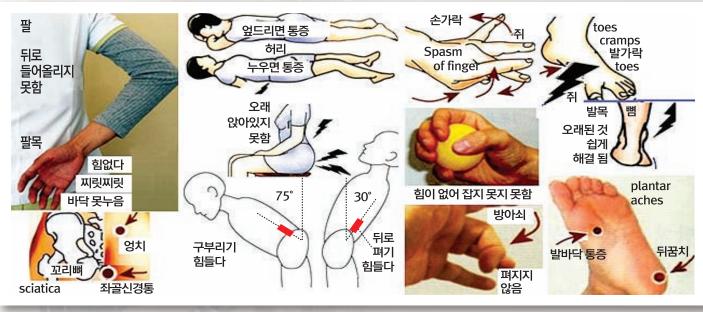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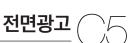


|민한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월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CORE Physical Therapy&Rehab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주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 적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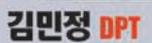
Lee Jackson Memorial Hwy.

50

28

Walney Rd.

김우기 통증•재활 물리치료



연세대학교 재황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예 한해 주말예도 진료합니다

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한눈에 보는 비타민 가이드

비타민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다. 우선, 다이어트로 균형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식단 준비가 어려운 노인 들, 건강식에는 소홀한 대신 지나친 음주를 하는 사람들, 바쁜 이민 생활 속 음식을 제때 챙겨 먹기 힘든 사람들은 하루 한 알 종합 비타민 복용을 권 장한다.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 타민A는 눈의 망막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다. 일일 권장량은 남성 900mcg, 여성 700mcg인데 일상 생활에서 흔히 섭취하는 당근, 호박, 시금치, 달걀, 우유 등에 적절히 들어있어 결핍이 드물다. 하지 만비타민A는 지용성이라 과다 복용 시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근육통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 요하다.

비타민B는 신진대사에 필요한 총 여덟 가지 성 분으로 구성된다. B1은 탄수화물을 연소시켜 에 너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B2는 세포 기능과 피부 건강 촉진, B3는 에너지 생산 촉진, B5는 탄 수화물과 지방 산화작용을 돕는다. 또한 B6는 신 경 세포에 필요한 아미노산 대사에, B7은 단백질 과 핵산 합성에 관여하며 B9과 B12는 빈혈 세포 건강에 필요한 성분이다. 시금치, 토마토, 바나나. 돼지고기, 콩, 계란, 닭고기, 버섯, 우유, 생선, 소 고기, 콩 등에 비타민 B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B1, 2, 3, 5, 6의 일일 권장량은 50mg, B7, 9, 12는 100mg이나 수용성이라 과다복용을 걱정하지 않 아도된다.

비타민C는 항산화 물질로 몸에 면역성을 높이 고 콜라겐 합성 효소를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한 다. 감기 증상이 올 때 섭취하면 회복 기간이 짧아 진다. 하루 복용 권장량은 남자 90mg, 여자 75mg 으로 수용성이라 과다 복용 시 몸에서 배출된다.



최승호 내과 전문의 LA 할리우드 차병원

오렌지, 리치, 녹색과 붉은 피망, 망고, 콜리플라 워, 브로콜리, 키위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 또 한 비타민C 크림을 피부에 바르면 기미를 줄이고 잔주름 개선과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수퍼 영양소인 비타민D는 간과 신장에 좋고 치 매 방지, 면역력 강화, 골다공증, 대장암, 당뇨 예 방에 도움을 준다. 햇볕을 쬘 때 피부를 통해 합성 되는데 주로 실내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서 비 타민D 결핍이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주치의와 상 담후최소일년에 한번혈액검사를통해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완경 여성 이나 골다공증 우려가 있거나, 비타민D가 결핍된 상태라면 하루 4000~6000IU(100~150mcg)를 복 용하고, 수치가 정상이거나 이미 비타민D를 장기 간섭취하고 있다면, 하루에 2000IU(50mcg)씩 복 용하는 것이 좋다. 단, 지용성이라 몸의 지방 세포 에 축적되기 때문에 과다 복용시 고칼혈증, 인산 혈증 등으로 혈액 순환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

비타민E는 세포 호흡, 세포막 및 적혈구를 보 호하고, 혈소판에 도움을 주는 지용성 비타민이 다. 일일 권장량은 12mg(20m IU)으로 식물성 기 름, 우유, 달걀노른자, 시금치, 아몬드, 아보카도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E는 항산화제로 서 암 예방, 면역 기능 향상에 기대가 많았으나 임 상시험 결과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 되었다.

심리 상담

외상 방치하면 스트레스 장애 발생

이번 칼럼에서는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 (Trauma and Stressor-Related Disorders)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개선되면서 최 근에는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곤 한 다. 트라우마, 외상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오는 강 력한 자극, 충격으로 나타나는 증상, 현상이다. 외상은 사람에 따라 강도, 지속기간이 다른데 일 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증 상이 악화, 지속하면 정신건강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외상에 기인한 정신의학적 장애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적응 장애(Adjustment Disorder), 집단 성 트라우마(Collective Trauma, 정신의학적 진 단명은 아니다) 등이 있다. 이들 장애 모두 극심한 외상에 노출된 후 심각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 하위유형에는 이들 외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ASD)가 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실제적이고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성폭행에 ▶직접 노 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거나 ▶가족, 친척, 친구가 겪은 것을 알게 됐을 때 나타나게 된다. 외상적 사건은 갑작스럽 고 폭력적이며 비극적, 비정상적인 것으로 교통 사고, 폭행, 학대, 지진 같은 자연재해, 재앙, 산업 재해, 전쟁 등이 포함된다.

증상은 침습(질병이나 발작의 시작) ▶부정적 기분 ▶해리(연속적인 의식의 단절) ▶회피 ▶각 성의 5개 범주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반복적, 침습적(갑자기 침범해 공격)으로 찾아오는 사건 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 ▶사건에 대한 반복적



문상웅 심리상담 전문가 (LCSW) 이웃케어클리닉

인 악몽 ▶사건이 마치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착 각 ▶이에 따른 현실감각 및 정서 반응 마비, 해리 성 반응 ▶사건을 상징하거나 비슷한 상황에 부 닥쳤을 때 나타나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현저 한 생리 반응이 있다. 또 지속해서 무기력, 무능력 한 기분이 들고 ▶본인을 다른 사람 시각에서 관 찰하거나 현실을 혼란스러워하는 기분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기 어렵거나 기억하지 못하 는 해리성 기억상실을 겪게 된다. ▶사건과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기억, 생각, 감정을 회피하려 하거 나 ▶사건에 대한 기억, 생각, 감정을 떠오르게 하 는 사람, 장소, 대화, 상황을 회피하려는 증상도 나타난다. ▶잠에 들거나 잠을 제대로 자기 힘들 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과장되게 놀라고 ▷예 민하게 반응하고 과민하게 행동하며 공격적인 반 응, 분노폭발을 하는 증상이 있다.

이들 증상 중 9가지 이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외상 노출 후 3일에서 1개월까지 지속하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는 기준이 된다. 증상이 3일 안에 사라진다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후 에도 증상이 지속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 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PTSD는 급성 스 트레스 장애로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치 료가 매우 중요하다.

〈중풍 3에서 이어집니다.〉

중풍 전조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를 해결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있어서 아 주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사람들 이 전조증상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 각하여 중풍이 왔고, 그것을 또 몇개 월 양방치료에만 의존했을 때 그 후 유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보통 한의사의 신경을 연결시켜주 는 조치를 하지 않고 중풍 발생 3개월 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생각 보다 어렵다. 그래서 수십년을 그 상 태로지내는분이 많다.

전문 한의사와 상담하고, 중풍이 막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로 인 단하기에 피를 현재 조금 더 많이 보 능이 떨어졌을 때도 심한 두통과 함 하여 check해보기를 권한다. 왔을 때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전 해위의 전조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 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해서 너무 께부정맥이 나타날수 있다.

문가와 상의해서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이 문제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길이 라 생각한다.

전조증을 다시 상기해 보면 ①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다. ②말할 때 발음이 어눌하고 무 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③멀미 하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다. ④시야 한쪽이 잘 보이지 않거나 둘로 보인 다. (5)걸을 때 휘청거리거나 한쪽으 로 치우친다. ⑥갑자기 심한 두통 등 이 있다.

심장의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잠깐 가 있다. 선소 승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빨리 _ 씩 맥박 뛰는 것이 쉬어가는 현상을

전문가 칼럼

중풍 (4)



권진열 혜민한의원

열심히 보내다 보니 발생한다고 본다. 이때 심장의 과부하를 조절하고 맥박 을 안정시키는 원격 치료하는 자리가 팔이나 손 혹은 다리에 있는데 그곳 에 침을 놓거나 지압을 통해 용이하게 해결된다.

지압점을 환자에게 알려주고 그곳 을 스스로 행하는 자가치료를 함께 병행하면 그 기간이 단축되고 부정맥 은 원만하게 해결된다.

전조증 중 ⑥갑자기 심한 두통 이 나타나는 것이 여성의 제왕절개 (C-Section) 후유증, 자궁이나 나팔

이렇게 남성 여성의 성기능 문제도 이를 해결하는 원격 치료점이 손목 이나 발목에 존재한다. 이 부분에 침 술을 행하면서, 지압을 집에서 스스 스로 하도록 병행하면 성적 문제도 해결하면서 부정맥과 두통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것을 임상에서 체험하 고있다.

이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현상만 보지 않고, 그 발생된 원인이 무엇일까를 관찰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우리 건강은 유지될 수 있다.

부정맥을 검사하는 장비도 갖추고 이런 현상은 몸자체에서 스스로 판 관문제가 있을 때, 남성은 전립선 기 있어서 이를 검사하고 싶은 분은 내원

▷ 문의: 301-922-9239

기위시킨 중앙일보

至日本道! 李巴儿是! 子时刻生

의미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Hangzhou 2022

일본기다렸다…여자핸드볼8번째금사냥

준결승서 중국에 완승, 3연패 눈앞 광저우 참패 안긴 일본과 결승

'아시아 최강' 한국 여자 핸드볼대표팀이 개최 국 중국을 꺾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 진출 했다. 대회 3연패까지는 이제 딱 한 걸음만 남겨 뒀다.

헨리크 시그넬(47·스웨덴) 감독이 이끈 한국 은 3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저장 공상대학 체 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핸드볼 4강전에서 중 국을 30-23으로 완파했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3000여명의 중국 관중 이 일제히 "자유(加油·힘내라)"를 외치며 일방 적인 응원을 펼쳤지만 에이스 류은희(33·헝가리 교리)는 씩씩하게 7골을 몰아쳤다. '캡틴' 이미경 (32·부산시설공단)은 6골, 강경민(27·광주도시공 사)도 5골을 터뜨렸다.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에서 우승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3 연패에 도전한다. 일본은 같은 날 열린 또 다른 4 강전에서 카자흐스탄을 40-22로 꺾었다. 일본과 의 결승전은 5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국 여자대표팀은 핸드볼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0 베이징 대회부터 2018 자 카르타-팔렘방 대회까지 8차례 아시안게임 중 무려 7차례나 금메달을 따냈다. 유일하게 '노골 드'에 머무른 대회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다. 당시 한국은 아시안게임 6연패를 노렸으나 준 결승에서 일본에 덜미를 잡혀 동메달에 그쳤다.

여자핸드볼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3연패를 통 해 한 단계 더 도약을 꿈꾼다. 여자핸드볼은 아시 아에서는 맹주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세계 무 대에서는 메달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다.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신화'는 옛말이다. 올림 픽에서 메달을 딴 건 15년전 2008 베이징올림픽 이 마지막이었다. 2016 리우올림픽에서는 10위,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8위에 그쳤다.



여자 핸드볼대표팀이 중국을 30-23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류은희가 7골, 이미경이 6골을 넣으며 3000여명의 중국 관중 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아시안게임 통산 여덟 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5일 결승 상대는 일본이다. 중국 수비를 뚫고 슛 을 날리는 류은희. [연합뉴스]

대표팀 주장 이미경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 번도 '우생순 신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제 는 우생순이 아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우생순'은 선수들이 열 악한 환경을 정신력으로 이겨내며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스토리다.

앞서 조별예선에서 3전 전승(조 1위)으로 가 볍게 준결승에 오른 한국은 이날도 중국을 상대 로 한 수 위 실력을 선보인 끝에 승리했다. 전반 초반 류은희의 7m 스로 2개와 강경민의 득점 등 으로 5-1까지 앞서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하 지만 곧바로 반격에 나선 중국이 전반 혼자 4골 을 넣은 진멍칭을 앞세워 추격한 탓에 한국은 전 반을 15-14로 아슬아슬하게 앞섰다. 중국은 후 반 첫 공격에서 궁레이의 득점으로 15-15 동점 을 만들었다. 그러자 중국 관중은 한목소리로 "자유(加油)"를 외쳤다. 체육관이 쩌렁쩌렁 울 릴 정도였다.

그러나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경민과 김 선화(32·대구시청)의 연속 득점으로 17-15를 만 들어 한숨을 돌렸고, 류은희가 후반 8분경 20-17, 3골 차로 달아나는 득점을 올렸다. 중국이 다 시 2골 차로 따라붙은 후반 10분에는 김선화와 김보은(26·삼척시청)이 잇달아 상대 골망을 흔 들며 승기를 굳혔다.

류은희는 "2010년 광저우 참패 현장에 있었다. 이제 그 아픔을 극복해서 다행이고 기쁘다"고 밝 혔다. 광저우 대회 이후 다시 중국에서 열린 아시 안게임에서 4강 관문을 넘어서면서 당시의 '악 몽'을 떨쳐냈다는 의미다. 그는 또 "그때 국가대 표로 뛰었던 선수가 지금은 대표팀에 저 혼자"라 며 "4강에서 일본에 졌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 에 복수할 기회가 생겼다. 일본에 더는 지지 않겠 다"고 강조했다. 이미경은 "경기에 집중하다 보 니 중국 관중의 응원 소리도 잘 안 들렸다. 반드 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항저우=피주영 기자

한국 농구 치욕의 날이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을 목표로 출항한 남녀 농구대표팀이 한꺼번에 주저앉았다.

정선민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3일 중 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일본과의 4강전에 서 외곽슛 난조로 고전한 끝에 58-81, 23점 차로

한국은 경기 초반 연속 실점하며 0-7로 출발 한 이후 좀처럼 점수 차를 좁히지 못했다. 리바운 드 싸움은 대등했지만 외곽 포가 침묵했고 상대 의 강한 압박에 실책을 연발했다. 2쿼터 들어 일 본의 위력적인 속공과 외곽슛에 연속 실점하며 33-40으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에도 10점 차 이 상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다.

여자농구 한·일전 완패, 결승행 좌절



여자 농구대표팀이 4강전에서 일본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일본 수비에 막힌 김단비(왼쪽). [연합뉴스]

를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했다. 3점슛 횟수(한국 15회, 일본 32 공 44%)에서 눈에 띄게 차이가 났다.

도쿄올림픽 은메달 주역 12명 중 7명이 합류 한 일본은 빠르고 조직적이었다. 국제농구연맹 (FIBA) 랭킹 9위(한국은 13위)이 말해주듯 내· 외곽의 조화를 앞세워 짜임새 있게 경기를 풀어 갔다. 고비마다 강력한 프레싱으로 압박했고, 거 친 플레이도 마다하지 않았다.

동메달 결정전으로 밀려난 한국의 상대팀은 중국에 44-100으로 완패한 북한이다. 아시안게

임 무대에 여자 농구가 처음 도입된 1974년 테헤 란 대회 이후 남북이 메달을 놓고 맞대결을 벌이 센터 박지수(KB국민은행)가 18점 9리바운드 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5년 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했던 한국과 북한 은 지난 29일 조별리그에서 한 차례 만났다. 당시 회)와 성공률(한국 3개 성공 20%, 일본 14개 성 18점 13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골밑을 장악한 박 지수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이 81-62로 여유 있게

> 한편 추일승 감독이 이끄는 남자대표팀은 중 국과의 8강전에서 졸전 끝에 70-84, 14점 차로 완 패했다. 지난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9년 만의 정 상 탈환을 목표로 나선 추일승호는 2006년 도하 대회 이후 17년 만에 노메달에 그치며 고개를 숙 였다. 4일 이란을 상대로 순위 결정전에 나선다.

> > 항저우=피주영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원장**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차이나 오래가는 임플란트"

Root Canal

잇몸지료 - 지아교정 Implant Periodontal Orthodontics

Veneer

Surgery Invisalign - 치이성형

* invisalign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T. 703-652-4265

natura dent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타이슨스 코너 (C) DC Eye Clinic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져 치료경력

ⓒ 진료과목

응급환자

Emergency

백내장 레이저 수술

안구 건조중 치료 Dry Eyes Therap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Glaucomal Laser and Surgery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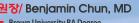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mark>갂</mark>종 보험 적용 됩니다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 Brown University BA Degree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 MD Degree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Participa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ly Medical Columnist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28억원.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SNS(소 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캘빈클라인 관련 게 시물 하나의 평가 가치다. 미국의 마케팅 플랫 폼 론치메트릭스가 인플루언서의 소셜미디어 영 향력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지표(MIV·Media Impact Value)에 따르면, 글로벌 패션 브랜드 캘 빈클라인은 제니와의 콜라보캠페인으로 6800만 달러(약 90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제니는 K팝 스타를 넘어 'K인플루언서'로서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이미 유통 시장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한 축이 됐다. 인플루언서들의 게시 물 하나 하나가 광고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4 일 트렌드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제품 구매 시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받는 소비자가 전체 인 구의 71.4%(약 3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에 따르 면 지난해 한국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는 4600 만 명으로 집계된다. 국민의 대다수가 SNS 마케 팅에 노출돼있는 셈이다. 기존 미디어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SNS 플랫폼을 활용 해 인플루언서 반열에 오르기 쉬워졌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 (MCN·Multi Channel Network) 회사들도 생겨

전 세계적으로도 인플루언서 산업은 급성장하 는 추세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전 세계 인플루언서 마케팅 금액 규모는 2016년 17억 달러에서 2023년 211억 달러로 7년새 12.4배 성장했다. 또지난 2월 전세계 마케팅 대행 사 등 관계자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 체 마케팅 예산의 40% 이상을 인플루언서 마케 팅에 지출하는 기업 비중이 23%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에 따르 면 미국의 소셜커머스(SNS를 통한 제품 구매) 시 장 규모는 2022년 457억 달러(60조5000억원)에서 2025년 796억 달러(105조4000억원)로 2배 가까이 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마케팅 플랫

폼 나스미디어에 따르면 한국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 규모 역시 2022년 6조원에서 2025년 28조원 규모로 5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도 국내외 '메가 인플루언서'를 활 용한 수출 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경 대한민국인플루언서협회장(IT정 책경영학 박사)은 "인플루언서 한 명이 1시간에 수십억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기업 들은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K푸드·K 뷰티 등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 는 만큼 해외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제품 을 판매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적인 뒷받침 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환 국민대 경영정보 학부 교수(인플루언서 산업연구원장)는 "수출기 업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잘 활용한다면 향후 5년간 누적 경제효과는 최소 3조원 이상일 것"이 라고 분석했다.

다만 인플루언서들의 구독자·팔로워수 조작이 나 기업들의 허위상품 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를 방지하는 건 개선해야 할 과제다. 알 수 없는 이 유로 계정을 차단하고 풀어주지 않는 소위 플랫 폼 '갑질'에 인플루언서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경희 기자

"제주와 완도 사이에 위치한 여서도는 내가 '한국의 이스터섬'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한국의 섬 중 돌담문화가 가장 완벽하게 보존돼 있는 곳이에요. 300년 역사의 돌담이 2km 길이로 성곽처럼 둘 러 있는 풍경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하 죠. 큰 바다를 마주한 섬이라 바람이 정 말 거세서 이렇게 높게 돌담을 쌓지 않 으면 밭작물 키우기는커녕 기본적인 생 활도할수없었으니까…. 섬마을 사람 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현장인 거죠."

'백섬백길' 사진전에서 만난 '섬연구 소' 강제윤소장의 말이다. 그가 보여준 휴대폰 속 작은 사진만으로도 돌담 풍 경은 보는 이를 압도한다. 망망대해 속 작은 섬에 이런 풍경이 숨겨져 있다니! 강 소장에게도 이 돌담은 특별하다. 완 도에서 하루 한 번뿐인 여객선으로 세 시간을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여서도 에 이런 놀라운 풍경이 숨어 있다고 세 상에 알린 이도, 도로공사로 인해 돌담 일부가 파괴될 것을 막아낸 이도 강소 장이다.

"오래 전부터 여서도 돌담의 가치에 주목했는데 섬의 몇몇 주민이 폐교를 펜션으로 만들면서 돌담 일부 구간을 허물고 도로를 낼 계획이라는 걸 알고 돌담 지키기 운동을 시작했죠. 당시 전 남지사로 재직했던 이낙연 전 국무총 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민들을 설득할 시간을 얻었어요. 마을총회에서 불편 함을 감수하고라도 돌담을 지키기로 결

300년 역사 2km 돌담, 아름다운 그 섬에 가고 싶다



갤러리 류가헌에서 열리고 있는 강제윤 소장의 사진전. 소금을 삼킨 듯 짠하면서도,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활기찬 풍경이 펼쳐진다. 김상선 기자

의가 됐고, 그결과 여서도의 이 아름답 고 진귀한 풍경은 보존될 수 있었죠. 제 이야기를 들은 임순례 감독이 영화 '남 쪽으로튀어라'를촬영하기도했죠."

서울 청운동에 위치한 갤러리 류가 헌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 리는 '백섬백길' 사진전은 지난 20여 년 간 강 소장이 직접 섬들을 답사하고 기 록해 온 아카이빙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다. '울릉도 삼선암 바위'처럼 회화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신안 선 도'에선 겨울에도 얼지 않는 모래땅에 서 대파를 키우는 아주머니들의 활기 찬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사진전은 최근 오픈한 '백섬백 길(100seom.com)' 사이트를 소개하는 자리기도 해요. 제주 올레길이 인기를 얻은 후 지자체들이 앞 다퉈 섬마다 길 을 만들었는데 극히 일부만 인기를 얻 었을 뿐, 대다수는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어요. 버려진 섬길을 되살려서 섬 관 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백섬 백길'사이트를 구축했죠. 걷기 좋고 경 치가 수려한 섬길 100개를 선정해 섬의 역사와 문화유산은 물론 섬의 특징적 인 풍경과 교통편 등 다양한 정보를 모 아놓은 곳이에요. 섬사람들에게는 새 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사람들에

게는 미지로의 여행을 선물하는 게 섬 연구소와 저의 바람이죠."

시인이자 사진가인 강 소장은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섬을 유랑해 온 나 그네이자 '섬 활동가'다.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으로 옥살이까지 하면서 청 년시절을 격렬하게 보낸 그가 고향인 보길도로 다시 돌아온 건 1998년. 농사 를 지으며 조용히 보낼 생각으로 고향 을 찾았지만 그에게 쉴 팔자는 없나 보 다. 보길도 한가운데를 지나는 사행하 천(뱀처럼 구불구불 흐르는 형태의 하 천)을 변경시켜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나타났다. 오래된 숲과 하천의 자연·문화유산을 파괴하려는 개발업 자들과 이를 비호하는 정치세력과 맞 서 싸우기 위해 그는 33일간 단식투쟁 을 벌인 끝에 하천을 지켜냈다. 섬의 가 치를 발견하고 기록해야겠다고 맘 먹 은 건 이 일이 있은 후다. 그는 전국의 유인도 답사를 시작했다.

"한국은 섬의 나라에요. 3면의 바다 에 4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 죠. 우리 해상영토는 육상영토보다 4.5 배나 커요. 하지만 1980년에 987개였던 유인도가 지금은 463개밖에 남지 않았 어요. 국가가, 사회가 지켜주지 않으니 섬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결국 섬 을떠날수밖에요."

좀더 본격적으로 섬의 고유한 가치와 섬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12 년 '섬 학교'를 개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지원자들과 함께 섬 여행을 떠났다(지 난해까지 100회의 섬 여행이 진행됐다). 2015년에는 사단법인 '섬연구소'도 설립 했다. 정부의 도움 없이 뜻을 같이하는 이들의 노력으로만 일군 결과다.

강 소장이 섬과 관련해 지은 저서는 『섬택리지』『신안』『섬을 걷다 1,2』 『통 영은 맛있다』 외 다수인데, 지난 21일 에는 『날마다 섬 밥상』을 출간했다. 지 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밥 먹고 가라" 고 밥상을 차려주던 섬사람들의 인심 과 함께 24개의 섬 밥상과 25개의 섬 음 식을 소개한 책이다. "사실 육지는 이제 어디를 가나 서울 맛이죠. 그런데 섬은 아직도 고립돼 있어서 옛날 맛이 그대 로 보존돼 있어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최고의 음식들이 남아 있죠. 우리가 잃 어버린 음식의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이

해녀 밥상에서 공동체 밥상까지, 메 밀냉면에서 낙지호롱까지, 밥상과 음식 에 담긴 사람과 사연도 가지각색이다. 촘촘하게 곁들인 사진마다 둘러싼 사 람들의 이야기가 감칠맛을 더한다. 바 다 먹거리의 보고인 섬에서 나는 음식 이, 섬사람들이 차린 밥상이 얼마나의 미 있는 문화 유산인지, 지구의 미래 먹 거리로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보 여주는 귀한 기록이다. 서정민 기자





[손질민물장어 5packs] 1팩12oz+2팩10oz+2팩8oz

살이 도톰하고 담백, 쫄깃한 가을 제철, 청정 유럽산 장어

기력보강, 장수, 건강회복 & 피부미용 도움 **\$143 \$99 99**



초경량! 얇고 탄탄한 등판, 스타일리시&고급스런 디자인

바른자세가 습관이 되도록! 등이 펴지면 인생이 펴진다! 리비스타 **교정 어깨 밸런**

사이즈: S,M,L,XL (아이들도 착용 가능)

*90- ***70**





구강정착력이 높으며 치아에 영향이 적은 진짜 특허 구강유산균

구강유산균 **오라틱스 그린**트

1팩+1팩 **무료**

\$33

2팩+2팩 무료

\$59



ABC 황금비율(사과3:비트1:당근3)의 저분자 피쉬콜라겐

스틱젤리 타입으로 간편하게 휴대·섭취/ 하루 1포로 디톡스!

EROM **이름 ABC 뷰티**

2+1 이벤트

Buy2 Get1 Free

*210 *140



단 3초면 염색준비 끝! 흔들어 빗기만 하면 간단 완성!

셀프 브러시형 버블 염색약(Black, DarkBrown, LightBrown)

RUSH 비비러시 브러시형 염색약

본품+리필1

\$45

본품+리필2

\$60



선크림 유목민 정착템! 빛나는 피부표현의 시작!

생기톤업, No백탁, No다크닝, 저자극 3중기능성 선크림

헤라UV 프로텍터 톤업 50ml

1개 *32

\$55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홈쇼핑

213.368.2611

가게/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 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703.825.2945

카 툰 릴 레 이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애완용**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메가쑈킹** · 손준혁 · 장우혁

증권회사에 다니는 마영성씨...



그러던 어느날.. 미영씨는

너무 몸이 아파서 결국

결근을 하게 되는데...

하아~

하루정도

쉬다보면

낫겠지.

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김미영씨를 짝사랑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문안을 가는 마영성씨



















잠시후.. 다른 음식을

사들고 다시 미영씨의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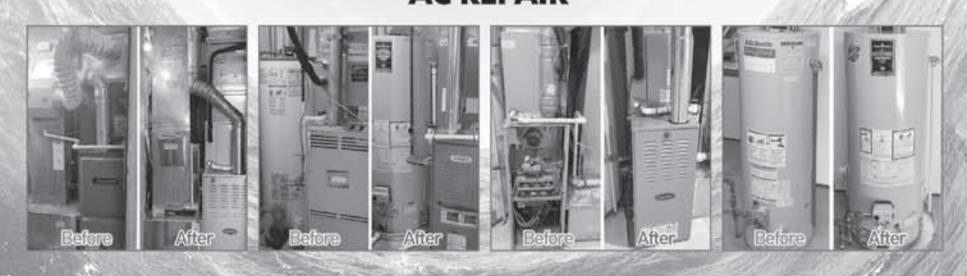
HOT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LENNOX)



Carrier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ANNY | Runiversal 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소자본 비지니스 하실분

시대에 맞추어 살론 몰에서 살론 비즈니스를 소자본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넉넉한 장소안에 개인용 살론 부스를 마련, 1~2명이 작업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제공되며 의 개인 열쇠와 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살론 공간은 원하는 대로 배치와 설치, 페인트 색도 바꿀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위치 (리치몬드 하이웨이 선상) 무료 주차 공간 및 고소득 소비자 지역

>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잘 꾸며진 욕실/복도/응접실 완비! (고객들이 편하게 기다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주당 \$325(유포) / 청소는 각자 / 보증금 \$2,000 환불가능! 총 \$3,000 미만으로 자영업을 신속하게 개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문의 **703-867-5919** www.EdgeSalonStudios.com

Companies

모집부서 인사, 영업, 행정, 시설관리, 물류센터

Herndon, VA 위치 Upper Marlboro, MD

자격요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401K, 회사 리조트, 스폰서쉽 베네핏 보험, 유급휴가 / 병가,

Smart Card, Life Insurance 등

지원방법 이메일

■ 이력서: aaron.kim@hmart.com

■ 문 의: 240-546-0600 ext 222

<u>Edge</u>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3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OTTE Glaza 롯데플라자

롯데플라자 스털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jumbo.food@gmail.com 전화: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FOR SALE

🗩 (사업체 판매) 🛞

Woo Tire Co.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단골 손님 500여 명 타이어 1본 판매 65% 마진 장비 10여 만불 보유

영업시간: 9am ~ 4pm (5½day) Rent/월: \$2,000 (면적 3,000 sf.)

코웨이 DC 지점

- 🌢 정규직 (Full Time) 직원 출 콜센터 업무(고객응대)
- 출 초보자 가능
- ♠ 유급휴가 / 401K 지원 건강보험 (Dental, Vision 포함)
-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이메일 또는 전화로 면접 및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v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센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П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덴탈 어시스턴트 구합니다.

- 파트타임(월/화/수/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 분

연봉 5만(현지 이주,업무교육 후)

펜스테이트대학 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풍부) 영주권 스폰 협의 가능

.316.6754 (Don) 문자로 먼저 연락 주세요.

Diamond Nails Spa (Vienna VA 소재)

► Sale Price: \$290,000

- ▶ Weekly's Sales: \$6,300 (평균)
-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 SQF, 1층, 2층)
- ▶ 원하시면 건물 매매 가능.
-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 파트너십으로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비 동결)
- ▶ 노던 버지니아의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
- 주 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연락처: 571-421-086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① 위성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스마트보험에서 역량있는 P&C Specialist 인재를 모십니다. *신입환영/경력자우대 *401K / 그룹건강보험 / PTO *H1B/영주권스폰가능 HR 담당자: 703-639-0882

▶smartacct@solomonus.com

케어피플 홈헬스 오피스 풀타임 직원모집 센터빌HR부서/애난데일Billing부서

각1명(컴퓨터, 영어필수)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페어팩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보험사무직 풀/파타임 이중언어 유경험대우베네핏제공\$4만이상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Fairfax 풀/파타임이중언어베네핏제공 보험에이전트유경험45k-50k

coverworldgr@gmail.com **▶**571-232-0702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콜센터업무(고객응대).초보자가능 한국어 및 영어 가능자 유급휴가, 건강보험 (Dental, Vision 포함), 401K 지원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WBS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Credit Card Terminals, POS 경험자.

업계 최고 대우,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 info@worldbankcard.net.

L&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703-534-4989

아난데일부동산회사-리셉셔니스트구함. Megarealty@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 3년이상회계업무경험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구함 스폰서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사무직구함. 703-946-8557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영어&한국어/MS Office -SEPIRA/Paid Vacation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스패니쉬)가능한유,무경험자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luvacct1986@gmail.com

유재신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등) 영주권스펀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총국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뉴스용보도촬영및기타 -지원자격:신입및경력.

-미국취업에 결격사유 없는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CUSTOMER SERVICE, 전산부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경험자 우대합니다. 703-712-7089

Personal Injury firm in Fairfax City is seeking a full-time legal assistant. Please email resume to:

Cyoon@davidmarkslaw.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v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저희사무실과 동반성장을 원하 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MD 게이더스버그 달라스토어구인 매장스탁, 매장관리풀타임, 파트타임시간조절가능 buyandsave9661@gmail.com 443-812-1087(텍스트)

Seeking Full Time / P&C Licensed & Experienced

-Assistant Manager

-\$70,000/yr

- Paid Vacation & Retirement Plan Requested contact from Eligible candidates only: ioshuaoh123@gmail.com 703-973-5900

공인회계 사무실 구인 Full & Part time 직원구함 Benefit 있음. 영주권스펀서가능. Email:wjkim0111@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택스시즌, 토요일근무 가능한 파타임인턴모집. 무경험ok. \$13-15/h. 간단한이력서 cpaoffice1212@gmail.com

보험회사 직원 구인 (Annandale) -Full/part time -컴퓨터/영어필수 -유급휴가, 은퇴연금, 월-금

연락처gpark@withcornerstone.com 301-237-8782

CPA 또는 EA 자격 우대/유경험자 우대,

애난데일/센터빌 회계사무실

이중언어구사자 이력서:hr@yicompany.com 문의: (703)345-9594 Financial services

NEST Energy LED Sales(영업)사원구함. 성실히 함께하실 분 환영. 최고의 우대 시장전망높은성장가도를 달리는시장. E-mail: nestenergy@yahoo.com Mob. (703) 855 - 3565 Ph. (703)712-7162

패어팩스지역AGM사무직/풀타임 쾌적한사무실환경/주5일근무

-이중언어(한국어/영어)우대

- MS Office (Word, Excel 사용가능자)

-각종혜택401(k) PSP & Group Benefit

- Paid Holidays & Vacations

- 영문 이력서 / HR@agminstitute.org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나투라치과 덴탈 어시스턴트구합니다. 파트타임월/화/수/금, 영어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 Resume to:naturadent@gmail.com

MD 베데스다 한방병원 바디/페이셜마사지사 월도프지역도넛가게에서

낮시간대함께일할여자분구합니다.

▶301-609-0432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전문치과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첨부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가능(월-토). 시간당\$50-60가능합니다. 이력서: gofcrc@gmail.com

병원에서 일하실분

Catonsville/SilverSprings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우대 Manager (Fulltime) Receptionist (Fulltime)

*Vacation/Sick/Holidays *Medical Insurance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패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오후 2:00 PM-8:30 PM / 화금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옵션(10 AM-4PM)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요구됨 일할수있는신분/무경험, 학생도환영 전화: 703-539-8822

닥터 오피스 프론트일 하실 성실하신 분 영어 한국어 모두 구사 가능하신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 분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9AM to 5PM resume slim@gastrohealth.com 703-642-0900

페어팩스 성형외과 리셉션니스트구함 이중언어, 풀/파트타임월-금. 베네핏: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초보추레이닝,유경험자우대. 이력서제출: anyosupa@yahoo.com 703-981-6491 문자요망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 금요일 Nurse Practitioner와 리셉션니스트 풀/파트타임구함 703-505-0204

메릴랜드 치기공 구인 세라믹파트 경력자 & 딜리버리 기사 구인 240-477-5683

치과 직원 구함 경력직풀/파트 어씨스턴드1명,경력직리셉션1명 Resume email: govaepic@gmail.com 703-574-0528

닥터 오피스에서 오래 일하실 분 락빌/콜롬비아/센터빌 파트타임,풀타임,이중언어 301-580-5777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센터빌, 첸틀리 물리치료병원 Receptionist / 한국어, 영어 필요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치주 임플란트 전문 치과병원 풀/파트어시스턴트1명/리셉션1명 경력직우대/초보자교육가능 이메일: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오피스 직원구함

센터빌지역, Full/Partime /한/영가능 Dental Assistant/Front desk centrevilledentalcare@yahoo.com 703-830-9990

치과 어시스트 / 리셉셔니스트 구함 Bilingual (Fluent in English) Full Time/Part Time available Rockville, Gaithersburg Area 301-926-9692

>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Tel. 703-281-9660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구함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 이주,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함께취업시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스폰 협의가능, DON 문자주세요!

식당 동업자 구함 한식 주방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하며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주실 분!!!

▶202-553-8551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이사 ▶571-839-1647

▶703-573-6300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Global Food VA 매장 구인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설 수퍼마켓 정육부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호스트/호스테스 월~일저녁

(저녁 5:00PM 시작) -Server 월~금5일점심 (점심 11:30AM-3:30PM) 시간당\$20불보장

▶703-517-6439

443-953-1127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 구인 전산부및 RECEIVING 직원을 모집. 경험자우대. accounting@kmarketusa.com

▶703-712-7089 스프링필드 막창도둑 서버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 맡아주실분 구합 니다 영주권스폰도 해드림니다.

문의사항 (703-473-6022) 연락주세요.

챈틀리 Cafe Moment에서 금토오후파트타임구합니다. 703-376-8090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애난데일 중심지 한식당

한식 주방 경험자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 분

문의

202-553-8551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SHADY GROVE BARBER & BEAUTY



남/여 머리하시는 분 모십니다!

9049 Gaither Rd. Gaithersburg, MD 20877

301-926-3638 301-538-4246(\$00)

(NLIO케이 용도주백) 덴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 Agent 환영

703-244-345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_{1}\Delta$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는무료게재,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중앙일보

메릴랜드 락빌, 베이커리&버블티 같이 일하실분.파타임, 풀타임 703-717-2596

아침캐시어구합니다. 높은페이, 시간조절. 443-621-4951

스프링필드 버지니아 막창도둑 코리안 bbq 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 443-953-1127

Elkridge Deli 풀/파트타임 여자분 구함 410-979-9211

델리에서 점심시간도와주실분 타이슨스코너지역 703-867-9374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일할홀 담당하 실분 찾습니다 hour pay \$12불 plus tip 시간 11시-8시반까지 703-473-6022

오피스델리그릴센드위치싸실분경험자우 대. 풀타임(07:00-15:00) 위치:스프링필드 매트로옆오피스단지 703-740-7344

케리아웃에서 함께일하실 분센터빌에서 가까움, 유/무 경험자, 파트/풀타임 703-955-6962

챈틸리 소재일식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실 스시맨,스시보조 파타임 구함. 센터빌, 챈틸리, 헌돈 거주하시는 분 환영. 703-980-3076

센터빌 중식당 서버구함 풀/파트 타임시간조정 가능 703-300-7218

오피스 델리에서 일하실 분 베데스다 전철역 부근 7AM~3:30 PM 301-785-4706

첸틀리 지역 식당 캐쉬어 구함 \$15 / Hour 수,목,금,토,일(5일11시 - 8시반) **703-341-7912**

애난데일누리치킨에서 주말에일하실직원 구함. 학생환영 703-989-9828

센터빌지역, 베이커리에서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 분. 주말알바, 주중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모두 가능

703-414-9000

703-395-4380

443-621-4951

락빌정부건물안카페, 월-금 그릴샌드위치하실분6:30am-3:00pm

볼티모어 한아름에서 가까운 캐리아웃에서 아침에 캐시어 보실분 구함. 시간조절가능 19불. 캐튼스빌에서 10분거리

센터빌지역,베이커리 제빵사와홀에서일하실분구합니다 주말알바,주중알바,풀타임,파트타임 703-772-1800

엘리콧시티롯데안일식당 lkkyu에서 같이일하실분구합니다. 영주권스폰가능 410 -203 -9919 매나세스 코스코 앞 아이스크림가게 주말주중/풀,파타임 캐셔 구함 703-463-4004

샌터빌 베이커리카페에서 바리스타,캐쉬어,키친팀을구합니다. 703-810-9318

일식당파트타임 일요일휴무 Oakton 571-505-4572

델리그릴 /콜드 샌드위치유경험자구함 Mon~Fri 7am~3pm시간조절가능 WOW Deli, Gaithersburg, MD 301-990-3254 / 571-232-7717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일식당에서 스시 또는 스시핼퍼 구함 540-735-5873 (메세지 요망)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첸틀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을 원하는 미용사구함. 571-215-6767 (메세지 남겨주세요)

아난데일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파타임 가능) 헬퍼하실분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마사지,지압하실분을구합니다. 571-237-3411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커미션이나 부스렌트 원하시는 미용사 구합니다. 정확한 위치와 자세한 내용 전화/문자 요망 571-215-6757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 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첸틀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 개인 비지니스 원하는 미용사 구함. (메세지 남겨주세요) 571-215-6767

Stafford에 있는 이발소 경력있는 이발사 매니저를 구합니다 571-278-3701

알렉산드리아지역이발사구합니다. 703-408-1119

애난데일해와달미용실 헤어디자이너 /리셉션리스트(파타임가능) 703-750-2424 메세지남겨주세요! 703-717-8256

샘스바버(롤톤)기술 배우면서 일하실 분 703-781-8458

〈세탁/얼터레이션〉

카운터보면서 바느질하실분. 파타임,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지역세탁소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엘리콧시티픽업스토어 바느질하는분. 9-6 목금토. 410-926-3200

Alteration 하실분 Lorton VA 703-599-5331

버지니아패어팩스지역세탁소 올터레이션&캐쉬어,재킷프레서구함 301-404-0701

셔츠,바지다리실분주3일 Upper marlboro (largo) MD 703-850-3714

세탁소카운터구합니다. Stafford VA 파트타임 or 풀타임 703-618-9872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구함! ▶240-246-4477

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쳐지 지역

703-577-5866 자동차 정비 / 헬퍼 경험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

703-266-1983

첸틀리자동차정비소성실히일하실분모집 메케닉,준메케닉,헬퍼구함.

엘리콧시티자동차정비소 함께성실히일하실분을모십니다. 메케닉, 영주권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조지아한인타운 둘루스에 위치한 자동차정비소 에서 정비사(경력자)구함 678-417-1567 문자요망 678-557-1567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가게 맡아하 실분환영. 영주권스폰서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EV Electric Co. 차,베네펫,전기기술자,무경험가능 973-997-5805/ 정

Mill Work Installer 구합니다 케비넷 & Pennel (wood work) 헬퍼및 기술자구함 (몽고인 환영) 571-233-7982 리모델링 과토치누핑 잘하시는 목수구함. 443-542-1200

유경험 플러밍, 파트타임,하이페이 703-625-0082

가구와캐비넷 공장에서 일할분 Stain & Paint Finish Worker, 안정된수입, 성실한분. www.hdplusinc.com 703-859-2499

집수리에 관한모든 일 (리모델링/수리/덱) 20년 경력의 핸디맨이 작은일도 확실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상담 환영) 571-531-1019

〈기타구인/구직〉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조건의연봉과베네핏 -유급휴일과유급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매릴랜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곳: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맥클린한국학교 교사모집 (유치부,초등부)토요일 /9:30~12:30 autumn379@gmail.com ▶571-235-8997 /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초빙 초빙부서: 미용학과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센스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빌딩청소하실분 파타임 남여1명 장소칼레지팍 MD 경험자우대 703-725-1233

메릴랜드에서 입주하셔서 아이 셋과 가사일 도와주실분 구함. 운전 필수 연락처 301-257-1787

통역서비스친절히도와드립니다. 관공서서류대행,심부름대행,퍼및대행, 이민국인터뷰,병원,카운티,DMV,등 차없으신분라이드가능 703-939-2737

어시스트 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경험자 우대. 숙식하실분. 410-961-3012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하실 분을 모십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703-505-5211

에쉬번지역 9개월 아기 일주일에 2일 봐주실분. 571-438-140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첸틀리 지역 밤에 청소하실 부부팀 원함 443-966-5196 가구장사하실분연락바랍니다 571 -274 -5264

마이클 임 703-665-2162

수퍼맥스(스털링,버지니아) 웨어하우스에서 Seafood및 Supply 구매하실분모집.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인쇄달력회사/마케팅을 함께할직원구함 571- 242-3736

Part time Tysons Corner/Great Falls, VA 애들등교, 하교도와주고 간단한식사 도와주실분전화주세요. 운전필수.

빌딩청소및잡일 월-토(7AM-12PM) 위치:Oxon Hill, MD **240-903-0777**



917-886-1884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타운하우스 비엔나 \$3,400. 방3, 화3. 1/2 차고 2. Walkout Basement. End Unit. Updated Kitchen, Fenced Backyard. 나 무마루. Deck. 메트로역 바로앞. 즉시입주!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 -95와RT1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조경의큰땅, 전체리모델한저택
- -1,2층각자의계단없는출입문
- 두층각자풀키친과세탁장 -12베드룸,6풀베스,
- (1+2층 7베드, 4베스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 *Agent 환영 ▶703-244-3453

1.센터빌싱글홈\$2,600/mo 가라지방4화3.쇼핑몰,교통편리 2.페어펙스타운홈\$3,000.방3화3 차고.페어레이크쇼핑몰에서1분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3,000 방3,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에쉬번 방4개화 3개 벽돌 타운홈 학군 좋음 2015년 집. 쇼핑몰에서 1분거리. 267에서 1분거리 202-743-8886

벤돈메트로옆타운홈 \$2,850 방3,화21/2,차고2,새부엌, 새냉장고,전체새페인트 703-489-6926

게인스빌타운홈, 방 3, 화4,1952sqft, 2 차고, 2018년, 엔드유닛 창 많은 타운홈 703-762-675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202-553-8551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66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9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는무료게재,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센터빌H마트2~3분거리,타운홈 방4,화장실4,차고2 571-882-4473

매나사스코스코근처 방3, 화2, \$1900 New paint, dishwash, range, air conditioner, 즉시 입주 가능 646-419-0022

Fairfax, 방3+다락방, 화장실2 Oakton HS, \$2500 703-585-4183

센터빌타운홈 \$2,950 방3,화2.5 쇼핑몰&한국마켓 도보 3분 925-900-3918

Centreville Town Home 6401 McCov RD, Centreville, VA 20121 Rent - \$2,400, 방4, 화장실3 Basement,지하출입문별도 571-245-1495

센터빌 3층,엔드유닛 타운홈 \$2,700 방3,화3.5,차고1개,덱 많이업데이트된밝고환한집 703-489-6926

〈콘도 렌트〉

콘도(Alexandria) \$2,600 / 즉시 입주 가능. 방2, 화2, Elevator, 5층, 최고급콘도, 나무마루,리모델부엌&화장실, Alexandria 다운타운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2005년 새콘도(Fairfax) \$2,100/m 방2, 화장실1, Metro 역 걸어감.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SS Appliances & Granite Counter Tops, Washer & Dryer ▶703-477-3114

콘도(Annandale)\$2,100/m 방2,화2,넓은리빙룸,숲이보이는넓은발코 니.Washer&Dryer.H-Mart가까운동네. ▶703-477-3114

10월 1일/초순경ANNANDALE의콘도 같이 입주할분(남녀독신불문). 비흡연자/비음주자/비마약자선호. 직장인/자영업자/은퇴자환영. 본인: 전문직 종사자임. 571-390-3989(문자로만 연락바람)

헤이마켓콘도 차고1,방3,화2/1,2215sq

703-489-6926

애난데일방2,화1,렌트\$1600,전기요금별도 703-403-8918

Falls Church Condo 렌트 방 2, Metro / 66 도로 모두 갖추어진 깨끗한 집, 렌트(\$1550+condofee) 703-336-3283

콘도(단기렌트) 방2, 화장실 2개, 가구일체 사용가능 수영장, 탁구, 테니스, 골프 18홀 301-466-1888

〈방렌트〉

설악가든근처, 잠만주무실분 방1,화1,금연자 (571)243-6295

실버스프링, 넓고조용한싱글홈아래층 원룸스타일 취사가능. 인터넷 출입문 별도 240-543-6427

지하방깨끗한집즉시입주가능 볼티모어 UMBC 가까운 곳 443-240-7606

즉시입주, 애난데일 H-mart 근처 콘도, 아주조용하고, 깨끗하고, 편리한동네, 독신남녀환영. 완전 취사가능. 가구완비. 이름 & 이사날짜, 문자로만 571-251-0354

페어펙스 비엔나 전철 근처 원룸식 방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버크싱글홈 반지하전체 별도출입문, 방, 거실, 욕실, 키친, 세탁실, 인터넷,유포, 금연 남자직장인 및 학생환영 571-216-4775

아난데일방 1 H-Mart 옆, 인터넷, 가구, 유포. 낮에 일하는 남자 금연자. 즉시 입주가능 703-350-1986

Fairfax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방 1개 \$600 방 2개 \$1000, 여자분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터넷, \$600 여자분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타운홈지하방.화장실,샤워룸,리빙룸, 키친세탁룸, 단독 아파트 처럼 사용가능 페어랙 Walmart 근처 문의: 571 217-2224(Mr Kim)

원룸스타일.욕실,키친,침대,책상,옷장.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571-232-6052

방세놓음,개인집방1개욕실샤워별도 엘리컷시티롯데 8분 301-326-5303/702-622-8853

애난데일예촌 앞방세 놓습니다. 2층방2개,워크아웃1개 772-529-8675

버크월마트도보로 5분. 깨끗하고환한타운하우스 1층. 방1, 화1,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싱크, 옷장, 식탁) 워크 아웃, 주차 가능. 여성분(학생 환영) 202-505-0678

495,395 5분 거리교통 편리한 스프링휠드지하방세 놓습니다 703-898-2696 메시지 부탁합니다

애난데일싱글아래층.노바,GMU,495,6분 침대가구 취사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넓고조용한단독주택 아래층. 출입문 별도 간단한취사가능, 넓은방, 거실쓰실 분 실버스프링 한아름, 롯데 10분거리 240-543-6427

Annandale 방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private bathroom) 여자분환영. 문자보내주세요. 문의: 571-345-8879

센터빌싱글지하방2,거실,조용,주방,세탁, 출입별도, 주차, 즉시입주, 남학생, 직장인 환영 703-336-7631

단독주택2층방/주차가능/안테넷/ 가구완비/냉장고별도/여자분환영/ MD Burtonsville, 29번과198번 만나는지점 240-413-2728

BURKE Townhouse. 깨끗하고 환한 1층. 방1,욕실1,간단한취사,주차가능 냉장고, 전자렌지, 인덕션, 옷장, 식탁 (학생환영), 도보로 Walmart 5분 거리 202-505-0678

버크스테이션, 방1, 화1, 간단한취사, 주차가능, Walmart 근접. (여자 분,학생 환영) 202-505-0678

버크 베이스먼트 전체, 워크아웃 별도출입 방2,욕실,주방,거실,GMU, NOVA 10분, 2인사용가능 703-887-8968(문자)

죠지메이슨대학근처 렌트 훼어팩스Hmart도가까움. 반지하지하실 출입문별도,부엌에 씽크새로만듬. 세탁실 있음. 조용하고 안전한 개인주택 703-389-4615

지하전체 간단취사 가능. 주차, 인터넷, 유포. GMU근처. 타운하우스 408-691-4775

애난데일 조용한 싱글홈 워크아웃지하큰방. 풀 배스, 세탁실, 간편취사. 출입문 별도. 주차편리. 문자 연락 요망. 703-853-9955

메릴랜드그린벨트나사근처 조용하며교통편리,작은방\$350 301-379-9660

싱글하우스 방 렌트 스프링필드 495/395 5분거리 703-750-2795

페어옥스몰근처싱글홈 1층출입문별도, 방2,큰거실,큰부엌,화장실 571-525-4220 mr. 권

395.495 2분거리. 백클릭근처 타운하우스 1,2층전부렌트가능. 아님 2층화장실딸린 방하고리모델링한지하각각렌트가능. 취사가능.

703-403-8918 (Lee)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채광, 2층, 노바 5분, 조지메이슨 5분 남학생환영.문자만가능. 571-554-4224

페어팩스지역 도보 3분거리 GMU 대학교근 처 밝고넒은 거실 방1 워크아웃, 여자분 환영 347-421-7894

페어팩스지역 죠지메이슨 대학교 걸어서 3분거리 웃층방 1개 화장실 주차편리 조용한 여자분 환영 347-421-7894

센터빌브라덕로드조용한집 싱글홈방1 렌트욕실인터넷 703-909-1609

센터빌CVS근처,지하전체렌트,새카펫,화 장실, 키친,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문자 571-243-7027

센터빌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화장실, 샤워, 인터넷. 출입문 따로되어있음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남자분 한분원함. 703-405-9005

방1개렌트,옥튼/비엔나지역 인터넷,1파 킹,세탁기&건조기,부엌사용가능,비엔나메 트로 5분, 교통편리(메트로 버스) 남자/유학생, 직장인 환영. (문자요망) 703-593-7569

지하방2넓은공간에세탁기있는 New condition (Lorton VA) 703-501-8044

아난데일서울순대에서 5분거리. 여자분환영. 차 없으신분 703-622-2033

Fairfax Brigade Ln 큰방1, 큰옷장, 별도큰욕실,책상침대,침구,세탁, 유틸리티포함. 여자분환영 \$850/m 703-919-2661

MD 져먼타운 싱글홈 욕실딸린 큰방1 하고 반지하방 1 출입문 별도, 인터넷,가구완비

애난데일한인타운중심가/조용한아파트, 버 스교통편리, 널널한주차장, 가게/식품점도 보거리,깨끗이 리모델링된 아파트, 비흡연자, 즉시 룸메이트로 들어올 분. 571-781-2938

방1,욕실별도,주차장,출입문별도 잠만주무실분, 남자환영, 금연자 703-472-0929

〈사무실/점포렌트〉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1,\$500,\$900,와이파이, 화장실,부엌있고충분한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콘도(Fairfax)\$395,000 방1*큰Den.화장실1.Metro역걸어감.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 Tops. Laminate Floors. New Carpet. New Paint. New Washer & Dryer. 편리한 1층(출입문 거리&건물)

▶703-477-3114

Centreville \$499.900 타운하우스 방4화 31/2 Brick Front. 나무마루. New paint. Updated for Washier, Stove. HV/AC, Water Heater. Open Floor plan. 교통편리 ▶703-477-3114

Alexandria 콘도. 방 2 화 2 호수가 보인는 편 안한동네, 밝고환한콘도 Washer & Dryer.

넓은부엌. Counter Tops. 1층. 넓은 Patio. Costco & Walmart 가까움. \$229,000 ▶703-477-3114

Centreville 콘도방2화2 Fire Place. Washer & Dryer. Tops Floor. Three Ceiling Fans. 넓고 편안한 Balcony. 교통편리. Lotte Mart 가까움, \$299,000

▶703-477-3114

콘도애난데일\$400,000 방2화장실 2.1Car Garage, Top Floor. 밝고깨끗한집. New Carpet, Updated Bathroom. 새페인트. 나무마루, New HVAC.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숲이 보이는 Balcony. 1,116sf 우리 어메리카은 행근처차 3대 파킹할수 있음.

Lorton 타운하우스. 1 Car Garage 1999 년 산방3화21/2총2,252sf2Level Bumpout. 9 Feet Ceiling. Walk-in Closet. Valted Ceiling 있는 안방. 넓은 Recreation Room. 3 Level. Bay Window. \$549,000

▶703-477-3114

▶703-813-8949

▶703-813-8949

▶703-813-8949

콘도 센터빌 \$325,000 방2, 화2, 1038sf 잘관리되고 Update 된집. SS Appliance, Granite Counter Tops 탁트인구조, New Window & Dryer. 숲과 파킹장이보이는넓은발코니.Lotte Mart 근처

센터빌콘도전체렌트, 1층, 전체마루, 방1,화1,풀사이즈세탁기,H-Mart근처

Centrevill 타운하우스 \$559,900 방3,화31/21,452SF Finished Walkout Basement. Updated Kitchen, Hardwood Floors. 탁트인부엌과리빙룸. Deck ▶703-813-8949

Haymarket, 럭셔리 타운홈 세일 \$620,000.2car, 방3,화3.5, Walk out Basement, 마켓에 아직 안나온 집. 571-567-5797

센터빌 2층 타운홈 \$434,900 방3,화2.5,센터빌하이,리버티미들학군 703-489-6926

〈부동산/상업용 매매〉

Vienna VA /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Rent: \$7880 (모든것포함) (10년간 랜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 고에 장소 입니다

▶ 571-421-0863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트럭중고품타이어Shop

-DC노스이스트공장지역

-30년동안운영한점포

-단골손님 500여명

-타이어 1본판매 65% 마진

-장비10여만불보유 *영업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5½ day)

*Rent/월: \$2,000(면적 3,000 sf.)

▶ 문의 전화: 202-258-6384

DC. Liquor Store 매매: \$260,000 연매상:\$780,000.6일.융자.부부운영굿 571-242-3736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오전7시-오후3시/주매상4천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 바람)

페어팩스 픽업 세탁소 매매 주매상 \$4,000, 렌트\$2,700(캠포함) 좋은지역&매상해마다오르는중 571-314-1433

애난데일 마트안 한중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 424 6451

버지니아에있는 미용실 찾는 분 연락주세요. (오후 6시후 문자주세요) 571-277-7758

볼티모어 머니먼트 근처에 컨비니언 스토어 남자혼자운영월-토9-5 순수입월\$3,600/매매6만/스탁8천 443-472-8820

상업용건물/정비소, 중고딜러차 등등 할수있는곳건물팝니다.문자요망 703-946-9901

센터빌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분들 연락바람. 703-582-8689

Serious buyer분들 연락 바람. 703-608-0522

센터빌지역크라운브릿지덴탈랩매매.

세탁소 매매 Upper marlboro, 좋은장소 703-850-3714

마켓내성업중인 한식•중식 식당하실분! 703-638-8876

랜도버에 있는 깨끗한 델리, 장비포함 7만 주 인이나이가 있어 이젠 정리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비젼이 있는 곳입니다 (샨킴) 240-381-1615

기타

버크레이크에서 멀써레이크까지... 일요일 아침 8시 버크레이크 쉘터 C에서 모여서 멀써 레이크까지 오솔길 6.5 마일 (2.5시간소요) 걷는운동모임. 숲속길걷기를좋아하시는분항상환영.

치과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크라운,별도:\$750 다양한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명인택시

▶703-939-5223

공항픽업&라이드장거리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 571-246-1942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돌 봐 드림. 1에이커넘는깨끗하고넓은정원,

리), MD 타주분들도환영! 직접 방문확인! **▶**571-278-8811

고춧가루 팝니다. 보통맛/매운맛 직접 농사지은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건강에좋은무공해100% 빛깔좋은태양초,좋은가격/신용품질보장 ▶703-470-5238

노바대학과벨트웨이중간지점(예촌 2분거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교통국업무.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443-355-7700

▶문의: 703-678-6639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Falls Church VA 파크안 최고 명당자리 매매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유화, 아크릴 개인 레슨

낚시즐기실분환영합니다.(Mr Kim) 301 - 919 - 1788.

아동,성인,취미,초보자환영 유화전공, 오래된 경력 / 개인 레슨시간 조율. 703-489-6567

〈중고품/기타매매〉

Car for Sale 2014 Chevrolet Sonic LT Auto 75,000 Miles, \$4,500 ▶연락처: 703-489-6926

4인용고급식탁,세탁소용쥬키8700 (USA)헴미싱매매 240-475-4166

물만필요한저렴한낚시대세트 \$10 연한베이지바탕디자인그라나이트2'x2' \$45 / 2개 \$80 703-268-8669

중앙일보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메디케어''&"오바마케어"신청접수!

58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재가입

사업체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셜이 최고의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디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





Carrier, Lennox 전문딜러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페인트

Since 1988

- <mark>▶ 건축ㆍ시공 및 건물ㆍ</mark>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mark>▶상가 및 빌딩 신축ㆍ</mark>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mark>일체</mark>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죽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덱, 마루, 캐비넷 샌딩 보수

플로밍. 핸디맨 써비스

703)965-3011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어 범앙에운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VA/DC/MD→NY 정기운행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장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교려통운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20년 전문//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 EV 전기자동차 🕰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팩션 도와드림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림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전기 공사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다이아몬드
- 백금(Platinum)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 K14, K18, Setting 전문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전기공사, 메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리모델링

703-582-7757

중앙일보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Chung's Refrigeration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www.intertechhvac.com

.380.2282

냉동∙냉장고

(443) 850-3703 / (410) 979-4242

24 hours 7days Service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lter

Lee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32년 전통의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큼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풀청소 (덱,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직접

시공 지하실

화장실 마루 부엌

571-338-0977

Since 1999

REPAIR 🔊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社会の主至 似의班 吃起儿好.

703-340-5858 (VA) 443-980-5858 (MD)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 | 3 Months | 6 Months | 1 Year |
|------|----------|----------|---------|
| 1BOX | \$300 | \$550 | \$1,000 |
| 2BOX | \$600 | \$1,100 | \$2,000 |
| 4BOX | \$1,200 | \$2,000 | \$3,600 |

VA/MD/DC

전제품 한국산 블라인드

- 한국산 줄없는 블라인드
- 한국산 버티컬 블라인드 한국산 오동나무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 퀄리티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1_229_4633 www.bbgblinds.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 /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코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Melanie: Can you help me out? 멜러니: 나 좀도와줄 수 있어?

Marion: What do you need? 매리언: 뭐가 필요한데?

Melanie: I would like to bounce some ideas off you. 멜러니: 내 아이디어에 대해 네 의견을 듣고 싶어.

Marion: Can it wait until tomorrow? 매리언: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어? Melanie: No, I've got to talk to the boss today,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멜러니: 아니. 오늘 보스한테 얘기해야 돼. Marion: I'd like to help you out but I've got my

hands full. 매리언: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가 정신 없이 바빠 서 말야.

Melanie: What are you doing? 멜러니: 뭐 하는데?

Marion: I'm meeting a client in an hour. I have to leave now to beat the traffic,

bounce (something) off (someone); (누구의) 의견을 묻다

(Melanie approaches Marion at the office…) (멜러니가 사무실에게 매리언에게 다가가서…)

매리언: 1시간 안에 고객과 미팅이 있어. 교통체 증 피하려면 지금 떠나야 해.

Melanie: Good luck with your meeting. 멜러니: 미팅 잘 하길 바랄게.

기억할만한 표현

▶ help (one) out: (누구를) 도와주다."I helped her out with her homework."(난 그 여자애가 숙제 하는 거 도와줬어.)

▶ have (one's) hands full: 정신 없이 바쁘다.
"She has her hands full, so l'll talk to her later."
(그 여자분이 너무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려고요.)
▶ beat the traffic: 교통체증을 피해가다.

"If we leave now, we can neat the traffic."
(지금 출발하면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을 거야.)

_____ 낱말퀴즈

| 1 | | | 2 | 3 | | 4 | | 5 |
|----|----|----|----|----|----|----|----|----|
| | | 6 | | | | | | |
| 7 | | | | | 8 | | 9 | |
| | | 10 | 11 | | | | 12 | 13 |
| 14 | 15 | | | | | | 16 | |
| 17 | | | 18 | | | 19 | | |
| | 20 | 21 | | | | 22 | | 23 |
| 24 | | | | 25 | 26 | | | |
| 27 | | | | 28 | | | 29 | |

| | 1— | | Н | la a | | | | Н |
|----------------|-----|----------------|-------------------------|------|----------|---|----|----|
| 500 | 횬 | | 블 | Y | | 균 | 12 | E |
| 닌 | | Γ | 10 | 무 | | 윤 | | 딞 |
| ₩ | 巾 | 七 | | | <u> </u> | 环 | 呾 | |
| | | ļΑ | * | 正 | 전 | | 흔 | ĺĀ |
| 곰 | 垦 | | 믾 | | 글 | | 논 | 마 |
| Κ | 哥 | | \forall \forall \lambda | 72 | 10 | ¥ | | |
| | 大 | 1 0 | HА | | | 0 | ļ⊼ | ₹ |
| -2 | | 0일 | | 추 | 廿 | ю | | 占 |
| ΙΥ | 1-2 | 40 | | 日 | ÷ | | 込 | 柗 |

가로열쇠

(1)야구에서 타자가 스트라이크를 세 번 당하 여 아웃이 됨 (2)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방법. 이기기 위해서 ~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 다 (4) 푸성귀를 다듬을 때에 골라 놓은 겉대 (6) 3년과 같이 길게 느껴짐. 몹시 애타게 기 다리는 마음 (7)어떤 사람의 병을 맡아서 치료 하는 의사 (8)부부의 한쪽에서 본 다른 쪽 (10)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함. 자세히 살피 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 (12)따를 때 거품이 나며 보리차 색깔을 가진, 쓴맛이 나는 술. 보리, 홉(hop)을 주원료로 한다 (14)아흔을 바라봄. 여든한 살 (16)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물어 봄 (17)여자를 희롱하는 사내 (18)눈은 높으나 솜씨는 서투름. 이상만 높고 실천이 따르지 못함. ㅁ고ㅁㅁ (20)여러 사람의 말을 좋지 않게 전하여 이간질함 (22)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 (25)산삼 캐는 일이 직 업 (27)벽에 기대어 놓거나 길에 세워 둔 간판 (28)원에서 중심을 지나 그 둘레 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 (29)신라 때, 청소년들의 수양 단체

세로 열쇠

(1) 강물에 떠내려 온 흙이나 모래 따위가 쌓 여 이루어진 평지 (2)캐내어서 아직 말리지 않은 인삼 (3)옷을 여밀 때 끼우죠 (4)몸을 오른쪽으로 90도 틀어 돌아서라는 구령 (5) 짐을 얹어 사람이 등에 지는 우리나라 고유 의 운반 기구 (6)무엇이든지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구슬 (8)지세(地勢)가 뒤로는 산 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에 면하여 있음 (9)물 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며 떴다 잠겼다 하는 짓 (11)포, 땅콩, 과자처럼 물기가 없는 안 주 (13)술법을 부리거나 귀신을 쫓을 때 외 는 글귀 (14)단단한 물건이나 불에 달군 쇠 를 두드리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 (15) 조선 말기에서 대한 제국까지의 시기 (19)출 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여자 승려 (21)전구를 배열하고 그림이나 문자 따위가 나타나도록 만든 판 (23)양쪽 손목에 걸쳐서 채우는 형 구. 수갑 (24)아무것도 먹지 않은 입 (25)초 에서 불을 붙이는 부분 (26)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스도쿠

| | | | | | | | 5 | |
|---|---|---|---|---|---|---|---|---|
| 1 | | 7 | | 6 | | | 3 | 4 |
| 2 | | 3 | | 1 | 9 | | 6 | 8 |
| | 1 | 5 | 4 | | 3 | 6 | | |
| 7 | | | | 5 | | 1 | 8 | 3 |
| | | 2 | | 9 | | 4 | | |
| | | | 3 | 2 | | 8 | 4 | |
| | 3 | | | 4 | | 5 | | |
| 4 | 2 | | | 8 | 5 | 3 | 9 | 7 |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어 넣어야 합니다.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L | 6 | 3 | S | 8 | 9 | L | S | Þ |
| S | L | s | L | tr | 6 | 8 | 3 | 9 |
| 9 | Þ | 8 | L | z | ε | 6 | L | S |
| S | L | Þ | 8 | 6 | L | S | 9 | 8 |
| ε | 8 | L | 9 | s | S | Þ | 6 | L |
| 6 | S | 9 | 3 | L | tr | S | L | 8 |
| 8 | 9 | L | 6 | L | S | 3 | Þ | Z |
| Þ | ε | 6 | 2 | 9 | 8 | L | 5 | Ļ |
| 7 | c | 2 | - | - | , | 0 | 0 | 6 |

① 위싱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생활안내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 | 51 | N |
|----|----|---|
| V. | J | |
| | | |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세계이목집중된중간선거 | 제계 이목 집중된 중간선거, "민주주의 축제 열리다" |
|--|-------------------------------|
| The second secon | ①위성틴 중양일보 구독신청서 |

| | ①위성틴 『 | 중앙일보 구독신정서 |
|-----------------------|--|--------------------------------------|
| 성명 (Name) | 영문(Eng) | 한글 (Kor) |
| 주소 (Address) | | |
| 연락처 | Home | |
| (Phone #) | Cell | |
| 구독 료 | 1년 선납 \$120 |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
| (Subscription Fee) | 1년 선급 #120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
| Card Info | 카드 종류 VISA | Master |
| 신청서 보내실 곳 |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 | ok., #310, Annandale, VA 22003 |
| 20 년 | 월 일 서당 | 명 (sign):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3일 후부터 배달되며 3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구인

맞춤 홈패션

50년 경력으로 쿠션, 침대커버, 인테리어 소품 그외 모든 홈패션을 멋지게 만들어 드립니다. (213)505-3898

매매

소액투자로 식당운영하실분

돈까스/한식/치킨 좋은상권, 마켓옆 (714)356 - 3786

저렴한 E2 사업체매매 AZ피닉스공항에서 30분거리 현주인2007년부터 운영 F2승인및 연장 총7번 값싼렌트,영주권취득해서 매매 안젤라 (480)285-9605

라스베가스지역

애틀랜티

구인

(562)332-0765 Beauty Supply 매매 가격: \$12만+INV. 3,300sf. 월렌트: \$2,700 연매상: \$40만

일본식당 직원모집 _ 사세확장으로 함께 성장하실 분 스시 쉐프 0명 ____ *히바찌 쉐프 0명 '웨이터/웨이트리스 0명 침식제공 액라배마 지역

(251)968-2525 (256)653-1970

매매

가장 확실한 직업 평생 은퇴가 없습니다.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뷰티 서플라이 매매 플로리다 올랜도 매상 \$1,000,000/년

렌트 \$5,000 매매가 \$500,000 T.407-928-3057

타지역

가 되세요

주방쿡 & 헬퍼 부부팀환영, 침식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모텔매매 가 50만

매매

년매상 26만,방24개 살림집 따로, 같은 건물 뉴멕시코 I-40번과Rout 66 선상 위치,30년운영 은퇴 (505)287-2935

- 2008부터 A+ 비즈니스 융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월 최소 이자만 지불, Rate: Prime+2-5%,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융자

간단하고 빠른 융자

Line of credit

기계장비론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융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융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융자 LTV 80%까지

Chunjongsansam.com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아팔래치아 깊은 산의 정기를

심마니**장석훈**의

213. 388.1234

LA점 3908 Wilshre Blvd LA, CA 90010 (구 대륙백화점) 라마다 호텔 뒷편 주차장 이용

718.879.2340

159-2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160가와 Northern 코너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통증 • 뱃살 이명-치질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0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 불면증 이명 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엘에이) 213-675-687 Leisure World Seal Beach, CA

-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4500 → \$1400 | \$5500 → \$1600

추간 협칙증, 호실권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약 산산금옥단 도인벽사단 [1]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온열치료기 J2V

인터넷에서 (700인의 편지) 검색

전립선 암예방 및 치료 효과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 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드림바이오메디칼 2054 S. Euclid St #H. Anaheim, CA 92802

비지니스 편딩

☑ 24시간 안에 승인

www.book7080.com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 \$5,000-\$200,000

☑ 99% 승인

☑ 저렴한 가격

비지니스 오너에게 드리는 특혜

>>>>> 크레딧 체크 없이 2일 이내 편딩



지금 수지 와 통화하세요 !

Advance T: 929-207-6710

www.QMadvance.com e mail: suzie@QMadvance.com





Sung Hwang&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세계 2위 로펨)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위드 한인회 화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폭 킨 벼 ㅎ시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o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